

국립국어연구원 2008-3-3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 한국어 강의 자료집

- 러시아 사할린 지역 -

기간: 2008년 7월 7일(월) - 7월 11일(금)

장소: 사할린 한국교육원

강사: 이운영(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구지민(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 〈 차 례 〉

- 한국어 발음 교육 ..... 1
- 한국어 교재론 ..... 61
- 한국어의 특징 ..... 91
-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 109
- 한국어 어휘와 문화 ..... 133
- 한국의 언어 예절 ..... 171

# 한국어 발음 교육

## 1. 발음 교육의 중요성

하나의 언어를 새로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언어에 나타나는 발음을 배우는 것이다. 발음은 문법 지식이나 어휘력과 같은 다른 언어 능력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언어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능력이 많고 적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언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발음의 정확성과 유창성이 떨어지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발음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보다 더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다.

요즘은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하는 나머지 발음이 약간 어색하거나 정확하지 않아도 상황에 의존하여 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학습자 자신도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하려고 할 때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음은 반드시 초급 단계에서 정확하게 배우고, 그 기초 위에 문장의 구조와 단어를 배워 쌓아가야 바람직한 언어 학습이 된다.

입문 단계인 초급에서는 언어의 기본인 발음을 학습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교실 수업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배울 기회가 있지만, 중급·고급으로 올라가면서 발음은 교실 수업에서 주류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급·고급으로 올라가면 소화해 내야 하는 학습량이 많아진다는 점도 있지만, 이보다는 말만 통하면 됐지 발음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까지 있겠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급·고급에서도 꾸준히 발음 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언어 구사 수준은 고급화되는데 발음은 잘못된 형태가 화석화되어서 불균형적인 언어적 수행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지도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올바른 발음 지도는 필수적인 것이다.

## 2. 효율적인 발음 교육

효율적이고 올바른 발음 지도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의 표준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외국어를 구사할 때도 잘못된 발음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에도 좋고, 말하고자 하는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어 교수자 자신이 한국어의 음성학과 음운론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음성학적인 훈련도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과 훈련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부정확하게 조음한 발음에 대해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고, 정확한 발음 지도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발음 지도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수자의 정확한 발음과 목표어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을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해당 외국어의 음운 체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하여 유사점과 상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언어에 있는 소리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 해당 언어에 없는 것은 변별 특성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어 교수자가 학습자의 모국어어를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어 학습자가 많은 대표적인 언어들의 음운 체계를 알고 발음 교수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점차로 그 언어의 수를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음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발음을 언어권별로 분류하여 비교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어권 학습자는 자음 중에서 ‘평음/격음/경음’이 초성으로 올 때와 /ㄴ, ㄹ, ㅇ/이 받침으로 쓰일 때 정확하게 구별해서 듣거나 발음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모음 중에서는 /ㅏ/와 /ㅓ/, /ㅗ/와 /ㅜ/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또한 영어권 학습자는 자음 가운데 ‘평음/격음/경음’과 모음 가운데 /ㅏ/와 /ㅓ/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듣거나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언어권별로 자주 나타나는 발음상의 문제점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3. 발음 지도의 단계

#### (1) 제1단계 - 청각적인 구분

특정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는 그 발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운 체계의 대조를 통하여 최소 단위인 음소의 대립 훈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영어권 학습자의 경우는 한국어의 /ㅅ, ㅆ/과 /s/를, 일본어권 학습자의 경우는 한국어의 모음 /ㅜ, /ㅛ/와 /ㅜ, /ㅠ, /ㅡ/와 /ㅓ/를,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는 한국어의 /ㄹ/ 받침과 중국어의 음소를 대립시켜 들려 주고 청각적으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 많은 언어권 사용자들이 어려워하는 /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ㅃ, ㅍ, ㅍ/와 같은 한국어의 ‘평음/격음/경음’으로 대립하는 자음들도 우선 청각적으로 구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본다.

개별적인 음소 단위의 발음 훈련 단계가 끝나면 어휘 단위와 문장 단위의 청취 훈련으로 음을 가려냄으로써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찾아내게 하는 훈련을 한다.

발음 지도에서는 녹음 테이프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모국어 화자가 직접 들려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2) 제2단계 - 인지와 이해

음성기관의 그림이나 모형 또는 교사의 발음 동작 등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발음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학습자의 모국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인식시킨다. 교사가 실제로 발음 동작을 보여줄 때 과장된 입 모양으로 발음하는 것은 학습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가장 자연스러운 입 모양으로 하는 정확한 발음을 들려 주어야 한다.

#### (3) 제3단계 - 발성

학습자가 실제로 발음하고 연습하는 단계를 말한다. 한국어에서 모음은 자음과 결합하여 음절을 만드는 기본이 되므로 모음부터 발음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편리하다. 학습자들의 입술 모양만 보고도 오류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발음

지도가 가능하다.

#### (4) 제4단계 - 확인과 교정

학습자가 만든 발음 오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오류의 원인을 찾아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교정 방법을 동원하여 교정해 준다.

### 4. 한글의 자모와 발음 지도

한글의 자모는 세계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문자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중에는 한글이 매우 복잡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한국어의 기본이 되는 모음과 자음은 모두 40개밖에 되지 않아 간단해 보이지만, 초성, 중성, 종성이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음절의 수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한글을 처음 접하거나 배우는 사람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입문 과정에서는 자모 40자의 음운 체계와 음가 그리고 발음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발음 연습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4.1. 자모의 교육 순서

자모 교육에서는 자음보다 모음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그것은 자음은 반드시 모음에 붙여 써야 그 소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모음과 이중모음 가운데 우선 단모음만을 가르친다. 한국에서는 각각의 모음이 음가를 가지고 있으나 ‘ㅏ, ㅑ, ㅣ’와 같이 모음만을 표기하면 하나의 완전한 글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자음이 비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모음 앞에 ‘ㅇ’을 표시하여 지도한다.

단모음의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자음 교육을 한다. 자음 가운데 평음에 해당하는 기본 자음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ㅎ/을 먼저 교육하고, 격음인 /ㅋ, ㅌ, ㅍ, ㅊ/, 경음인 /ㄱ, ㄴ, ㄷ, ㅅ, ㅈ/의 순서로 가르친다.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진 글자를 써 보면서 발음해 보게 하는데, 특히 ‘ㄱ’ 계열의 자음과 모음을 연결시킬 때는 모음이 자음의 오른쪽에 올 때와 아래에 올 때 모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서 글자의 모양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단모음과 자음의 교육이 끝나면 이중모음 교육으로 들어가는데, 이중모음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모음이 반모음 /j/와 결합하는 /ㅟ, ㅠ, ㅞ, ㅟ/와 반모음 /w/와 결합하는 /ㅜ, ㅠ, ㅞ/를 지도한다. 그 다음에는 비교적 빈도수가 적은 /ㅟ, ㅞ, ㅟ/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j/를 가르친다. 모든 모음과 자음의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각 모음과 자음을 결합시키면서 쓰고 발음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받침 교육으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한 모음, 자음의 발음 지도는 교육에 용이하고 효율적인 순서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한글 체계 안의 순서와는 다르므로, 앞으로 사전 찾는 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 자모의 바른 순서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자 음: ㄱ ㅋ ㆁ ㄷ ㅌ ㄹ ㄴ ㄷ ㄹ ㄴ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ㅅ ㅋ ㅌ ㅍ ㅎ
모 음: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ㅿ ㅿ ㅿ ㅿ
받 침: ㄱ ㅋ ㆁ ㄷ ㅌ ㄹ ㄴ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ㅅ ㅋ ㅌ ㅍ ㅎ ㅅ ㅋ ㅌ ㅍ ㅎ

< 사전에 올릴 때의 자음과 모음의 순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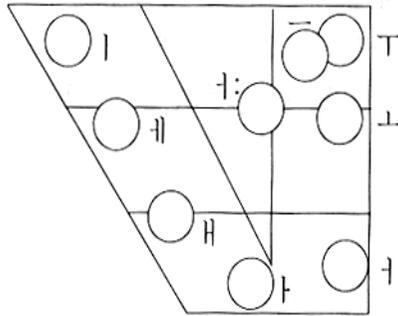
### 4.2. 모음의 지도

‘모음, 자음’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들도 있지만 언어권에 따라서는 말소리를 모음과 자음으로 나눠 생각하는 습관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음, 자음’이라는 말의 뜻을 개념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모음’이라는 용어보다는 ‘a, e, i, o, u’와 같은 것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글의 모음은 우주의 원리를 따서 만들었는데, 기본 문자인 세 글자는 하늘(ㅇ)과 땅(ㅡ) 그리고 사람(丨)으로 구성되며, 이 세 가지 글자가 조합되어 여러 가지 모음을 만들어낸다는 원리를 알려 주면, 생소한 글자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빨리 이해할 수 있다.

모음을 지도할 때는 교사의 발음에만 의지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모음을 발음할 때 입 속에서 움직이는 혀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림과,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높낮이와 입을 얼마나 벌리거나 다물어야 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모음 사각도를 가지고 교육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발음 지도가 될 것이다.

또한 교사가 모음을 발음할 때 입 모양이 어떤지를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따라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은 교정해 주어야 한다.



< 한국어의 모음 >

#### 4.2.1. 단모음

\* 모음 분류 기준

- ① 혀의 최고점의 높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 ② 혀의 전후 위치: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 ③ 입술 모양: 평순, 원순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ㅜ)			ㅡ	ㅓ
중모음	ㅘ	(ㅛ)			ㅚ	ㅝ
저모음	ㅞ		ㅟ			

단모음은 모음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소리이므로 이들을 변별하여 듣고 발음하는 것은 한국어 발음의 첫 단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위의 표에서 ‘ㅜ’와 ‘ㅓ’는 현실적으로 점차 단모음에서 이중모음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 괄호 안에 넣어 처리하였다.

단모음 가운데 발음이 비슷하게 느껴져서 서로 혼동하기 쉬운 것끼리 대립 쌍을 만들어 중점적으로 연습시킨다.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모음 가운데 ‘ㅜ/ㅓ’의 발음 차이를 구별하는 교육 방법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ㄱ/와 /ㄴ/가 들어간 최소 대립어(예 거/고)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읽게 한다.
- ②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게 한다.
- ③ /ㄱ/와 /ㄴ/의 발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청각적으로 인식시킨다.
- ④ /ㄱ/ 뒤에 /ㄱ/ 모음을 연결해서 ‘거’를 발음하게 하고, 거울을 보면서 입술이 벌어진 틈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가 되고 입술 모양이 평평한지 확인하게 한다.
- ⑤ /ㄱ/ 뒤에 /ㄴ/ 모음을 연결해서 ‘고’를 발음하게 하고, 거울을 보면서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되는지 확인하게 한다.
- ⑥ ‘거’와 ‘고’를 번갈아 가며 ‘거, 고, 거, 고…’와 같이 발음하여 ‘거’와 ‘고’를 발음할 때 입을 벌린 정도와 입술 모양의 차이를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게 한다.
- ⑦ ‘거, 고’를 연습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자음을 /ㄱ/와 /ㄴ/ 뒤에 연결해서 번갈아 가며 발음해 보게 한다.
- ⑧ /ㄱ, ㄴ/가 들어간 단어를 듣고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거나 받아쓰기를 하여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듣는지 확인해 본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모음으로 ‘ㄱ/ㄴ’, ‘ㄷ/ㄴ’을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음 찾기 게임’을 통해서 모음을 정확하게 듣고 구별하는 훈련과 발음 연습까지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자음을 익힌 경우에, 교사가 ‘ㄱ/ㄴ’가 들어가는 최소 대립어(예: 거기/고기, 서리/소리…)를 발음하면, 학습자는 교사의 발음을 듣고 그 단어에 ‘ㄱ/ㄴ’ 중 어느 모음이 들어가는지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모음 카드를 들고 학생이 직접 발음해 보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개인별로 또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가능하며, 많이 맞히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학습자들끼리 경쟁심을 유발하여 발음을 더욱 주의 깊게 듣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므로 모음 청취 및 발음 훈련에 효과적이다. 물론 자모 교육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음을 이용한 단어와 받침을 사용한 음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발음에 대한 훈련은 입문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급·고급까지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중급·고급에서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있으므로 학습자의 언어 수행 능력이 높아졌을 때는 단어 단위에서 문장 단위로 확대시켜 연습시킬 수 있다.

단모음 가운데 ‘애/개’는 젊은층의 한국어 화자들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적을 정도로 거의 통합된 상태이다. 모음 ‘애/개’에 대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구별이 잘 안 되는 발음이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안 가르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어 음운 체계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음소이므로 기본적인 발음 지침은 설명한다.

#### 4.2.2.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반모음으로 되어 있으며,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화를 가져오는 모음들이다. 예를 들어서 /ㅑ/를 발음할 때 처음에는 /ㅣ/에서 시작하여 /ㅏ/로 옮겨가므로, 혀의 위치, 혀의 최고점의 높이, 입 모양은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서로 달라지게 된다.

- 반모음 /j/ +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이중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반모음 /w/ +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이중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반모음 /ɰ/ + 단모음 /ㅣ/ → 이중모음 /ㅚ/

이중모음 가운데 ‘ㅚ/ㅞ/ㅟ’는 한국어 화자들도 일상 발음에서 거의 변별하지 못하는 음이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듯하다.

‘ㅚ/ㅞ’는 발음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글자를 보고 발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최소’를 ‘취소’라고 한다든가, ‘취미’를 ‘최미’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ㅚ/는 /ㅚ/에서 시작하여 /ㅣ/로 옮겨가는 발음이고, /ㅞ/는 /ㅞ/에서 시작하여 /ㅣ/로 옮겨가는 발음이므로, 각각 어떤 소리로 시작되는지를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ㅚ/는 환경에 따라 세 가지 변이음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첫 음절에서 자음이 앞서지 않으면 이중모음 [ɰi]로 발음되는데, 바로 이 발음을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많다. 이중모음 /ㅚ/를 발음할 때는 모음 /ㅚ/와 /ㅣ/를 연이어 발음하되 /ㅚ/는 매우 짧게 발음한다. 그리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음절의 ‘의’(예 희망, 무늬, 띄어쓰기)와 둘째 음절 이하(예 강의, 회의)에서는 [i]로 발음되며, 소유격 조사 ‘의’로 쓰일 때는 ‘우리의[urie] 소원’과 같이 [e]로 발음된다는 사실도 점차적으로 함께 지도해야 한다.

### 4.3. 자음의 지도

입문 과정에서 한글의 자음을 지도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서 자음의 명칭을 지도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학습자에게는 한글이 복잡하다는 인상을 더해 주고, 발음에 대해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 줘서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음의 분류 기준

- ①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 ② 조음 방법: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반모음
- ③ 기(氣)의 유무: 무기음, 유기음
- ④ 긴장의 유무: 경음, 연음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파열음	평음	ㅂ p	ㄷ t		ㄱ k	
	격음	ㅃ ph	ㅌ th		ㅋ kh	
	경음	ㅍ p'	ㅎ t'		ㆁ k'	
마찰음	평음		ㅅ s			ㅎ h
	경음		ㅆ s'			
파찰음	평음			ㅈ tʃ		
	격음			ㅊ tʃh		
	경음			ㅉ tʃ'		
비음		ㅁ m	ㄴ n		ㅇ ŋ	
유음			ㄹ r			
반모음				ㅈ	ㅍ	

#### 4.3.1. 파열음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음 가운데 어려워하는 발음은 파열음의 경우가 많다. 한국어에서는 ‘평음/격음/경음’의 세 가지 음이 대립하는데, 많은 언어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의 파열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대립적인 음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의 파열음 중 평음에 해당하는 ‘ㅂ/ㄷ/ㄱ’은 단어의 첫 음절에서 음성학적으로 말할 때 ‘무성 무기 연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기식이 느껴지는 음이기 때문에 평음과 격음의 차이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이 두 종류의 음이 똑같은 소리로 들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받아쓰기를 시켜 보면 ‘바다’와 ‘파다’를 모두 같은 음으로 인식한다거나, 서로 뒤섞어서 반대로 인식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므로 평음과 격음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발음할 때 입 앞에 손바닥이나 얇은 종이를 대고 손바닥에 입김을 느낄 수 있게 하거나 종이 흔들리는 정도를 가지고 평음과 격음의 차이를 구별시켜 줄 수 있다. 즉 평음보다는 격음을 발음할 때 입김을 더 많이 느끼고, 종이도 더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 일부 언어권 학생들은 한국어의 ‘ㅂ/ㄷ/ㄱ’을 자신의 모국어에서 ‘b/d/g’로 발음하는 것과 같이 완전한 유성으로 발음하는 일이 있어서 매우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으므로 특히 첫 음절에서 ‘ㅂ/ㄷ/ㄱ’와 같은 평음이 나올 때는 유성으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음에 해당하는 ‘ㅃ/ㄸ/ㄱ’과 평음인 ‘ㅂ/ㄷ/ㄱ’은 모두 ‘무성 무기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도 보이는데, 이 두 종류의 음은 발음할 때 들이는 힘의 정도와 긴장 상태를 비교해서 구별시킬 수 있다.

한편 격음인 ‘ㅍ/ㅌ/ㅋ’과 경음인 ‘ㅃ/ㄸ/ㄱ’의 구별이 잘 안 되는 학습자에게는 발음할 때 입 앞에 대는 손바닥이나 종이의 변화에 주의해서 차이를 느껴 보게 하는 방법이 좋다. 경음인 ‘ㅃ/ㄸ/ㄱ’은 평음인 ‘ㅂ/ㄷ/ㄱ’와는 달리 단어의 첫 음절에서도 기식이 나타나지 않는 소리이므로 격음과 경음을 비교해서 발음해 보면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파열음은 조음할 때 ‘폐쇄, 압축, 개방’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어말이나 같은 조음 자리의 장애음 앞에 나올 때는 조음시 개방 단계가 생략된다. 예를 들어 ‘밥’이란 낱말을 발음할 때 어두의 /ㅂ/은 정상적으로 개방되나 어말의 /ㅂ/은 개방되지 않으므로 받침 뒤에 모음 /ㅡ/를 붙여서 [바브]와 같이 발음한다거나, [바프]와 같이 기식음을 내면서 파열시키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특히 양순음을 예로 들어 연습해 보면 마지막 발음을 한 다음에도 두 입술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자음 가운데서도 한국어에 수적으로 가장 많은 파열음의 구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서 모음의 지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음 찾기 게임’을 통하여 자음을 정확하게 듣고 구별하는 훈련과 발음 연습까지 시킬 수 있다.

### 4.3.2. 마찰음

한국어의 마찰음은 ‘스/ㅍ/ㅎ’의 세 개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스/ㅍ’의 대립은 발음할 때의 긴장도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사다/싸다’, ‘수다/쭈다’와 같은 최소 대립어를 통해서 그 차이를 느끼고 발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의 /ㅎ/이 종종 약화되어 약하게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일이 종종 있다. 곧 성문 마찰 유성음인 [ɦ]로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사실이 한국어 학습에서 유의미한 문제를 가져오는 일은 드물므로 이것을 초급 단계에서 일부러 연습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학습자들이 /ㅎ/ 발음을 거의 하지 않느냐고 물어오는 경우나 자연스럽게 따라 하는 발음에서도 지나치게 /ㅎ/을 분명히 발음하는 경우에는 이 때의 /ㅎ/은 아주 약하게 발음된다는 사실을 가르칠 필요는 있다고 본다.

### 4.3.3. 파찰음

파찰음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열음과 마찰음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음이다. 따라서 파찰음은 ‘폐쇄, 압축, 부분 개방, 마찰, 완전 개방’의 다섯 단계로 조음된다. 한국어의 파찰음은 ‘스/츠/ㅍ’가 있는데, 이것은 파열음의 ‘평음/격음/경음’ 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습하면 된다. 특히 ‘스/츠/ㅍ’의 연습에서는 뒤에 평순 모음이 오는 것을 먼저 연습시키고 난 다음에 원순 모음이 오는 것을 연습시킨다. 언어권에 따라서는 ‘스/츠/ㅍ’를 무조건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발음하는 수도 있으므로, 한국어의 ‘스/츠/ㅍ’은 뒤에 원순 모음이 올 때만 원순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 좋다.

### 4.3.4. 비음

한국어의 비음은 ‘ㄴ/ㄹ/ㅇ’이 있는데 개별적인 발음에서는 대부분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발음할 수 있는 소리들이다. 다만 언어권별로 받침 부분에서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부분은 언어권별 지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 4.3.5. 유음

한국어의 유음은 /ㄹ/ 하나밖에 없는데, /ㄹ/은 환경에 따라 [r]계 탄설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l]계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탄설음 [r]은 혀끝을 윗잇몸에 한번 튀기면서 발음하는 것으로, 모음과 모음 사이, 모음과 반모음 사이, 모음과 /ㅎ/

사이에 나타난다. 탄설음 [ɾ]로 발음해야 할 것을 영어식으로 혀를 말아서 발음하지 않게 한다든가, 설측음 [l]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설측음 [l]은 [ɾ]이 나타나지 않는 환경, 즉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설측음 다음에서 나타나는데 영어의 'pill, full'에서 나오는 것 같은 어두운 /l/인 [ɫ]로 발음하지 않게 하고,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음 /-/를 붙여서 발음하지 않게 하면 된다.

#### 4.4. 초분절 음소의 지도

##### 4.4.1. 강세

소리를 발음할 때 들어가는 물리적인 힘의 강도와 지각적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강세라고 한다. 같은 모음이라도 강세를 받으면 강세를 받지 않는 소리보다 더 강한 조음의 힘으로 발음되어 더 크게 들린다. 언어에 따라서는 이러한 강세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 쌍이 있기도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이 강세에 의해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 쌍은 없다. 그러나 강세의 위치를 잘못 두는 경우에는 말소리가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강세가 부여되는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어의 경우에는 각 단어마다 강세를 가지고 있어 단어가 강세의 단위가 되지만, 한국어는 강세가 각 단어에 부여되기보다는 '말토막'이라는 단위로 하여 강세가 놓인다. 말토막의 최소 형태는 강세 음절이 하나로 구성되며, 그보다 큰 형태는 강세 음절의 앞이나 뒤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음절로 되어 있다. 이러한 말토막 구조 내에서 강세 음절이 주변의 약음절보다 돋들리게 된다. 강세 위치는 말토막 내에 있는 음절의 구조와 모음의 장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국어에서는 낱말의 첫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음절어나 2음절어의 경우는 첫 음절에 강세가 온다.

단음절어: '산, '집, '방

2음절어: '학교, '사:람, '음:식, '인간

3음절어: '방:송국, '백화점, '교:과서

4음절어: '분명하다, '뒤:따르다, '별:개지다

세 음절 이상으로 된 낱말의 경우는 첫 음절이 받침이 없고 모음이 짧게 발음되면 강세는 둘째 음절에 오기도 한다.

3음절어: 대학교, 자동차, 지우개

4음절어: 기다리다, 고속도로, 개구쟁이

한국어의 강세는 매우 규칙적으로 부과되므로 이러한 강세 규칙의 차이를 이해시키고 발음 지도를 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강세 위치를 가르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한 강세 위치는 일반적인 경향만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한국어의 강세는 영어와 달리 단어 내의 강세 위치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발화의 속도, 즉 말토막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해당 음절에 강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다음의 발화를 살펴보자.

① /오늘 시간 있으세요?/

② /오늘+시간 있으세요?/

③ /오늘+시간+있으세요?/

이것은 “오늘 시간 있으세요?”라는 발화를 속도에 따라 말토막으로 나눈 것이다. ①은 하나의 말토막으로, ②는 두 개의 말토막으로, ③은 세 개의 말토막으로 발음하고 있다. ①과 같이 발화하는 경우, 강세는 첫 번째 음절인 ‘오’에만 오게 된다. ②는 두 개의 말토막으로 되어 있어서 ‘오’와 ‘시’에 강세를 가지게 되고, ③은 세 개의 말토막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 ‘오’, ‘시’, ‘있’에 강세가 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강세는 단어를 단위로 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말토막을 단위로 하여 부여되므로, 말토막의 수에 따라 강세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

#### 4.4.2. 억양

1. 음의 높낮이의 차이가 발화 차원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나 감정,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면 ‘억양(intonation)’이 된다. 억양은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키지는 않고, 실제 발화 차원에서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2. 일반적으로 문장의 끝부분에 얹히는 억양이 의미 전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장 끝에 얹히는 억양의 음조는 문장의 형식에 따라 내림조 억양과 오름조 억양이 있다. 서술문, 명령문, 청유문의 억양은 내림조로 끝나고, 의문문은 오름조로 끝나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억양은 늘 문장 형

식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화 상황에 따라 서술문, 명령문, 청유문에서도 오름조 억양이 쓰일 수 있고, 의문문에서도 내림조 억양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억양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초급 단계에서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의 가장 기본적인 억양 유형을 지도하고, 급이 올라갈수록 점차로 다양한 유형의 억양 형태를 지도해 가야 할 것이다.

### 3.

#### (1) 평서문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몇 가지의 변이형을 갖는다.

- 친구하고 영화를 봤어요.

위 문장의 경우 일반적 평서문이고 화자의 단순 진술일 때에는 ‘영화를 봤어요’라는 서술절의 경우 점차 낮아지는 억양 유형을 보이면서 ‘-요’가 제일 낮게 실현된다. 그러나 그러한 화자의 진술을 들은 청자가 동의하는 정도의 반응으로 반복할 경우에는 ‘-요’부분이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유형이 된다.

- 미안합니다.

위 문장의 경우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두세 가지의 억양 유형을 가질 수 있다. 즉, 화자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여 발화를 할 때는 종결어미 ‘-다’ 부분이 제일 낮은 유형으로 실현되지만, 조금 건성으로(조금은 겸연쩍은 모습) 대답할 경우나 친근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종결어미 ‘-다’ 부분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발화된다.

#### (2) 의문문

의문문의 경우, ‘집에 가니?’와 같이 문장 끝이 상승형으로 구현되는 경우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이고,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wh-Question)의 경우는 문장의 끝이 올라가는 듯하지만 끝이 하강조다. 다음의 두 예는 이 차이를 잘 보여 준다.

- ① A: 누가 가니? (의문사)  
 B: 영희가 가요.

② A: 누가 가니? (미정사)

B: 네, 그런가 봐요.

이들 두 예에서 ①은 의문사 ‘누가’가 있는 설명 의문문으로서 의문사 ‘누가’의 경우도 첫음절이 높고 뒤가 낮다. 그리고 문장 전체의 억양도 서술어 ‘가니?’의 경우 ‘-니’가 올라가다가 끝이 약간 내려온다.

반면에 ②는 ‘누가’가 의문사가 아니라 ‘미정사’이다. 따라서 질문의 초점이 ①에서는 ‘누가’에 놓이지만 ②에서는 서술어 ‘가니’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뒤의 경우 ‘누가’도 첫음절보다 두 번째 음절이 더 높으며, 뒤따르는 서술어의 경우도 ‘-니’가 완전한 상승조로 끝난다.

한편 선택형 질문의 경우는 앞 문장은 상승조로 실현되고, 뒤따르는 두 번째 문장은 하강조로 실현된다.

• 같이 갈래, 안 갈래?

### (3) 명령문

명령문의 경우도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조금씩 변이형을 가진다.

• 조용히 해. / 조용히 하세요.

예를 들어 ‘조용히 해.’의 경우 권위를 수반한 강한 명령의 의미를 위해서는 ‘조용히’ 부분은 높고 ‘해’의 부분은 급격하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억양 유형을 갖는다. 그러나 약간의 권유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에서는 ‘조용히’ 부분이 앞 예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서 발음되고 마지막 ‘해’부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서 ‘해’의 발음이 조금 길어지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조용히 하세요.’ 정도의 문장에서는 공손함이나 부탁 정도의 의미를 지니게 되면 낮아지다가 ‘-요’부분이 올라가면서 끝나는 유형을 지니기도 한다.

### (4) 청유문

청유문의 경우는 제안의 의미가 강하므로 명령문과 유사한 억양 구조를 보인다.

- 자, 우리 학교에 갑시다. / 가자.

‘자, 우리 학교에 갑시다. / 가자’의 경우, 서서히 내려가는 억양 구조 또는 끝이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유형을 띠면서 친근감이나 제안의 수위를 나타낼 수 있다.

#### 4.4.3. 장단

한국어에서는 표기 형태는 같으나 모음의 장단의 차이로 인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의 한국어 화자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정확하게 알고 구사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중급 이상에서 모음의 장단 차이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겠으나, 장단의 구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 4.4.4. 성조

한국어는 성조 언어가 아니므로 성조에 의한 간섭 현상도 일어나지 않으며 성조를 주의해야 할 필요성도 적다. 단, 한 음절 내에서의 음의 높이 변화가 있는 경우가 한국어 중에서는 경상도 방언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교사 중에서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이러한 흔적을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사의 발음이 가장 중요한 발음 연습의 모델이 되므로 교사 자신 역시 발음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상도 지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 교실 밖의 한국어 환경이 표준어가 아니므로 발음 연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4.4.5. 연접

휴지(pause)는 숨을 쉴 정도의 휴식을 두는 것인 반면에 연접(juncture)은 휴지만큼은 아니고 약간의 간격을 두고 한 기식 단위에서 발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어서 발음하는 효과 정도의 특징을 말한다. 한 어절이나 구에서도 어디를 끊어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정확하게 끊어 읽는 훈련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꼬리가 긴 | 원숭이                      vs.    꼬리가 | 긴 원숭이  
아버지가 | 방에 들어가신다.        vs.    아버지 | 가방에 들어가신다.

특히 긴 문장을 발화할 때는 듣는 사람이 문장의 내용을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둘 이상의 말토막으로 나누어 발화해야 하는데, 말토막 경계를 문장의 아무데나 부과해서 발화하면 어색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문장의 의미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말토막 경계의 수와 위치는 문장의 길이, 말의 속도와 스타일, 문장의 문법 구조와 의미 구조, 초점의 영역 등 여러 요인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인 발음 연습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문장 끊어 읽기를 함께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 5. 음절 구성과 발음

한국어는 음절 문자로 하나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어에서 음운론적으로 가능한 음절 구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V 유형

모음 하나로 음절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아, 오, 여’ 등에서처럼 첫소리와 받침 없이 모음만으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한다. 첫소리에 쓴 ‘ㅇ’은 표기상 하나의 완전한 음절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글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소리값은 없다.

### (2) CV 유형

‘초성+중성’으로 음절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소, 자, 개’와 같이 받침 없이 자음과 모음만으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한다.

### (3) VC 유형

모음 다음에 자음이 결합한 경우로 종성 위치의 자음은 받침이 된다. ‘알, 옥, 옷’ 등이 그 예이다.

### (4) CVC 유형

‘자음+모음+자음’으로 구성된 음절 유형이다. 받침으로는 초성에 사용하는 모든 자음을 쓸 수 있지만 종성 규칙에 의하여 7개의 대표음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만 발음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받

침에 쓰인 /이/은 초성에 쓴 것과는 달리 [ɰ]의 소리값을 가진다. CVC 유형의 음절로는 ‘강, 달, 국’ 등을 들 수 있다.

종성에 두 개의 자음 즉, ‘겹받침’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의 자음을 표기하지만 소리는 하나로 나게 된다. 즉, 어말에 자음군이 나올 경우 단순화 과정을 거쳐 하나만 소리가 나지만, 모음이 연결될 때는 두 개의 자음 중 첫 번째 소리는 앞 음절에서 소리 나고, 두 번째 소리는 뒤 음절에서 소리가 난다. 예를 들어서 ‘닭’은 받침으로 ‘ㄹ’과 ‘ㄱ’이 있지만, 이 음절만을 발음할 때는 [닥]으로 단순화되어 ‘ㄱ’ 소리 하나만 난다. 그리고 ‘맑은’의 경우는 첫 번째 음절 ‘맑’ 뒤에 ‘은’이 와서 ‘ㄹ’ 받침에서 첫 번째 소리인 ‘ㄹ’은 앞 음절에서 소리 나고, 두 번째 소리인 ‘ㄱ’은 뒤 음절에서 소리가 나므로 결국 [말근]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 6. 음운 규칙의 지도

한국어에서는 종성 규칙, 자음 동화, 구개음화, 경음화 등의 여러 가지 음운 규칙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규칙에 한하여 간단하게 제시하고, 학습 단계별로 지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초급 과정부터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발음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항목이 포함된 단어들을 배울 때마다 단편적으로 이러한 음운 규칙을 다룰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 과정 안에서 발음에 관련된 항목들을 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1. 종성 규칙

종성 규칙은 종성 즉, 받침이 발음되는 양상을 규칙화한 것으로 중화 규칙, 겹받침 단순화, 격음화, 연음 규칙으로 나뉜다.

#### 6.1.1. 중화 규칙

한국어의 장애음은 종성으로 사용될 때 같은 조음 위치의 이완 파열음으로 중화된다. 그리고 받침에서 나는 모든 음은 어두(초성)에서 실현되는 음과는 달리 파열되지 않은 음이다. 다시 말해 어두의 파열음과 어말의 파열음은 철자 상으로는 동

일하지만 소리 상으로는 분명히 다르다. 양순음 /ㅂ, ㅍ/은 종성의 자리에서 /ㅂ/으로 실현되고, 치조음 /ㄷ, ㅌ, ㅅ, ㅆ/과 경구개음 /ㅈ, ㅊ/은 /ㄷ/으로, 그리고 연구개음 /ㄱ, ㅋ, ㆁ/은 /ㄱ/으로 실현된다. /ㅎ/은 성문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말이나 /ㄴ/ 앞에서 /ㄷ/으로 중화된다.

글자	발음	보기
ㄱ, ㅋ, ㆁ	k	국, 밖, 부엌
ㄷ, ㅌ, ㅅ, ㅆ, ㅊ, ㅌ, ㅎ	t	곧, 다섯, 갔다, 빛, 빛, 끝, 히읃
ㅂ, ㅍ	p	밥, 숲

### 6.1.2. 겹받침 단순화

국어에는 11개의 겹받침 ‘ㄱ, ㅋ, ㆁ, ㄷ, ㅌ, ㅅ, ㅆ, ㅊ, ㅌ, ㅎ, ㅂ, ㅍ’이 있다. 이 겹받침들은 어말이나 다른 자음 앞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겹받침 단순화의 적용을 받는다. 중화와 겹받침 단순화에 의해 한국어에서는 7개의 자음,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이 종성으로 발음된다. 겹받침들 중에는 앞 자음이 탈락하는 것도 있고, 뒤 자음이 탈락하는 것도 있다.

#### (1) 첫소리만 발음되는 경우

겹받침 ‘ㄱ, ㅋ, ㆁ, ㅌ, ㅆ, ㅊ, ㅌ, ㅎ’의 경우 둘째 소리는 탈락하고 첫소리만 발음된다.

예) 녀[녀], 앓다[안따], 외곶[외곶], 할다[할따], 값[갑]

#### (2) 첫소리는 그대로 발음되고 둘째 소리는 바뀌는 경우

겹받침 ‘ㄷ, ㅌ’의 경우는 첫소리는 그대로 발음되고, 둘째 소리 /ㅎ/은 /ㄱ, ㄷ, ㅌ, ㅅ/ 앞에서 이들과 융합되어 /ㅋ, ㅌ, ㅊ/로 발음되며, /ㅅ, ㄴ/ 앞에서는 탈락한다.

예) 많고[만코], 많다[만타], 많지[만치]  
 싫고[실코], 싫다[실타], 싫지[실치]  
 많소[만쏘], 많네[만네], 똥소[똥쏘], 똥네[똥네](←[똥네])

#### (3) 둘째 소리만 발음되는 경우

겹받침 ‘ㄹ, ㄷ’의 경우 첫소리는 탈락하고 둘째 소리만 발음된다.

예) 삼[삼], 굶다[굶따], 젊다[젊따]  
 읊다[읍따], 읊지[읍찌]

(4) 첫소리만 발음되거나 둘째 소리만 발음되는 경우

겹받침 ‘래, 리’ 중에서 ‘래’은 /ㄹ/을 탈락시키고 /리/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인데, ‘뵤다’와 ‘뵤죽하다, 뵤둥글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ㄹ/을 탈락시키고 /ㄹ/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이다.

예 여뵤[여덜], 뵤다[잘따], 뵤다[널따]  
뵤다[뵤따], 뵤지[뵤찌], 뵤고[뵤꼬]

‘리’은 첫 자음을 탈락시키고 둘째 자음 /ㄱ/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이나, 그 뒤에 /ㄱ/이 이어 나올 때에는 둘째 자음을 탈락시키고 첫 자음 /리/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이다.

예 맑다[막따], 맑지[막찌]  
맑고[말꼬], 맑게[말께]

**6.1.3. 격음화**

한국어의 /ㄱ, ㄷ, ㅂ, ㅅ/는 /ㅎ/의 앞이나 뒤에서 /ㅎ/과 융합하여 격음 /ㅋ, ㅌ, ㅍ, ㅊ/로 발음된다.

예 국화[구과], 만형[마형], 입학[이팍], 앓히다[안치다]  
농고[노코], 농다[노타], 농지[노치]

**6.1.4. 연음 규칙**

한 음절의 종성, 즉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존 형태소(어미, 조사, 접미사)가 올 때는 중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된다.

예 호박이[호바기], 밖에[바께], 옷이[오시], 젓어[저저], 앞에[아페], 꽃이[꼬치]

그러나 /ㅎ/ 받침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존 형태소 앞에서 탈락한다.

예 많이[마니], 좋은[조은]

**6.2. 자음 동화**

**6.2.1. 유음화**

한국어에서는 /ㄴ/과 /ㄹ/이 연이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뀐다.

예 원래[월래], 난로[نال로], 신라[실라], 설날[설랄], 달나라[달라라]

## 6.2.2. 비음화

### (1) 장애음의 비음화

장애음 /ㅂ, ㄷ, ㄱ/는 비음 /ㄴ, ㅁ, ㅇ/ 앞에서는 /ㅁ, ㄴ, ㅇ/으로 바뀐다.

예) 잡는[잡는], 앞마당[암마당], 믿는다[민는다], 있는[인는], 한국말[한궁말], 학년  
[항년]

### (2) 유음의 비음화

한국어에서 /ㄹ/은 /ㄴ/과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예) 대학로[대학노] (←[대학노]), 확률[확눌] (←[확눌])  
수업료[수업노] (←[수업노]), 국립[궁닙] (←[궁닙]),  
종로[종노], 경력[경녁]

## 6.3. 구개음화

한국어에서 받침 /ㄷ, ㅌ/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의존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오면 구개음화되어 /ㅈ, ㅊ/로 바뀐다.

예)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말이[마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 6.4. 경음화

### 6.4.1. 고유어의 경음화

#### (1) 장애음 뒤에서의 경음화

낱말 내부에서 장애음 /ㅂ, ㄷ, ㄱ, ㅅ, ㅈ/는 장애음 뒤에서 무기 경음 /ㅃ, ㄸ, ㄲ, ㅆ, ㅉ/로 바뀐다.

예) 꽃밭[꼇빤], 받다[받따], 먹고[먹꼬], 국수[국쑤], 국자[국짜]

#### (2) 어간 종성 /ㄴ, ㅁ/ 뒤에서의 경음화

어간 종성 /ㄴ, ㅁ/에 뒤이어 나오는 어미나 접미사의 첫 자음 /ㄷ, ㄱ, ㅅ, ㅈ/는 경음화된다.

예) 안다[안따], 안고[안꼬], 안자[안짜]  
감다[감따], 감고[감꼬], 감지[감찌]

그러나 피동·사동 접미사 ‘-기’의 /ㄱ/은 /ㄴ, ㅁ/ 뒤에서 경음화되지 않는다.

예 안기대[안기대], 감기대[감기대]

(3) 관형형 어미 ‘-(으)ㄴ’ 뒤에서의 경음화

관형형 어미 ‘-(으)ㄴ’ 뒤에 연결되는 /ㅂ, ㄷ, ㄱ, ㅅ, ㅈ/는 경음화된다.

예 떠날 바에야[떠날빠에야], 올 듯이[올뜨시], 갈 거야[갈꺼야], 올 건가요[올건가요], 설 것 같아요[설꺼따요], 만날수록[만날쭈록], 갈 정도로[갈쩍도로], 할 줄 알아요[할쭈라라요], 갈지 몰라요[갈찌몰라요]

(4)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장애음 /ㅂ, ㄷ, ㄱ, ㅅ, ㅈ/는 복합어 내부의 형태소 경계에 첨가되는 사이시옷에 의해 경음화된다. 복합어의 앞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맞춤법 규정에 의해 사이시옷이 표기되지는 않지만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가 일어난다.

예 바닷가[바단까], 촛불[츄뽕]  
 눈동자[눈똥자], 술잔[술짚], 손재주[손째주]

6.4.2. 한자어의 경음화

(1) 장애음 뒤에서의 경음화

장애음 /ㅂ, ㄷ, ㄱ, ㅅ, ㅈ/는 장애음 뒤에서 무기 경음 /ㅃ, ㄸ, ㄱ, ㅆ, ㅉ/로 바뀐다.

예 책방[책뽕], 식당[식뽕], 학교[학꾄/하꾄], 일곱 시[일곱씨], 숙제[숙제]

(2) /ㄴ/ 뒤에서의 경음화

예 결석[결씩], 열심히[열쑹히], 을지로[을찌로], 일등[일뽕]

(3) 한자음에 의한 경음화

일부 한자는 단순어나 복합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경음으로 발음된다.

① 초성에서는 그대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 경음으로 발음되는 한자

價 가격 / 대가[까], 영양가[까], 주가[까]

權 권리 / 대권[뀨], 기본권[뀨]

券 권말 / 승차권[뀨], 입장권[뀨]

症 증세 / 건망증[쑹], 궁금증[쑹], 싫증[쑹]

- ② 둘째 음절이 경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한자
- 間 대문간[간], 대장간[간] / 인간, 공간  
 件 사건[건], 조건[건] / 물건  
 格 성격[격], 인격[인격] / 가격  
 句 문구[꾸], 대구[꾸] / 절구  
 法 헌법[법], 계산법[법] / 방법, 사법(司法)  
 病 심장병[병] / 질병, 발병(發病)  
 數 도수[수] / 산수  
 字 한자[자] / 주자학  
 點 장점[점], 단점[점], 중점[점] / 반점(半點), 오점(五點)  
 證 입금증[증], 차용증[증] / 영수증
- ③ ‘的’은 둘째 음절에서는 [적], 셋째 음절 이하에서는 [적]
- 사적[적](私的), 동적[적](動的), 정적[적](靜的) / 개인적, 공통적, 낙관적

## 6.5. ㅎ 탈락

용언 어간의 종성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탈락한다.

예) 좋은[조은], 낳았다[나알따], 많이[마니]

또한 /ㅎ/은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되어 [h]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약하게 발음하여 /ㅎ/을 완전히 탈락시켜 발음하는 것은 비표준 발음으로 간주된다.

예) 문화[munfiwa], 외할머니[wefalməni], 영향[jaŋhjaŋ]

초급에서는 한국어 음운의 개별 발음과, 중화 규칙·접받침 단순화·격음화·연음 규칙을 포함하는 종성 규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동화 규칙이나 경음화 같은 음운 규칙은 초급에서 나오는 표현에 국한하여 발음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음운 규칙으로 다루는 것은 중급 이상에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규칙의 명칭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한자권 학습자에게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 규칙의 명칭을 제시해 주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굳이 규칙의 명칭을 언급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중급 이상에서는 교육 기관에서 배우는 표준 발음과 실제 언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비표준 발음의 차이에 대하여 언급해 줌으로써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발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 7. 언어권별 발음 지도

학습자는 목표어를 배우기 전에 이미 자기 모국어의 문법과 언어 체계를 머리 속에 가지고 있다. 이 모국어의 언어 체계는 학습자가 목표어의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학습자의 목표어 언어 체계는 독창적이고 일시적인 중간 언어의 음운 체계로 형성된다. 이러한 중간 언어 음운 체계의 형성은 목표어의 음절 구성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음절은 자음과 모음이 어울려서 청각적인 기본 단위를 이루는 동시에 발화의 기본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받침 발음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받침 발음은 그 음절의 뒤에 휴지 또는 자음이 올 때는 폐쇄음으로 발음되고, 모음이 이어질 때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서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경우는 ‘물’을 발음할 때 [mul]로 발음하지 않고 [muru]로 발음하려 할 것이다. 이처럼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는 그들의 언어 체계 내에는 CVC 음절 구조가 없기 때문에 실제 목표어에는 없는 잉여적인 모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음상의 오류는 모국어의 언어 체계가 가지고 오는 단순한 간섭으로 느껴지지만 모국어 언어 체계에 나타나는 음절 구조와는 약간은 다른 체계적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f]나 [v] 또는 [ð]나 [θ]의 발음은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배우기 어려웠던 것처럼, 한국어의 경음 /ㄱ, ㅋ, ㆁ, ㅈ, ㅉ/의 발음은 변이음으로도 발음되지 않는 언어가 많아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학습자도 상당수 있다. 그리고 영어권 학습자의 경우는 ‘만남’의 경우처럼 /ㄴ/이 연이어 나올 때 /ㄴㄴ/을 분명하게 발음하기보다는 이를 하나의 음운으로 이해하여 두 개 중 하나를 생략하거나 약하게 발음하여 [manam]과 같이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중간 언어가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중간 언어적 단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언어권 가운데 학습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어권, 중

국어권, 영어권 학습자가 발음하기 어려워하거나 자주 오류를 나타내는 발음의 지도에 관한 것을 위주로 다루기로 한다.

## 7.1. 일본어권

### 7.1.1. 모음의 지도

#### (1) 단모음

일본어권 학습자의 경우 모음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다양한 모음을 발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본어에 없는 모음의 발음을 변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일본어의 단모음은 /ア, イ, ウ, エ, オ/의 다섯 개로 한국어의 /ㅏ, ㅓ, ㅗ/가 나타나지 않는다. 음소의 수가 부족한 경우는 이를 발음으로 구별하는 일이 어렵다.

모음을 지도할 때는 모음 사각도를 이용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고, 혀의 높낮이보다는 손바닥을 턱 아래에 두고 턱의 높낮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음 발음 교육에 도움이 된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모음의 차이는 아주 미세하므로 턱의 위치를 기억하게 하느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어의 전설모음 /ㅏ, ㅓ, ㅗ/와 중설모음 /ㅜ/는 발음상 별로 문제가 없으나, 후설모음 가운데 /ㅜ/와 /ㅡ/는 발음하기 어려워하며, /ㅜ/는 일본어에 유사한 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ㅜ/의 음가와와는 다른 소리이다.

#### ① /ㅜ/

/ㅜ/는 /ㅏ/와 /ㅓ/의 중간 음을 내는 느낌으로 발음하도록 유도한다. /ㅏ/를 발음할 때처럼 입을 열고 혀끝은 /ㅓ/를 발음하는 것처럼 아랫입술에 힘을 넣어 /ㅓ/의 발음을 내도록 하면 /ㅜ/와 유사한 발음을 얻을 수 있다. /ㅜ/와 /ㅓ/의 구별은 입을 여는 방식의 넓고 좁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좁은 /ㅏ/인지 넓은 /ㅏ/인지에 항상 주의하게 하며, /ㅜ/ 발음은 입을 크게 열고 동그랗지 않게 /ㅏ/로 발음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ㅓ/는 일본어의 /ㅏ/와 같지만, /ㅏ/보다도 약간 원순성을 가지고 발음하게 해야 한다.

/ㅓ/와 /ㅜ/는 일본어권 학습자가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모음 중의 하나이다. 일본어권 화자의 경우 둘 다 거의 /ㅏ/로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ㅓ/는 입술을 내밀어서 둥글게 발음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ㅜ/와 /ㅓ/의 발음 차이를 구별하게 하는 교육 방법으로는 손등을 턱 아래에 대고 /ㅜ/와 /ㅓ/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턱 높이의 차

이를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다. 즉 /ㄴ/의 턱 높이가 /ㄷ/에 비하여 조금 높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손가락을 이용하거나 입 모양을 관찰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발음할 때 두 입술 사이로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면 /ㄷ/, 새끼손가락이 들어가면 /ㄴ/로 구별하고, 입 모양이 둥글면 /ㄴ/, 그렇지 않으면 /ㄷ/인 것이다.

어디 어머니 거리 저기 허리

어서 갑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내일부터 약국에서 일할 거예요.

저기      조기  
허허      호호

거리      고리  
정말      종말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오 분만 더 기다릴까?

고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중간 시험이 끝나고 제주도에 갑니다.

## ② /ㄷ/

/ㄷ/는 일본어의 /ㄱ/와 비슷하지만, /ㄱ/보다 더 입을 둥글게 앞으로 내미는 느낌으로 발음하게 하여야 한다. /ㄷ/는 /ㄱ/에서 원순성을 빼 것과 같은 음으로, 입을 좌우로 벌려서 발음한다. 일본어의 /ㄷ/에 포함되어 있는 모음 /ㄱ/보다 더 입을 좌우로 벌리는데, 입술을 편 채로 아랫니가 조금 보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벌리게 하는 것이 좋다. 일본어의 /ㄱ/는 거의 /ㄷ/와 /ㄷ/의 중간 음이기 때문에 /ㄱ/로 발음하면 어느 쪽에도 가깝지 않은 발음이 되어 버리므로 특히 입 모양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네 씨름 등산 그리다 흐르다

오늘은 날씨가 나쁩니다.

거스름돈을 받으세요.

무슨 노래를 들을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느리다    누리다

              
 호호호    후후후

무슨 주스를 사 줄까요?  
 누구의 음악이에요?

우산하고 책을 주세요.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2) 이중모음

① /ㄱ/와 /ㄴ/

/ㄱ/는 /ㅣ/에서 /ㄱ/로 옮겨가는 음으로 일본어의 /ㄱ/와 /ㅋ/의 중간음으로 발음하게 한다. /ㄱ/와 마찬가지로 발음에 어려움을 갖게 되므로 /ㄱ/의 교육 방법과 마찬가지로 교육하여야 한다.

/ㄱ/와 /ㄴ/는 일본어로 표기하면 /ㄱ/이므로 일본어권 학습자에게는 구별하기 어려운 음이다. 이 두 음의 차이도 역시 그 기본이 되는 단모음의 차이에 있으므로 /ㄱ/와 /ㄴ/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ㄱ/와 /ㄴ/를 구별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

    고려    고료  
 수영    수용

    여론    요론  
 겨자    교자

여분의 우표가 있어요?  
 겨자를 많이 넣어서 매워요.

무용을 몇 달이나 배웠어요?  
 현경이가 교실에 있을까요?

② /ㅍ/

/ㅍ/는 일본어의 /ㅍ/에 가깝지만, 입술을 더 둥글게 해서 발음하게 한다. /ㅍ/의 연습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게 하면 된다.

우유    규칙    휴지    평균    비율

③ /ㄴ/

한국어의 /ㄴ/는 환경에 따라 세 가지 변이음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첫 음절에서 자음이 앞서지 않으면 이중모음 [ɱi]로 발음되는데 바로 이 발음을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많다. 이중모음 /ㄴ/를 발음할 때는 모음 /ㅡ/와 /ㅣ/를 연이어 발음하되 /ㅡ/는 매우 짧게 발음한다.

- 어두로서 자음이 없지 않을 때는 [ɰi]로 발음한다.  
 [예] 의사, 의자, 의미
- 둘째 음절 이하, 또는 자음이 없힐 때는 [ ]로 발음한다.  
 [예] 강의, 회의, 민주주의, 희망, 무늬
- 조사로서 쓰일 때는 [게]로 발음한다.  
 [예] 나의 고향, 우리의 소원

### 7.1.2. 자음의 지도

#### (1) 파열음

##### ① 경음 ‘ㅃ, ㅌ, ㅍ’

경음의 발음은 일본어권 학습자들이 가장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발음이다. 일본어권 학습자에게는 일본어의 변이음을 통해 한국어의 경음 발음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축음 뒤에 오는 ‘ぱ[pa], た[ta], か[ka]’음은 한국인에게 경음 [ㅃ, ㅌ, ㅍ]와 유사하게 들리는데 일본어 모어 화자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마도 이음들이 일본어에 음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이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ㅃ/ 발음 교육 방법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불/풀/뿔’과 같은 최소 대립어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음가의 차이를 인식시킨다. [예] 비다/피다/뵈다
- ㉡ 일본어의 유사한 발음의 예를 제시한다. 주로 축음(っ)이 앞에 있는 파행의 어휘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킨다. [예] かつぱ, やっぱり
- ㉢ 축음 부분을 발음하지 않고 잠시 휴지를 둔 후 뒷부분의 파행 부분만을 발음하게 하면 거의 유사한 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 일본어에 없는 모음과 결합되는 /ㅃ/음을 연습시킨다. [예] 뵈, 뵈, 뵈, 뵈
- ㉤ 대립어의 구분이 조금 익숙해지면 /ㅃ/으로 시작되는 다양한 어휘를 연습시킨다. [예] 빠르다, 뿌리다, 뵈뵈, 뵈다
- ㉥ /ㅃ/ 발음의 위치를 1음절 초성에서 2음절 이하로 다양화시키면, 발음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예] 예뵈요, 기뵈다, 바뵈요
- ㉦ /ㅃ/이 포함된 문장을 소리 내어 읽게 하여 문장 단위의 연습을 실시한다.

풀을 뵈으라고 하셨어요.  
 뵈리 출발해야 해요.

제 동생은 아주 예뵈요.  
 담배는 건강에 나뵈니까 안 피워요.

그밖의 /ㄷ/과 /ㄱ/의 연습도 각각 夕행과 力행의 일본어 단어 ‘あった `やっど’와 ‘けっか `すっかり’를 제시하면서 /ㅃ/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연습시킬 수 있다.

너무 **뜨**거워요.

**또** 오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침대 위에서 **뛰**면 안 돼요.

책을 **꺼**내세요.

무슨 **꽃**을 살까요?

방이 아주 **깨**끗하네요.

선생님께 **부**탁 드립니다.

### ② 평음과 격음

한국어에서 초성의 평음은 약간 유기성을 포함한 음이므로, 특히 초성에서 평음과 격음을 구별하기 매우 어려워한다. 일본어권 학습자는 유기성의 조절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평음을 격음으로 발음하거나 듣는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 평음의 경우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음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격음으로 잘못 발음하는 오류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성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평음과 격음의 구별보다는 초성에 나타나는 예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

초성에서 평음을 발음할 때는 일본어의 /が, だ, ば/를 의도적으로 ‘가하, 다하, 바하’와 같이 발음하게 하면 격음에 가깝게 발음된다. 일본어의 평음에는 유성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기 발음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격음의 경우 일본어권 화자의 발음은 기성이 매우 약한 편이므로, 의식적으로 강하게 발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발**      **팔**  
비리      피리

**불**      **풀**  
벌벌      펄펄

바구니에 **포**도가 가득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추워서 **불**을 **피**웠어요.

**밤**에 **피**리를 **불**지 마세요.

### ③ 평음, 격음, 경음

한국어 파열음의 특징인 ‘평음/격음/경음’의 대립 쌍을 가지고 종합적인 파열음 연습을 해 본다.

<b>불</b>	<b>플</b>	<b>빨</b>	<b>버</b>	<b>퍼</b>	<b>뼈</b>
덜다	털다	떨다	개다	캐다	깨다

파란 하늘을 보게 돼서 기쁩니다. 빨간 풍선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간다.  
 딸들에게 다 자동차에 타라고 말했다. 제 조카는 잠꾸러기에 개구쟁이예요.

(2) 마찰음

① /시/과 /씨/

/시/ 발음은 일본어의 ㅅ행의 자음과 같다. 그러나 일본어와 달리 어중에서도 유성음이 되는 일이 없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씨/은 /시/보다 더 긴장한 상태에서 강하게 마찰시켜서 발음한다. 어두에서는 후두의 폐쇄가 있지만, 어중에 있을 때는 후두의 긴장이 없고, 일본어의 축음에 가까우며, ‘いっさい’의 ‘さい’ 발음과 유사하다.

<b>삼</b>	<b>쌈</b>	<b>사다</b>	<b>싸다</b>
섞다	씩다	수다	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사람들이 쭈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화살을 쏘면 썩썩 소리가 난다. 피리 부는 소리에 더욱 쓸쓸해지는 밤

② /히/

유성음 사이에서는 한국어의 /히/음이 유성음화되어 [h]로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어에서는 /h/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유성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약화 현상은 일본어권 학습자에게는 /히/음을 발음하지 않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따라서 청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발음을 할 때는 약간 약하게 발음하도록 유도하면 큰 문제는 없다.

문학   기회   전화   사흘   소화   여행   시원하다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사흘에 한 번씩 집에 전화해라.  
 우리 나라에 여행 오면 전화해 주세요. 만난 지 열흘 만에 결혼하자고 했대요.

## (3) 파찰음

한국어의 /스/음도 어중에서는 유성음화되므로 어중의 발음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초성에서는 의도적으로 성대의 진동을 줄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어중의 경우라도 일본어의 유성음이 한국어에 비해서 진동이 많으므로 주의를 시켜야 한다. 한국어의 /스/은 일본어의 발음에 비하여 유기음의 성향이 있으므로 약간의 /m/음을 덧붙이면서 파찰시키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어의 /ㅍ/은 후두 근육을 긴장하고 혀의 앞부분을 경구개에 붙였다가 터뜨리면서 곧바로 마찰시키며 내는 소리이다. 일본어의 ‘まっちゃ, うっちゃる’의 발음과 유사하다. 특히 어두의 초성에서는 /스, 스, ㅍ/이 음운 대립을 보여 ‘자다/차다/짜다’와 같은 최소 대립어를 이루므로 발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잠    참    째  
재다    채다    쩌다

짐    침    쩜  
지다    치다    찌다

잠 잘 때 창문이 쩡 하고 깨졌다.    촛불 앞에서 쪼그리고 자고 있다.  
축구 경기에서 쫓다고 쨍쨍대고 있다.    강아지가 자동차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운다.

## (4) 비음

초성에서는 발음의 문제가 없으나 받침의 경우 일본어에는 /ㄴ/만 있어서, /ㄴ, ㄹ, ㅇ/의 발음을 구별하기 어려워한다. 일본어의 경우, /m/은 ‘ナ, タ, サ, ラ, ㄱ’행에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m/은 ‘バ, パ, マ’행에만, /n/은 /カ, ガ/에만 제한적으로 쓰인다. 따라서 받침의 제약이 없는 한국어의 /ㄴ, ㄹ, ㅇ/의 발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받침의 /ㄴ, ㄹ, ㅇ/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ニホ<sub>ン</sub>ニ(日本に), ニホ<sub>ン</sub>モ(日本も), ニホ<sub>ン</sub>ガ(日本が)’ 등 /ㄴ/이 /ㄴ, ㄹ, ㅇ/으로 발음되는 일본어를 제시하여 일본어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 /ㄴ/이 사실은 미묘하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한국어에서는 서로 다른 소리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이들 3가지 받침 소리를 개별적으로 발음하는 연습을 한다.

일본어의 /ㄴ/은 후속 자음이 무엇인가에 따라 어느 소리로 나타날지가 결정되지만 한국어의 경우 후속 자음이 무엇이든 글자대로 발음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① /ㄴ/ 받침

받침 /ㄴ/은 ‘こな’의 /ㄴ/에 해당하는 음으로 ㄴ행의 [n]과 같다. 받침으로 올 때는 혀끝이 치아의 사이에 보일 정도로 혀를 치아에 세게 밀어내듯 하고 내는 음이다. 학습자들 가운데는 받침 /ㄴ/ 뒤에 오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m]이나 [ŋ]으로 발음하는 일이 많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ㄴ/의 발음은 [n]으로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선거 전화 전국 건물 전보 연극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손님은 언니 친구였어요.

저는 매운 것을 잘 먹어요.

교문 근처의 건물이 병원입니다.

② /ㅁ/ 받침

받침 /ㅁ/은 ‘ねんび’의 /ㄴ/에 해당하는 음으로 ㄹ행의 [m]과 같다. 받침으로 올 때는 특히 양 입술을 확실히 닫고 비음을 낸다.

땀 감기 점심 시험 남자 인삼

오늘 밤 좋은 꿈 꾸세요.

마음대로 그려 보세요.

어제는 남편과 섬에 갔어요.

김치, 인삼차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③ /ㅇ/ 받침

받침 /ㅇ/은 ‘りんご’의 /ㄴ/에 해당하는 음으로 입술을 단지 얹고, 혀끝을 앞으로 당기듯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내는 음이다.

농담 장난 경제 양념 공항 동생

방학 동안 여행 많이 했어요? 상민 씨는 정말 성격이 좋군요.

동대문 시장에서 가방을 샀어요. 저 건물에서는 강도 보이고 병원도 보여요.

/ㄴ, ㅁ, ㅇ/ 받침들은 입술이나 혀 등의 모양이나 위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므로 이들을 발음하는 요령을 특징지어 잘 설명해 주는 교정법이 좋다. 곧, 교사가 /

ㄴ/을 발음할 때는 혀를 이 사이로 무는 흉내를, /ㄹ/ 받침을 발음할 때는 두 입술을 닫는 흉내를, /ㅇ/ 받침을 발음할 때는 입술을 조금 벌리는 흉내를 내면서 이 들음의 차이를 구분시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 (5) 유음

한국어의 유음 /ㄹ/과 일본어의 /ラ/행의 음가는 비교적 비슷한 편이다. 단 한국어에는 어말에서 설측음화되고 /ㄹㄹ/이 겹쳐서 발음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설측음의 /ㄹ/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어의 말음에는 /ㄹ/이 없기 때문에 개음절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① 치조 설측음 [ㄹ]

한국어에서는 음절말 또는 /ㄹ/이 연이어 날 때 나타나는 소리이다. 혀를 치조에 붙이고, 혀 양옆으로 소리가 나오는 음이다. 따라서 혀를 치조에 붙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   갈비   물건   얼굴   겨울   지하철

아들 하나 **말** 하나 있습니다.

물건이 **정말** 많이 있군요.

봄에 입을 옷을 한 **벌** 살 거예요.

달밤에 **말** 타고 들판을 간다.

#### ② /ㄹㄹ/ ([ll, ʌ])

/ㄹㄹ/의 경우에도 혀끝이 치조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음임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손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혀로, 왼손을 입천장으로 설명하면 혀가 붙고 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일본어권 학습자 가운데는 탄설음처럼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이를 주의시키기 위해서는 혀를 강하게 치조 부위에 대도록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얼른   벌레   멀리   달력   흘리다   놀라다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어요.

그럼 **수요일**로 정할까요?

**별로** 흘리지 **않**았는데요.

### 7.1.3. 초분절 음소의 지도

#### (1) 강세

일본어는 고저 악센트(pitch accent)를 가지는 언어로 알려져 있다. 즉 일본어에 있어서 ‘あめ(비)’와 ‘あめ(옛)’의 식별은 각각의 악센트 [●○](あめ, 비)와 [○●](あめ, 옛)(●…고음, ○…저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일본어는 하나의 단어 안에서만 고저의 변화가 인정되는 ‘단어 악센트’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고저란 절대적인 음계가 아닌 단어 안에서의 각 음절 사이에 보이는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를 말한다.

한국어 교사는 일본어의 특징적인 강세를 알고 있어야 학습자의 오류를 고쳐줄 수 있다. 실제로 일본어권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어색한 강세의 주원인은 일본어 강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 (2) 억양

일본어의 억양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유사한 유형을 보여 주고 있으나, 개별 유형을 세부적으로 관찰할 때는 한국어와는 미묘하게 다른 고저 감각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억양을 습득시킬 때는 양 언어의 고저 감각의 차이를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7.1.4. 음절 구조의 교육

일본어는 ‘자음+모음’을 기본 구조로 삼는 개음절(開音節) 언어이다. 현대 일본어에서 90% 정도의 음절이 개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폐음절이 10% 정도 허용되고 있다고 해도 말자음(末子音)의 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은 /ㄴ/과 /ㄹ/ 2종의 자음밖에 없으며, 더욱이 어말의 위치에는 /ㄴ/밖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어권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음할 때 받침에 모음 [u]를 첨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시켜야 한다.

## 7.2. 중국어권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음과 관련하여 부딪치는 언어 특수적인 문제 중에 중요한 것으로 한자어의 발음 문제가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발음의 오류이지만, 그 원인은 자국의 한자음처럼 발음하는 데서 오는 잘못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발음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국인 학생이 ‘명령’을 ‘밍링’으로 발음하는 것은 그 학생이 ‘명’이나 ‘령’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 교육의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잘못을 많이

일으키고 있으므로 어휘를 통해 발음 교육을 할 때 한자어의 비중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7.2.1. 모음의 지도

전통적으로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聲母)와 운모(韻母)의 결합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모음을 독자적으로 다루지는 않아 왔다. 아직도 중국인들은 음절을 성모와 운모 전체로 파악할 뿐 모음을 따로 분리하려는 인식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첫째는 받침 자음 인식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모음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다. 실제 운모의 수효는 총 39개(학자에 따라 38개로 보기도 함)이지만, 운모에서 한국어의 받침 자음에 해당하는 것을 빼면 단모음 7개, 이중모음 9개, 삼중모음 4개가 남는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한 중국어의 모음은 수적으로는 한국어의 모음 수효에 뒤지지 않지만, 한국어의 모음과는 그 내용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어 음절의 핵 음소라고 할 수 있는 모음 발음에서 적잖은 곤란을 겪는다.

#### (1) 단모음

##### ① /ㅏ/

중국어의 /a/는 한국어의 /ㅏ/와 거의 일치하지만, 음성적으로는 한국어의 /ㅏ/보다 미세하게 더 후설적이고 개구도도 더 큰 편이어서 소리가 더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차이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ㅏ/를 발음할 때 아주 어색하게 느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교사는 처음부터 이 발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저 중국어의 /a/와 한국어의 /ㅏ/가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처음 하는 연습에서 지나치게 어색한 발음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교사는 적절히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② /ㅡ/

한국어의 /ㅡ/ 발음은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권 학생들은 이 발음을 처음 배울 때 /ㅣ/ 비슷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단 모음 사각도를 통해 /ㅡ/는 /ㅣ/ 발음보다 뒤에서 나므로 /ㅣ/를 발음시킨 후 입을 양쪽으로 좀 더 넓히면서 혀를 뒤쪽으로 천천히 끌어 발음하도록 교사 스스로가 발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학생들에게 따라 하게 한다. 발음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두 손으로 양 입가를 천천히 넓히는 모습을 보이면 더욱 효과적이다.

## ③ /ㄴ/와 /ㄷ/

한국어의 /ㄴ/와 /ㄷ/는 같은 중설 모음으로서 원순성 자질만을 달리한 음소들이다. 중국어의 /o/는 한국어의 /ㄴ/와 거의 비슷하지만 혀의 높이가 약간 낮고 원순성 자질이 덜 들어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혀의 높이 차이에 따른 이질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원순성 자질의 차이 때문에 중국어권 학생들이 발음하는 한국어의 /ㄴ/는 /ㄷ/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한편 한국어의 /ㄷ/에 해당하는 중국어 음소는 /e/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경성으로 실현될 경우 혹은 운모(韻母) 속의 한 부분으로 실현될 경우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경우 단독으로 실현되는 /e/는 한국어의 ‘어’ 비슷하게 소리가 난다.

우선 /ㄴ/부터 연습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중국어의 /o/ 발음을 하듯이 말하되 입술을 더 비쪽 내밀어 둥글게 하도록 시킨다. 이때 교사 자신이 처음에 입 모양을 강조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개와 접촉하거나 마찰을 일으키는 자음에 비해 모음의 구강도는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모음의 구강도나 사각도를 활용하는 것은 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한편 /ㄷ/는 중국어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추출해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한국어의 모음 구강도 혹은 모음 사각도를 활용하여 보여 주는 차선택을 택해 교육한다. 그림을 보고 교사의 발음을 따라 하게 한다. 혹 잘 따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중국어 단어 ‘아문(我門: wōmen)’에서 ‘men’을 떼어낸 뒤 중국어를 그대로 발음하되 ‘머~ㄴ’처럼 앞 음절을 길게 발음하도록 훈련시킨 뒤 ‘머’만을 독립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한다. 거기에서의 ‘머(me)’ 발음을 한글로 ‘머’로 써 준 다음 교사는 ‘머’ 발음을 하고 ‘ㅁ’ 발음을 슬쩍 빼어(이때 칠판에서는 /ㅁ/을 뺀다는 표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어’ 발음을 하여 /ㄷ/ 발음을 인식시킨다. 그 다음 다시 따라 해 보게 한다.

몸 고모 도로 종종 고은 노동 동동주  
 어머니 어업 더럽다 어서 거저 썰렁하다  
 서로 도서 허공 저운 흥어 철웅성 공업

어머니가 오십니다.

고모가 언제 고향에 가셨어요?

겉옷과 속옷을 얻어 입고 왔어요.

언니하고 오빠가 어디에 놀러 갔어요?

## (2) 이중모음

한국어의 이중모음 중 반모음 /w/와 결합된 /나, 귀, 새, 깨, 나, 귀/ 등은 중국어에서도 유사 발음을 찾아볼 수 있다. /나/는 /ua/와, /귀/는 /uo/와 거의 같다. 그러나 한국어의 /나/와 중국어의 /a/의 음가는 약간 다르고, 한국어의 /나/와 중국어의 ‘o’의 음가는 상당히 다르므로 이중모음의 음가도 약간 달라지게 된다. 한편 /j/ 상향 이중모음인 /야, 나, 나, 나, 나, 나/의 발음은 중국어에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나 운모의 일부분 등에서는 유사 발음을 볼 수 있다.

사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중국어와는 달리 규칙적인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w, j계 이중모음) 혹은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중모음 /-/)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모음 발음을 정확히 익히고 난 후라면, 해당 단모음의 결합을 빨리 발음하게 유도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별 어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7.2.2. 자음의 지도

### (1) 파열음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평음 계열의 자음이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의 평음을 경음처럼 발음하는데, 이는 중국어의 /b, d, g/를 한국어의 평음에 대응시켜 발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b, d, g/는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거의 경음으로 들리므로 결국 중국어권 학생들이 발음하는 한국어의 평음은 경음과 구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경음 계열의 자음은 비교적 발음을 쉽게 배운다. 엄밀히 말해 중국어에는 경음이 없지만, 중국어의 청음 /b, d, g/는 한국어의 경음과 음성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경음을 중국어의 /b, d, g/를 발음하듯 유도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한국어의 경음 발음을 끌어낼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격음은 중국어의 /p, t, k/와 그대로 대응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배우므로 별도의 발음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 ① 평음과 경음

중국어권 학생들은 한국어의 평음을 경음처럼 발음하는 경향이 많은데,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약한 된소리로 발음한다. 우선 청각적으로 평음과 경음의 차이를 인식시킨 후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종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얇은 종이를 입 앞에 갖다 대고 평음과 경음을 발음할 때 종이가 흔들리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 소리를 연습시킨다.

경음을 발음할 때 처음 폐쇄된 상태를 좀 더 강조하여 보여 주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음 위치에서 발음되는 양순음 /ㅁ/을 예로 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처음에 단단하게 폐쇄된 상태를 만든 후 좀 더 세게 빨리 터뜨리는 것을 보여 주면서 따라하게 하면 한국어의 /ㅁ/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우선 경음 계열의 음소가 들어간 단어만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다음에 평음 계열의 음소가 들어간 단어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게 한 후 평음과 경음이 들어간 단어를 대조하여 연습하게 한다.

**불      뽕**  
**벌벌    뽕뽕**

**벼      뼈**  
**부리    뿌리**

바지를 **빠**느라고 **바빠**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발을 **빨**리 올리세요.  
아빠가 **벼**섯 요리를 하셨어요.

/ㅍ, ㅑ/도 그림을 통하여 조음 위치만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원칙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익히게 한다.

**달      딸**  
**덜다    딸다**

**들      뜰**  
**다르다   따르다**

땅에 **떨**어진 돈을 두 번이나 주웠어요. **대**문이 잠겼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리에서 **떨**어져서 **또** 다리를 **다**쳤어요. **또**다시 **닭**하고 **딸**기를 **달**라고 했어요.

**개**다    **깨**다  
**가**치    **까**치

**고**리    **꼬**리  
**갈**다    **갈**다

고모는 **까**만 **개**를 키우세요.  
아까부터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릇을 **꺼**내다 **깨**뜨렸어요.  
너무 **깜**깜해서 길을 **갈** 수 없다.

## ② 평음과 격음

한국어의 격음 자체는 발음하기 어렵지 않으나 평음의 발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평음과 격음의 발음을 혼동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두 소리 모두 유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 때도 역시 얇은 종이를 이용하여 유기성의 강약에 따라 평음과 격음이 구별된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비리	피리	보기	포기
불다	풀다	부르다	푸르다

풀밭에 불이 붙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아파서 밥도 먹지 못한다. 파란 하늘로 비행기가 날아간다.
------------------------------------	-------------------------------------

다락	타락	덜다	털다
덜덜	털털	단단하다	탄탄하다

옷이 더러우니 먼지를 털어라. 답이 틀렸으니깐 다시 풀어 보세요.	토끼는 당근을 좋아한다. 도마 위에 동태가 있어요.
---	---------------------------------

기	키	겨	켜
공	콩	그림	크림

그 아이는 키가 커요.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아요?	칼로 고기를 자릅니다. 깜깜한 굴에서 나왔어요.
----------------------------------	-------------------------------

### ③ 유성음화된 평음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평음을 익히고 나면 모든 /b, d, ɣ/를 평음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유성음(모음, /m, n, r/)과 유성음 사이에 있는 /b, d, ɣ/는 이음 [b, d, g]로 발음한다. 중국어에는 음절이 연이어 발음되어도 각 음절을 발음할 때와 발음이 달라지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이 부분도 연습을 통해 극복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입 앞에 얇은 종이를 대고 발음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다. 앞의 평음 발음을 할 때는 종이가 흔들리고 뒤의 평음 발음을 할 때는 종이가 흔들리지 않음을 학생들에게 눈으로 확인시키고 따라 하게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사가

발음을 너무 천천히 하면 유성음화되는 환경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모두 무성 환경으로 변하므로 자연스러운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바보	방법	반복	번번이	비빔밥
도둑	도달	달달	당당하다	당돌하다
고기	구걸	가구	거기	개구리

④ 평음, 격음, 경음

한국어 파열음의 특징인 ‘평음/격음/경음’의 대립 쌍을 가지고 종합적인 파열음 연습을 해 본다.

덕	턱	떡	들	틀	뜰
비다	피다	빠다	기	키	끼

등이 틀 때면 가슴이 떨린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또랑에 빠졌어요.

편지를 빠른 우편으로 보내세요.

아까부터 고소한 땅콩 냄새가 나네요.

⑤ 받침의 파열음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받침으로 쓰이는 자음을 어려워한다. 중국어에서는 운미(韻尾)의 자음이 [n, ŋ]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남방계 중국인들은 콧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기 때문에 [ŋ] 발음을 잘 하지 못한다. 또 북방계 중국인들은 입성(入聲)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폐쇄음 파열음을 잘 발음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는 중국어권 학습자가 처음에 거의 모든 한국어의 받침 자음을 내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받침으로 쓰이는 폐쇄음 발음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폐쇄음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연음되고, 비음이 오면 비음화되며, 다른 파열음이 오면 뒤의 파열음이 경음화된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2음절 이상의 환경 속에서 폐쇄음 받침 발음을 연습시킬 때는 반드시 해당 음운 변동의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화의 개념을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다.

## (2) 마찰음

## ① /s/과 /ʃ/

중국어의 /s/는 한국어의 /ʃ/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s/와 /ʃ/이 의미를 분화하는 다른 음소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한다. /s/을 발음할 때는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발음하게 하고, /s/과 /ʃ/에 모음을 붙여 번갈아 가며 발음하면서 두 음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살	쌀	사리	싸리
수다	쭈다	설다	썰다

활을 **쏘는** 소리가 들린다.                      물건이 **싸면** 사는 사람이 많다.  
**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쯤다.        초가을은 **선선**하고 늦가을은 **쌀쌀**하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s/과 /ʃ/ 뒤에 모음 /i/나 반모음 /j/이 오면 각각 [e]와 [e']로 실현된다. [e]와 [e']은 각각 [s], [ʃ]보다 혀의 앞부분이 아랫니에서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음되는 구개음이기 때문에 발음 기관의 긴장 상태가 덜하다. 이 음을 [s], [ʃ]로 발음하는 학생이 있으면 발음 기관의 긴장 상태를 풀고 좀 더 편하게 발음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시	씨	시름	씨름
---	---	----	----

**씨름** 시합이 **시**작되었다.                      식사 후에 **검**을 **씻**어요.  
 손발을 **씻**고 **싶**어요.                      찬물로 **씻**으니 시원하고 좋다.

## ② /ħ/

한국어의 /ħ/과 가장 가까운 중국어의 음은 연구개 마찰음 [x]이며, 이 음은 한국어에서는 /ㅡ/모음 앞에서 발음되는 /ħ/으로 발음된다. 한국어의 /ħ/은 성문 마찰음으로서 기류가 다소 많은 편이므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ħ/ 음을 가르칠 때는 [x]보다 좀 더 목구멍 안쪽에서 발음하도록 구강도를 통해 가르친다.

## (3) 파찰음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츠, ㅈ/의 발음을 별 어려움 없이 배우지만, /즈/의 발음은

어려워한다. 특히 /스/과 /츠/의 구별을 어려워하는데, 이때도 역시 얇은 종이를 입 앞에 대고 두 음을 발음할 때 종이가 흔들리는 정도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 좋다.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스/이 유성음화되는 현상 역시 평음의 유성음화와 함께 지도해야 한다. 중국어권 학생들은 평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성음화 환경에서도 유기성을 내포한 무성음 /스/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조	초	저리	처리
지하	치하	진하다	친하다

바지 단추가 떨어졌어요.	줄리면 차를 세우세요.
저 친구는 중국말을 잘 합니다.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4) 비음

① /ㄴ/

/ㄴ/의 발음에서는 모음 /ㅣ/나 반모음 /j/ 앞에서 구개음화된 /ㄴ/의 발음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중국어에서도 산둥 지방에서는 경구개 비음 [ŋ]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소리이므로, 한국어의 ‘니, 냐, 녀, 뇨, 뉴’에서 나오는 [ŋ]의 발음을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혀끝을 윗니와 윗치조에 대고 [ŋ]을 길게 발음하면서 뒤에 이중모음 /ㅈ/를 붙여서 발음할 때, 혀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끌려오는 느낌을 확인하게 한다.

남남 남남	누구나 누구나
안녕하세요?	저 사람이 누구냐?
양념을 잘 해야 맛있어요.	내일은 결혼기념일이예요.

② /ŋ/

이 음은 연구개 비음이므로 ‘강’을 예로 드는 것이 좋다. 우선 구강도를 보여 준 다음, /ŋ/이 발음되는 자리에서 목젖을 울리는 상태로 혀로 연구개를 폐쇄시키는 과정을 들려주고 따라 읽게 한다. 받침 /ㅇ/이 제1음절에서 쓰인 예를 먼저 연습시키고, 제2음절 이하에서 쓰인 예를 연습시켜 나간다.

방 병 동네 병원 가방 명령 원숭이 여행지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에요. 여행 가방을 챙겨야 해요.  
 이 동네에는 원숭이가 많아요. 병원 주위만 빙빙 돌고 있다.

## (5) 유음

## ① 탄설음 [ɾ]

한국어에서 단어 초에서나 (반)모음과 (반)모음 사이의 /ㄹ/은 ‘노래[noræ]’의 예에서처럼 탄설음 [ɾ]로 발음되는데, 중국어에는 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이것을 대개 중국어의 성모 /l/에 대응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구강도를 통해 한국어의 탄설음 [ɾ]을 발음할 때에는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음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혀가 입천장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라라라...’를 연속적으로 가볍게 발음하도록 연습시킨 후, ‘러러러..., 로로로..., 루루루...’를 차례로 연습시킨다. 이 경우 만약 중국어의 설첨후음(=권설음)의 영향으로 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 나무젓가락을 입속 혀 위에 대고 발음하게 하여 뒤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노래 사람 미리 사랑 구름  
 허리와 머리가 다 아파요. 벼랑 아래에는 수령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노래를 해요. 다락의 창문에서 구름을 봐요.

① 중국어에서는 모음이 설첨후음(=권설음)과 결합하여 혀를 마는 모음으로 되는 이른바 ‘얼화[兒化]’ 현상이 있다.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모음 뒤에 /리/이 있으면 미리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어의 성모에는 한국어의 탄설음 [ɾ]과 같은 발음이 없고 설측음 [l]만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어의 ‘얼화’ 현상처럼 되어 버린다.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의 귀에는 ‘ㄹ’을 두 번 발음하는 /ㄹㄹ/처럼 들리게 되는데(예) 사람→[살람], 그리고→[글리고]), 이는 대부분의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런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뒤의 /ㄹ/을 급격하게 발음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어 교사들은 앞 음절의 모음을 길게 발음한 뒤 다음 음절을 이어서 발음하도록 따라 읽기, 혼자 읽기 등을 통해 훈련시키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정상적인 속도로 읽게 하면 된다.

## ② 설측음 [l]

한국어에서 받침으로 사용되는 /ㄹ/은 설측음 [l]로 발음되는데, 중국어 학습자들

은 혀를 마는 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교사는 구강도를 통해 중국어의 어말 /r/을 발음할 때에는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고 한국어의 설측음 /r/을 발음할 때에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혀가 입천장에 찰싹 붙지 않으면 틀린 발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혀가 뒤쪽으로 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쪽에 붙어 있음을 그림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건물	멀다	한글	얼굴	주말	글씨
	날마다	얼굴을	씻는다.		물론
	한글과	중국	글자를	배웠어요.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 ③ 경구개음 [ʃ]

한국어에서 /r/ 뒤에 모음 /i/나 반모음 /j/가 오면 구개음화된 /r/ 소리 즉, [ʃ]로 발음되는데 중국어에서는 같은 환경에서 경구개 유음으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이 발음에 대한 특별한 연습이 필요하다.

우선 혀끝을 윗니와 윗치조에 대고 [j]을 길게 발음하면서 뒤에 이중모음 /ʃ/를 붙여서 발음할 때, 혀가 뒤쪽에서 앞으로 끌려오는 느낌을 확인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중국어의 ‘lian’과 같은 말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시키고, ‘달리, 달라, 달려, 달료, 달류’를 차례대로 따라 하게 하고 스스로 발음해 보게 한다.

멀리	달력	줄려	실례	놀리다	달리다	흘리다
	줄려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연필을	빌려서	달력에
	어른을	놀리면	실례가	된다.	틀림없이	시계
						바늘을
						다시
						돌려
						놓았어요.

### 7.2.3. 초분절 음소의 지도

#### (1) 강세

중국어는 4개의 성조와 1개의 경성(輕聲)을 가지고 있는 성조어이므로 동일한 글자라 하더라도 성조의 차이에 따라 의미나 품사 등 용법이 다르다. 자음은 물론이고 모음의 구성 요소인 운두(韻頭), 운복(韻腹), 운미(韻尾)에서도 운복 부분의 음이 가장 선명하고 기므로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어와 다소 다르다. 1.4.4.1.에서 언급한 강세 규칙을 지도하여 연습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 (2) 억양

억양에 있어서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큰 차이가 없고 또한 어느 정도의 혼련만 거친다면 한국어의 억양을 익히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어 합쇼체의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더라도 생각보다는 하강의 폭이 적고 거의 평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승의 억양도 가지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일률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한국어의 해라제, 해체 문장은 명령의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좀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억양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애원할 경우에는 작은 폭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억양 형태를 가지므로 이러한 부분도 한국어 억양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7.2.4. 음절 구조의 교육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최대로 초성, 중성, 종성(훈민정음 제작 당시의 용어)으로 3분되며, 그 중 종성은 초성이 다시 응용된 것인데 중국어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다. 중국어의 운모에서 받침 자음 개념을 떼어내 봐야 [n]과 [ŋ]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다른 받침 자음들의 교육은 뒤로 돌리고 [n]과 [ŋ]만이라도 그 앞의 모음과 분리하여 인식하도록 반복 연습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어 운모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한국어 음절 구조를 쉽게 이해하는데 지름길이 된다.

그 다음에는 ‘모음 → 자음+모음 → 모음+자음 → 자음+모음+자음 → 모음+겹받침 자음 → 자음+모음+겹받침 자음’의 순서로 음절 구조별로 어휘를 정리하여 연습시켜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현재 배우는 단어가 어떤 음절 구조를 가진 말인지 학습자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중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운모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바로 운모로 시작하더라도(즉 음절을 경계로 하여 자음과 모음이 연속해도) 연습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한국어의 자연 발화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연습하여 발음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는 앞 자음이 뒤의 모음으로 이어져 발음되는 것을 화살표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 이해시키면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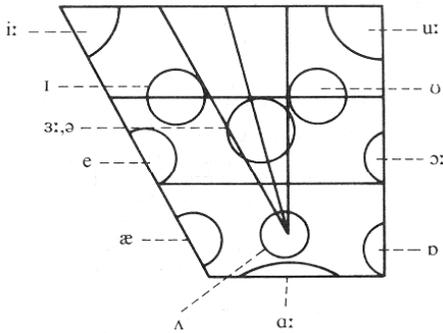
밥을→[바블], 무릎을→[무르플], 단아→[다다], 같이→[가타], 각오→[가고], 부엌에→[부어케], 옷이→[오시], 젓을→[저줄], 꽃이→[꼬치], 둘이→[두리]

### 7.3. 영어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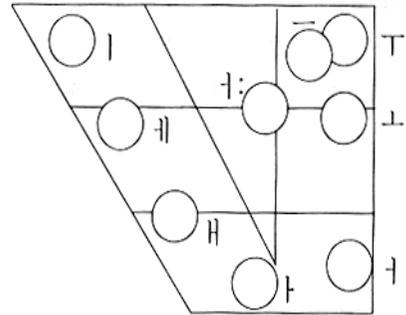
#### 7.3.1. 모음의 지도

##### (1) 단모음

한국어에는 /ɪ, ɛ, ɐ/ 3개의 전설모음이 있으며, 이 중에서 /ɛ, ɐ/는 젊은층의 한국어 화자들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발음하는 일이 적을 정도로 거의 통합된 상태이다. 모음 /ɛ, ɐ/에 대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구별이 잘 안 되는 발음이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안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중설모음은 /ɪ/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영어의 /a:/와 유사하므로 영어권 학습자들이 /ɪ/의 발음을 익히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후설모음은 /ɪ, ɪ, ʊ, ʊ/ 4개가 있다. 한국어의 /ʊ/나 /ɪ/는 영어권 학습자에게는 배우기 어렵지 않지만, /ɪ/와 /ɪ/는 영어에 유사한 모음이 없거나 음가가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배우기 어려운 소리이다.



< 영어의 모음 >



< 한국어의 모음 >

##### ① /ɛ/와 /ɐ/

한국어의 /ɛ/는 영어의 /e/와 유사하고 /ɐ/는 영어의 /æ/와 유사한데, 영어의 /æ/는 한국어의 /ɐ/보다 입을 더 벌리고 입술을 옆으로 더 펴고 발음하는 소리이다. 이 두 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음할 때 입을 벌리는 정도에 있다. 다시 말해서 /ɛ/를 발음할 때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입을 벌리고, /ɐ/를 발음할 때는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입을 벌린다.

개	게	배	베
새다	세다	모래	모레
내 일	네 일	새우다	세우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동생을 공항에 데려다 주었어요.

대사관 앞에 세워 주시겠어요?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② /ㅓ/

영어에는 한국어의 모음 /ㅓ/와 같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한다. 영어에도 [ʌ]로 표기되는 발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중설모음에 속하고 /ㅓ/와 /ㅓ/의 중간 발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ㅓ/에 좀 더 가깝게 발음되어 한국어의 /ㅓ/와는 음가가 다르다. 한국어의 /ㅓ/는 /ㅓ/보다 낮은 위치에서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원순성도 훨씬 적은 소리이다. 실제로 영어권 학습자 가운데는 /ㅓ/와 /ㅓ/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듣거나 발음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주 오류를 범하는 예로 ‘어디’를 ‘오디’로, ‘어머니’를 ‘오모니’로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받아쓰기를 시켜 보면 ‘것’과 ‘곳’을 듣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지 못하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러므로 영어권 화자들에게 /ㅓ/의 발음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ㅓ/와의 차이를 느끼게 하여 두 모음의 차이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ㅓ/의 발음 교육 방법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긴 /ㅓ:/를 발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아래턱을 내려 입을 벌린다.
- ㉡ 턱과 입술을 고정시킨 채 혀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면 /ㅓ/와 같은 소리를 얻을 수 있다.
- ㉢ 거울을 보면서 입술이 옆으로 퍼진 상태에서 발음하게 한다.

선풍기    거울    건너가다    넘어지다    벌써    떨어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점심부터 먹을까요?

얼음이 다 녹았어요.  
어제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서리	소리	널다	놀다
거기	고기	거치다	고치다

그 옷이 잘 어울리네.                      사거리에서 곧장 올라가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봐.        김치가 맵지 않고 아주 맛있었어요.

③ /ㅡ/

영어에는 한국어의 /ㅡ/ 모음과 같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영어권 학습자가 /ㅡ/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영어에 있는 [u]나 한국어의 /ㅜ/ 모음과 비교하여 교육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본다. 한국어의 /ㅜ/ 모음을 발음할 때와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면서 입술 모양을 평평하게 하면 한국어의 /ㅡ/ 모음을 낼 수 있다.

/ㅡ/는 /ㅜ/를 발음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래턱이 거의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입술은 편 채로 아랫니가 조금 보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벌린다.

그리다    그늘    은행    얼른    씨름    등산

늦었는데 얼른 가.                      개가 그늘에서 낮잠을 잔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주 좋은 취미지요.

은	운	끝	끝
쓰다	쭈다	은행	은행

여름에는 나무들이 푸르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든다.  
한자반 중급에 등록했어요.        학교 근처는 하숙비가 비싸요.

(2) 이중모음

한국어에서는 반모음과 모음이 연결된 것을 이중모음으로 간주하는데, /j, w, ɰ/ 세 개의 반모음이 있다. 영어에서는 단모음과 단모음 또는 반모음과 단모음이 이어지면서 발음되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말하고, 반모음은 /j, w/ 2개가 있다. 반모음 /j, w/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모두 사용되어 발음을 배우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나, ‘의자, 의미’의 첫소리에 나오는 반모음 /ɰ/는 영어권 학습자에게는 매우 생소한 소리이므로 배우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반모음 /w/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가운데 /ㄱ/와 /ㄴ/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단모음에서 /ㄱ/와 /ㄴ/를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모음 /ㅋ/와 /ㄲ/

의 구별 역시 어려워한다.

### ① /-/

한국어의 /-/는 환경에 따라 세 가지 변이음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첫 음절에서 자음이 앞서지 않으면 이중모음 [ɰi]로 발음되는데 바로 이 발음을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많다. 이중모음 /-/를 발음할 때는 모음 /-/와 /i/를 연이어 발음하되 /-/는 매우 짧게 발음한다. 영어권 화자 가운데는 /-/를 좀 더 발음하기 편한 소리인 /-/에 가깝게 발음하여서 ‘의사’를 [위사], ‘의자’를 [위자]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영어권 화자들에게는 영어의 한국식 발음을 들려 줘서 /-/ 모음을 청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street, tree’를 각각 [스트리트], [트리]라고 발음해 주고, 버스, 트럭, 치즈 등의 외래어를 들려 주면 쉽게 인지한다.

의사   의자   의학   의미   의논   의하면

친구와 의논하고 싶어요.

가방을 의자 위에 놓았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왔는데요.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비가 온대요.

그리고 첫소리로 /o/ 이외의 자음이 있는 경우(예 희망, 무늬, 널리리)와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강의[kanji]’와 같이 [i]로 발음되며, 소유격 조사 ‘의’로 쓰일 때는 ‘우리의[uriej]’와 같이 [e]로 발음된다는 사실도 함께 지도해야 한다.

### ② /-/와 /-/

/-/와 /-/는 발음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글자를 보고 발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취소’를 ‘최소’로, ‘뒷전’을 ‘뒷전’으로, ‘괴롭다’를 ‘귀롭다’에 가깝게 발음할 때가 종종 있다. 이는 /-/는 /ㄱ/에서 시작하여 /i/로 옮겨가는 발음이고, /-/는 /ㄷ/에서 시작하여 /i/로 옮겨가는 발음이므로, 각각 어떤 소리로 시작되는지를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뇌	뉘	되	뒤
죄	쨌	최소	취소

왼쪽으로 가면 위험해요. 수영장에서 뛰면 안 됩니다.  
 제 동생이 이 회사에 취직했어요. 동생이 외출하더니 취해서 돌아왔다.

③ /ㄷ/

이중모음 /ㄷ/는 반모음 /j/에서 단모음 /ㄷ/로 이동하면서 발음되는 소리이므로 단모음 /ㄷ/와 같은 맥락에서 발음 지도가 이루어지면 된다.

편지 여행 결혼식 겨울 자녀 며느리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발명과 발견은 다르다.  
 며칠 동안 여기에 계시나요? 여행할 때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마세요.

7.3.2. 자음의 지도

(1) 파열음

① 경음 ‘ㅃ, ㅍ, ㅌ’

파열음 가운데 영어권 학습자에게서 발음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경음 계열이다. 한국어에서는 초성의 위치에서 ‘달/탈/탈’, ‘불/풀/뿔’, ‘기/키/끼’와 같이 경음이 평음이나 격음과 음운 대립을 하여 최소 대립어를 이루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경음이 평음이나 격음과 최소 대립어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에서도 /s/ 다음에 오는 /p, t, k/는 한국어의 경음과 비슷하게 발음된다. 예를 들어서 ‘speed, style, sky’의 /p, t, k/는 각각 경음인 [p’, t’, k’]로 발음된다. 따라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경음을 학습시키려면 일단 영어의 /s/ 다음에 오는 /p, t, k/의 소리가 경음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발음 교육은 음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음을 청취하는 능력과,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요구된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듣고 구별할 수 있는 ‘청취 지도’ 단계와 ‘발음 연습 지도’ 단계가 고안돼야 할 것이다.

/ㅃ/ 발음 교육 방법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어두에 ‘평음, 격음, 경음’이 들어간 단어(예 불/풀/뿔)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읽게 한다(최소 대립어를 제시하면 자음 음가의 차이를 비교하기에 좋다).
- ㉡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게 한다.
- ㉢ 평음, 격음, 경음의 발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청각적으로 인식시킨다.

- ㉞ 우선 영어 단어 ‘speed’를 제시하면서 /p/를 [sp<sup>h</sup>i:d], [sp<sup>l</sup>i:d]와 같이 격음과 경음으로 발음하여 청각적으로 차이를 인식하는지 확인해 본다.
- ㉟ ‘speed’라는 영어 단어를 제시하고 발음하게 하며, [sp<sup>l</sup>i:d]로 발음할 때 나오는 [p<sup>l</sup>] 소리가 한국어의 경음인 /ㅍ/의 발음 [p<sup>h</sup>]와 같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㊱ 앞의 자음 부분만을 떼어서 [sp<sup>l</sup>]라고 발음하게 한다
- ㊲ [sp<sup>l</sup>]라는 발음에서 앞의 [s]를 떼어 내고 [p<sup>l</sup>]만을 발음하게 한다.
- ㊳ 뒤에 모음을 연결시켜서 ‘빠, 빼, 폐, 뽀, 뿌, 뽀, 뽀’를 연습시킨다.
- ㊴ 익숙해지면 그 뒤에 다른 음절을 덧붙여서 ‘빠르다, 뽀드득, 뿌리다, 빼약빼약’과 같은 단어로 연습하게 한다.
- ㊵ 어두의 위치뿐만 아니라 ‘예쁘다, 바빠요, 기뻐요, 고뻐’와 같이 둘째 음절 이하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보기를 주어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경음이든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오늘 바**쁘**세요?

우리 아**빠**는 회사에 계세요.

제 여자 친구는 아주 예**뽀**요.

기차보다 비행기가 **빠**릅니다.

그밖의 /ㅌ/과 /ㄷ/의 연습도 영어 단어 ‘style, sky’를 제시하면서 /ㅍ/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연습시킬 수 있다.

겨울에는 **딸**기가 비싸요.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뜨**거운 것은 싫어요.

바닥에 물이 **떨**어졌어요.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영미 씨 좀 바**뀌** 주세요.

학교가 가**까**워서 편해요.

방이 좀 더 **깨끗**하면 좋겠어요.

## ② 평음과 격음

평음과 격음의 대립 쌍 중에서도 ‘ㅂ’과 ‘ㅍ’의 구별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학습자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밭’과 ‘팔’을 발음하도록 해 보면, 두 단어를 똑같이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받아쓰기를 시켜 보면 두 단어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얻게 된다.

발음하기 어려운 음은 듣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평음, 격음’이 들어간 단어를 듣고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거나 받아쓰기를 하여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듣는지 확인해 본다. 평음의 음소 /ㅂ, ㄷ, ㄱ/이 단어의 첫소리로 나올 때는 격음 보다는 정도가 훨씬 약하기는 하지만 기식이 있는 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첫소리로 날 때는 얇은 종이나 손바닥을 학생의 입 가까이 대고 발음하여 기식의 정도 차이로 평음과 격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보도	포도	비리	피리
비다	피다	거부	거푸

발과 팔이 모두 아파요.                      파란 하늘로 비행기가 날아간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잠도 안 와요.            이 비누를 썼더니 피부가 고와졌어요.

③ 평음, 격음, 경음

한국어 파열음의 특징인 ‘평음/격음/경음’의 대립 쌍을 가지고 종합적인 파열음 연습을 해 본다.

달	탈	딸	굴	쿨	꿀
벌벌	펼펼	뽕뽕	기워요	키워요	끼워요

큰 그릇은 꺼내지 마세요.                      도장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요.  
 가방이 바뀌면 큰일이에요.                제일 빨리 달리던 파란 자동차가 안 보인다.

(2) 마찰음

① /시/과 /씨/

/시/은 혀끝과 윗잇몸 사이의 좁은 틈 사이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약한 소리이고, /씨/은 후두 근육의 긴장을 수반한 채 혀끝과 윗잇몸 사이의 좁은 틈 사이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이다.

영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시/ 발음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영어의 /s/는 단어의 첫소리로 올 때 /s/ 뒤에 자음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한국어에서와 같이 평음으로 발음되고, 모음이 뒤에 오는 경우에는 경음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시/이 단어의 첫소리로 올 때는 언제나 평음으로 발음된다는 점이다.

한국어의 /s/은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앞이나 반모음 /w/ 앞에서는 ‘사과[sagwa], 소리[sori], 수고[sugo]’와 같이 [s]로 실현되고, 모음 /ㅛ/ 앞에서는 ‘쉬다[wi:da]’와 같이 [ʃ]로 실현된다.

[s]의 발음 교육 방법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구강 내에 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s] 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한다.
- ㉡ [s] 하고 소리를 내다가 뒤에 모음 /ㅏ/를 붙이면서 계속 소리를 내게 한다.
- ㉢ 같은 방법으로 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등을 붙여서 발음하게 한다.
- ㉣ 익숙해지면 그 뒤에 다른 음절을 덧붙여서 ‘사람, 서다, 소문, 수건’과 같은 단어로 연습하게 한다.
- ㉤ 어두의 위치뿐만 아니라 ‘과수원, 대사, 명소, 기상대’와 같이 둘째 음절 이하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보기를 주어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s]든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한국어에서 /ㅍ/은 모음 /ㅣ/나 반모음 /j/ 이외의 모음 앞에서는 ‘싸움[s'aum], 쓰다[s'ida]’와 같이 [s']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는 /ㅍ/과 /ㅍ/이 초성에서 음운 대립을 보여 최소 대립어를 이루기 때문에 /ㅍ/과 /ㅍ/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발음하면 의미의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예) 사다 [sada], 싸다 [s'ada]  
수다 [suda], 쭈다 [s'uda]

영어권 학습자 가운데는 ‘사랑’을 [싸랑]이라고 한다든지, ‘살’과 ‘쌀’의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두 단어 모두 [쌀]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듣기에서도 ‘사다’와 ‘싸다’, ‘살’과 ‘쌀’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할 때가 있다. /ㅍ/과 /ㅍ/의 구별은 ‘사’와 ‘싸’를 번갈아 가며 ‘사, 싸, 사, 싸…’와 같이 발음하여 ‘사’와 ‘싸’를 발음할 때 근육과 혀의 긴장 상태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연습시킨다.

살	쌀	상봉	쌍봉
서라	씨라	수군수군	쭈군쭈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었다.  
 쓴소리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는 선선하더니 오늘은 쌀쌀해졌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시/과 /씨/이 모음 /i/나 반모음 /j/ 앞에서는 각각 [e]와 [e']로 실현되어서 [si]나 [s'i]로 발음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시간'은 [cigan]으로, '씨름'은 [e'i:rim]으로 발음되므로 영어식 발음의 [sigan]이나 [s'i:rim]과는 다른 소리이다.

음성학적으로 [s]는 치조음이고 [e]는 경구개 치조음이다. 구강 구조를 보면, 치조는 경구개보다 앞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명칭에서도 보듯이 치조음 [s]는 경구개 치조음 [e]보다 혀의 조음 위치가 앞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ei]를 발음할 때는 [si]보다 혀의 위치가 뒤에 있다. 또한 [ei]는 [si]보다는 비교적 긴장을 덜 하고 발음하는 소리이다. 영어에서 /s/ 뒤에 [i] 모음이 오는 경우와 한국어의 /씨/ 뒤에 'ㅣ'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비교하여 발음을 익힌 다음, 긴장을 빼고 발음하여 [e]를 내도록 연습할 수 있다.

[ei]와 [e'i]의 발음 교육 방법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교사가 영어의 'seed'를 제시하면서 영어식으로 [s'i:d]라고 발음하고, 한국어식으로 [e'i:d]라고 발음한 다음, 학생에게 발음의 차이를 청각적으로 인식하는지 확인한다.
- ㉡ 영어의 'see'와 한국어의 '씨'를 제시하고 교사가 'see'는 영어식으로 [s'i:]라고 발음하고, '씨'는 한국어식으로 [e'i:]라고 발음한 다음, 학생에게 발음의 차이를 청각적으로 인식하는지 확인한다.
- ㉢ 영어의 'see'를 발음하게 하고, 혀의 앞부분을 뒤로 조금 당기면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입천장 가운데 부분, 즉 경구개에 접근시키도록 한다. 이 때 혀의 앞부분은 자연스럽게 윗잇몸에서 떨어지게 하고 발음하게 한다.
- ㉣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e'i]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이 소리에서 완전히 긴장을 빼고 발음하는 소리가 [ei]라는 것을 알려 준다.
- ㉤ '시'와 '씨'를 번갈아 가며 '시, 씨, 시, 씨...'와 같이 발음하여 '시'와 '씨'를 발음할 때 근육과 혀의 긴장 상태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 ㉥ /시/ 뒤에 /ㅣ/ 모음이 들어간 단어를 듣고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거나 받아쓰기를 하여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듣는지 확인해 본다.

시 씨

시름 씨름

씨름 시합은 벌써 끝났다. 저는 식사 후에는 껌을 씹곤 해요.  
찬물에 손을 씻으니 한결 시원하다. 제 여동생 영신이는 남자같이 씩씩해요.

## ② /ㅎ/

한국어의 /ㅎ/은 다른 어느 자음보다도 환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변이음의 수가 많은 반면에, 영어의 /h/는 주로 성문 마찰음으로 발음되며 대체적으로 한국어의 /ㅎ/보다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원순 고모음 /꺀/나 양순 경구개 반모음 [u] 앞에서는 원순화되고 구개음화되어 원순 경구개 마찰음 [ç<sup>w</sup>]로 발음된다. 원순 경구개 마찰음 [ç<sup>w</sup>]는 영어 단어 ‘whistle[hwisl]’의 ‘wh’에 해당하는 음인데, 영어 화자 가운데는 이 ‘wh’를 [hw]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h] 부분을 발음하지 않고 [wisl]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에 [h]를 발음하지 않는 학습자의 경우는 이 ‘wh’의 발음을 할 때 [h]를 붙여서 발음하면 원순 경구개 마찰음 [ç<sup>w</sup>]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유성음 사이에서 /ㅎ/은 ‘외할머니[wɛhalməni], 문화[munfiwa]’와 같이 유성 마찰음 [ɦ]로 나는 일이 있다. 유성 마찰음 [ɦ]는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음인데, 유성음 사이에 /ㅎ/이 올 때 이 /ㅎ/을 분명하게 발음하지 않고 약한 소리로 발음하면 쉽게 발음할 수 있다.

문화 결혼 간호사 지하도 전화 열심히

제가 전화 받을까요? 지하도를 건너가세요.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3) 파찰음

## ① /즈/

한국어의 /즈/은 혀의 앞부분을 경구개에 붙였다가 터뜨리면서 바로 마찰시켜 내는 소리이다. 영어에서 한국어의 /즈/과 유사한 발음이 나는 소리로 [z, ʒ, dʒ]를 들 수 있으나, 한국어의 /즈/과는 모두 음가가 다른 소리들이다. 이 중에서 [z, ʒ]는 마찰음이고 [dʒ]는 파찰음이다.

영어의 [dʒ]는 경구개 치경 파찰음이므로 한국어의 /즈/은 [dʒ]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를 조금 뒤로 당겨서 발음한다. 또한 영어의 [dʒ]을 발음할 때는 언제나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게 되지만 *한국어의 /지/은 뒤에 원순 모음이 뒤따를 때에만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고 발음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영어식의 [zʌŋgʌ]나 [zʌŋgʌ] 또는 [dʒʌdʒʌŋgʌ] 등과 같이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 ② /치/

영어에서 한국어의 /치/과 유사한 발음이 나는 소리는 [tʃ]를 들 수 있으나 이것 역시 한국어의 /치/과는 음가가 다르다. 영어의 [tʃ]를 발음할 때는 [dʒ]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게 되지만 *한국어의 /치/은 뒤에 원순 모음이 뒤따를 때에만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고 발음한다*. 그러므로 ‘차고’를 영어 발음 식의 [tʃɑɡo]와 같이 발음하지 않고 원순성이 없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과열음 가운데서 /비/과 /피/의 구별을 어려워하는 것 못지않게 파찰음의 /지/과 /치/을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많다. ‘지하철’과 ‘자동차’의 발음을 시켜 보면 /지/을 /치/으로 발음하여 각각 ‘치하철’, ‘차동차’로 읽는 학습자들이 많으며, 받아쓰기를 해 보면 ‘지하철’은 ‘치하철, 치하철’로, ‘자동차’는 ‘차동자, 차동차’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두 소리를 구별해서 듣기 어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짜/

한국어의 /짜/은 후두 근육의 긴장을 수반한 채 혀의 앞부분을 경구개에 붙였다가 터뜨리면서 곧바로 마찰시키며 내는 소리인데, 영어에는 경음인 [tʃ]라는 음이 없다. /짜/의 발음을 지도할 때는 ‘으’를 발음하다가 숨을 끊고 성대를 닫은 상태에서 성대 아래에 압축되었던 공기를 파열시키면서 [자]를 강하게 발음하게 한다. 같은 방법으로 ‘으짜 으짜 으짜’하며 반복하게 한 후에는 앞의 ‘으’를 떼어 내고 ‘짜’만 계속해서 발음하게 하면 된다.

어두의 초성에서는 /스, 츠, 짜/이 음운 대립을 보여 ‘자다/차다/짜다’와 같은 최소 대립어를 이루므로 발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잠	참	째	중	총	쥁
자다	차다	짜다	지다	치다	찌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야 한다. 아침 일찍부터 주전자를 찾아다니네.  
 준호가 진짜 도중하차했나 봐. 짬을 내서 중학교 친구들을 찾아보고 싶다.

#### (4) 비음

한국어의 비음 /ㄱ, ㄴ, ㅇ/은 영어의 비음 /m, n, ŋ/과 발음면에서 대체로 비슷하지만, 영어의 비음이 한국어의 비음보다 비강에서 공명이나 성대의 진동이 더 강한 편이다. 영어 원어민의 비음 발음은 한국인의 경우보다 콧소리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도 비음이 지나치게 콧소리로 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비음에서는 ‘안 나요[anajoj]’의 경우처럼 /ㄴ/이 연이어 나올 때 영어권 화자들은 /ㄴㄴ/을 분명하게 발음하기보다는 하나를 생략하거나 약하게 발음하여 [anajo]와 같이 /ㄴ/을 하나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도 ‘만나다’는 [마나다]로, ‘만남’은 [마남]으로, 또 ‘밤마다’는 [바마다]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것은 아마도 영어에서 똑같은 자음이 중복되면 하나를 생략하고 읽는 습관에서 온 듯하다(㉮ sunny[sani], hammer[hæmə], mommy[mami]). 그러므로 /ㄴ/이 연이어 나올 때는 혀끝을 /ㄴ/을 내는 것처럼 윗니 뒤 잇몸에 대고 강하게 밀면서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아내      안내                      가난      간난

#### (5) 유음

한국어의 유음에는 /ㄹ/ 하나밖에 없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한국어의 /ㄹ/에 해당하는 소리로 /r/과 /l/이 있다. 이 두 소리는 단어의 첫소리에서 모두 나타나서 음운 대립을 보이므로 ‘rice/lice’와 같이 최소 대립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영어권 학습자들, 특히 미국식 영어 사용자들의 한국어 발음에서 가장 외국적인 말투는 바로 한국어의 /ㄹ/ 소리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순수 한국어에서는 단어의 첫소리로 /ㄹ/이 오지 않고, 또한 /ㄹ/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이음이 나타난다.

##### ① 탄설음 [ɾ]

한국어에서는 (반)모음과 (반)모음 사이에서는 ‘노래[norɛ], 사람[sɑ:ram]’과 같이 탄설음 [ɾ]로 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ㄹ/ 뒤에 /ㅎ/이 뒤따를 때에도 ‘말하다[mar:fiada], 결혼[kyɔrɸon]’과 같이 탄설음으로 난다.

영어 단어의 첫소리로 나는 /r/이나, 모음 뒤에 /r/이 와서 앞의 모음과 같은 음절

을 이루는 경우에는 혀를 말아서 발음하는 소리인 [ɹ]로 실현되는데, 이것은 한국어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는 탄설음과는 음가가 다른 소리이다. 그러므로 영어권 학습자 가운데는 한국어의 ‘노래’나 ‘사람’의 경우처럼 /리/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올 때 이 /리/을 혀를 말아서 발음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영어에서는 모음 사이에 나오는 비강세 음절 머리의 /t, d/를 ‘city[sɪɹi], ladder[ˈlɛɹə]’와 같이 탄설음으로 발음하므로 이 소리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면 쉽게 발음할 수 있다.

**우리 사랑 고리 놀이 설악산 필요하다 할아버지**

발음이 꽤 정확하군요.

그 친구의 이름을 알아요?

저 사람에게 한번 물어 보세요.

주말에 조카와 동물원에 갔어요.

② 치조 설측음 [l]

한국어에서는 음절말에서나 /리/이 연이어 날 때는 혀옆소리로 나는데 특히 혀끝을 살짝 말아서 내는 치조 설측음 [l]로 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말[ma:l], 알다[a:lda], 달라[dalla]’와 같이 발음되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에서 음절말에 나타나는 /l/은 한국어에서 음절말이나 자음 앞에서 실현되는 /리/의 발음([l])과는 음가가 다르다. 영어에서는 ‘pill[pɪl], full[ful]’과 같이 발음되는데 이것은 연구개음화한 어두운 음인 [ɫ]로서 한국어의 [l]보다 훨씬 더 뒤쪽에서 발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달’이나 ‘별’의 받침 /리/을 영어의 [ɫ]로 발음하면 한국어답지 않은 어색한 발음이 된다.

영어에서 /l/은 어말의 ‘어두운 /l/’ 뿐만 아니라 대개 단어의 어두(life, late)나 단어의 중간에서 전후에 전설모음이나 중설모음이 있을 때(silly, foolish) 나타나는 ‘밝은 /l/’도 있다. 이것은 전설이 경구개 쪽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혀끝이 위 치경에 닿고 혀의 뒷부분이 낮게 머물러 있으며 나는 소리이다. 한국어의 어말에서 나타나는 치조 설측음 [l]은 영어의 ‘밝은 /l/’로 발음하도록 지도하는 편이 낫다.

**건물 날마다 말씀 생활 얼굴 정말 한글**

갈비탕으로 할까요?

친구들과 놀 때는 즐겁다.

높은 건물들이 정말 많군요.

신발과 양말을 사고 싶은데요.

## ③ /리리/ ([ll, ʌ])

‘달라[dalla]’처럼 /리/이 연이어 나올 때 영어권 화자들은 /리리/을 분명하게 발음하기보다는 하나를 생략하고 하나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도 ‘알려요’를 [아려요]로, ‘열려요’를 [여려요]와 같이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아마도 영어에서 똑같은 자음이 중복되면 하나를 생략하고 읽는 습관에서 온 듯하다(예 village[vilidʒ], yellow[jelou]). 그러므로 /리/이 연이어 나올 때는 혀끝을 [리]을 내는 것처럼 윗니 뒤 잇몸에 대게 한 다음, 더욱 강력하게 올린 소리로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별로** 물론이다    **벌레**    **얼른**    **올라**가다    **놀라**다

**얼른** 뒤에 타세요.

그럼 **수요일로** 정합시다.

**별로** 맵지 않았어요.

배가 **블러**서 더 못 먹겠어요.

마지막으로 연이어 나는 /리/ 다음에 모음 /i/나 반모음 /j/가 뒤따를 때는 ‘알리다[alʌida], 멀리 [mø:li:ʌi]’와 같이 구개음화한 [l], 즉 구개 설측음 [ʌ]로 발음된다. [ʌ]는 혀끝을 아래 잇몸에 대고 전설은 상승시켜 경구개에 대고 발음하는데, 이때 영어의 ‘어두운 /l/’을 겹쳐서 내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발음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놀리**다    **달력**    **홀리**다    **빌리**다    **살림**    **실례**하다

연필 좀 **빌려** 주세요.

6시까지 **틀림**없이 갖다 주세요.

친구를 **놀리**면 안 돼요.

고치는 사람을 **빨리** 불러야겠어요.

## 7.3.3. 초분절 음소의 지도

## (1) 강세

한국어에서는 낱말의 첫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음절어나 2음절어의 경우는 첫 음절에 강세가 오고, 세 음절 이상으로 된 낱말의 경우는 첫 음절이 받침이 없고 모음이 짧게 발음되면 강세는 둘째 음절에 오기도 한다.

반면에 영어에서는 2음절어의 경우 전체 영어 단어의 반 이상이 앞 음절에 강세가 오는데, 둘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첫 음절을 매우 약하게 발

음한다.

영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단어를 영어의 리듬 패턴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2음절어의 둘째 음절에 강세를 부과하고 (예) 부산, 사람), 4음절어의 셋째 음절에 강세를 부과한다(예) 해바라기, 세종대왕). 한국어의 강세는 매우 규칙적으로 부과되므로 한국어와 영어의 강세 규칙의 차이를 이해시키고 발음 지도를 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을 할 수 있게 된다.

## (2) 억양

한국어와 영어의 억양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많이 있다.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평서문, 의문사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은 내림 억양으로 발음되고, 예-아니오 의문문은 오름 억양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억양(문미억양)이 마지막 강세 음절에서부터 문장의 끝음절에 얹히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핵억양이 문장의 마지막 음절에 얹힌다.

### 7.3.4. 음절 구조의 교육

영어와 비교해 볼 때 한국어의 음절 구조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음절의 어느 위치에서든 자음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 구조는 자음-모음-자음(CVC), 모음-자음(VC), 자음-모음(CV), 모음(V)의 네 가지 뿐이다. 따라서 어말에 자음군이 나올 경우 단순화 과정을 거쳐 하나만 소리가 나지만, 모음이 연결될 때는 두 개의 자음 중 첫 번째 소리는 앞 음절에서 소리나고, 두 번째 소리는 뒤 음절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어말에서 자음군이 모두 소리날 수 있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도 두 개의 자음 모두를 발음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 어말 자음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예) 짧다 [짤따] (O), [쪼따] (X)      맑다 [막따] (O), [따따] (X)

# 한국어 교재론

## 1. 교재개발의 기초

### 1.1 외국어 교육과 교재

교재는 교사, 학습자와 함께 외국어 교육 현장의 3대 요소로 불린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그 무엇’을 가르치고, 학습자가 ‘그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교재는 ‘그 무엇’을 담아내는 총체적인 도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외국어 교육에서의 교재는 유형, 무형의 언어 자료 전체를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는 특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 조직되어 체계화된 교재로부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음성 자료, 문자 자료가 포함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는 교재를 ‘교사가 가르치고 학습자가 배우는 그 무엇’으로 보는 원론적인 것으로, 실제에 있어서 교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넓은 의미의 교재로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교육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교과서, 참고서, 워크북, 교사지침서, 사전,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웹 자료, CD, 사진/그림 등이 포함된다.

둘째, 좁은 의미의 교재로서 교과서, 워크북, 참고서와 같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잘 선정되고 조직화된 ‘written materials’를 의미한다.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재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교재가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선정되고 조직되는 만큼 단지 교수-학습의 내용을 의미하는 ‘그 무엇’에 그치지 않는다. 교재 개발의 과정에서는 이미 ‘어떻게’를 고려하여야 함으로써 교재는 교수법과 연관된다. 따라서 교재는 교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며 학습자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제시한다. 교재가 갖는 기능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재는 교수-학습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규정지어 준다. 즉 외국어 교재라면 그 안에 포함될 제재의 선택과 제시 등을 통해 목표 언어 학습에 있어 대상이 무엇 인지를 분명하게 해 준다.

둘째, 교재는 선정된 내용을 교육 목표 및 학습 단계에 맞춰 재가공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목표 설정을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목표어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화를 강화한다.

셋째, 교재는 기본적으로 교실에서의 사용 또는 독학으로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교사에게는 교수 방법론 및 교수 전략을, 학습자에게는 학습 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넷째, 교재는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의 대상과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교재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외국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좋은 교재의 개발은 그만큼 좋은 학습 효과를 기대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좋은 교재란 어떤 교재를 말하는가? 이는 기본적으로 위에 제시한 교재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사용될 교육 현장의 제반 특성에 맞추어진 교재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최근에 교육기관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재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각 교육 기관에서는 자체 교육 과정에 맞춘 교재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등 국가 차원의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교재의 개발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2 최근의 한국어 교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은 당연히 한국어 교육 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리고 당시의 주된 언어학적 경향, 외국어 교수방법론과의 연계 역시 필연적이다.

최근 국내의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재 역시 이러한 교수법의 기본원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상태에서 개발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어 교육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도약의 과정을 걷고 있는데 교육기관의 차원, 국가기관의 차원, 개인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교재를 개발하여 출판하고 있다. 출판되는 교재 역시 다양하여 대화, 어휘, 문법, 구문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면서 의사소통의 네 가지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주 교재뿐만 아니라 특정 언어 기능 교육용 교재, 특정 범주 교육용 교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재 등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재 등 학습자 변인에 맞는 교재의 개발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어 교재 개발에 있어 양

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가장 풍부한 결과를 낳은 시기이다. 이 시기 교재개발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교육기관들은 그 동안 사용해 오던 교재를 새로이 개편하기도 하였고 사용 교재가 없던 기관에서는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처음 배우는 한국어 읽기』, 『재미있는 한국어 읽기』, 『즐거운 한국어 읽기』, 『생각하는 한국어 읽기』, 『주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말이 트이는 한국어 2』, 『말이 트이는 한국어 중급 1』, 『말이 트이는 한국어 중급 2』와 관련 워크북, 서강대학교의 한국학센터의 『서강 한국어 초급 1』, 『서강 한국어 초급 2』, 『서강 한국어 중급 1』, 『서강 한국어 중급 2』, 경희대학교의 『한국어 초급 1』, 『한국어 초급 2』, 『한국어 중급 1』, 『한국어 중급 2』, 『한국어 고급 1』, 『한국어 고급 2』, 선문대학교의 『한국어 1』, 『한국어 2』를 들 수 있다.

둘째, 국내외에서 범용의 교재를 편찬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의 결과로 몇몇 범용 교재가 선을 보였다. 문화관광부 산하의 임의 단체로 1998년에 출범하여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주요 영역에 대하여 연구하고 활동해 온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한국어세계화재단이 개발한 교재와 미국의 하와이대를 중심으로 하는 KLEAR(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한국어교육연구센터)가 개발한 영어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중국 내 한국어 교수와 국내 교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용 교재와 일본 내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용 교재도 이 범주에 속한다.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교재는 초급 단계의 교재 개발을 완료하고 2003년 현재 중급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다른 교재와는 다르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기능별 분리 교재로 개발되었으며 한국어 학습용 사전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KLEAR의 기본 교재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을 통합한 통합 교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문학, 작문, 한자 등 전문 영역 별 교재를 함께 개발함으로써 모두 20종에 달하는 등 규모가 방대하며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약 9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개발되었다. 한편 중국 대학생용 한국어 교재는 모두 3권으로 편찬되었으나 개발 기간이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아 실제로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일본 내 고등학교 교사와 일부 대학 교수가 중심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약 170곳의 일본 내 고등학교에서 쓰일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범용성을 갖는다.

셋째, 이 시기에는 문법, 한자, 작문, 어휘사전 등 특정 범주를 다룬 교재의 개발

이 활발해졌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하와이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KLEAR에서는 한국어 학습용 일반 교재 이외에 『한국어 문법』, 『한국어 작문』, 『생활 한자』, 『한국어 용례사전』 등을 함께 개발하였다. 개인적 차원의 저술에서도 백봉자(1999)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라혜민·우인혜(2000)의 『Easy Korean Grammar』, 王俊(2001)의 『韓國語 文法』 등 다양한 종류의 문법 교재가 출판되었다.

넷째, 이 시기에는 산업체 근로자, 군인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물론 1980년대 초에 선교사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재의 개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한국어 학습자 변인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특수 교재를 개발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연수 목적으로 집필된 조항록 외(2002)의 『한국어와 한국생활』과 국제노동재단(200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한국어 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재의 출현이다. 멀티미디어 교재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용 교재와 CD롬 타이틀이라는 컴퓨터 보조 학습 교재,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의 웹 기반 교재의 개발 및 교육 서비스는 서강대 한국학센터의 ‘Korean Studies at Sogang’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국제교육진흥원의 ‘KOSNET’이 대표적이며 모두 1998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해외에서는 호주 모나쉬 대학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CD롬 타이틀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수부가 집필하고 콤텍시스템이 개발한 ‘유타의 한국 기행’과 농심데이타시스템의 ‘NDS Korean’이 대표적이는데 이들 교재는 각각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삼았다. 2000년 이후에는 일부 교재가 CD롬 타이틀을 인쇄된 종이 교재의 보조 학습용으로 병행 개발하였는데 주로 본문 대화 장면 구현과 듣기 학습, 그리고 연습문제 풀이 보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선근 외(2000)의 『한국어 1』과 아름답게 트는 한국어교육연구소(2000)의 『easy Korean for foreigners』가 있다. 한편 종이 교재와 함께 비디오 테이프를 함께 개발한 교재로는 정재훈(1999)의 『Interactive Korean Through Video 1』~『Interactive Korean Through Video 6』을 들 수 있다.

## 2. 교재 유형론<sup>1)</sup>

### 2.1 교육과정, 교수요목과 교재

일반적으로 교재는 사용될 교육 현장의 제도적,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는 교육 목표, 이를 실제 교육을 통해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요목과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이 교육과정(curriculum), 교수요목(syllabus)과 교재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편찬된 다양한 유형의 교재를 연구하는 것이 교재 유형론이다.

원래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쓰인다. 이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 또는 대학에서 훈련 목적으로 공부하는 과정’, 또는 ‘특정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과 교수 절차, 학습 경험, 그리고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일’ 등으로 정의된다. J.D. Brown(1989)은 교육과정의 수립에는 ① 요구 분석(need analysis), ② 목표 설정(objectives), ③ 시험 사용(testing), ④ 자료화(materials), ⑤ 교수 활동(teaching), ⑥ 평가(evaluation)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의 경우 국가적 차원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 실시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틀과 그 안에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정규 교육이 아닌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이 정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관련 전반적인 틀과 그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교수요목은 이러한 교육 과정을 단계별 또는 영역별로 상세하게 기술한 교육 계획으로서 실제 교육은 이 교수요목에 의해 진행된다. 교재는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하에서 실제의 교육 내용을 담고 교사와 학습자 간의 교육의 매개체이며 대상이 됨으로써 교재는 교육과정, 교수요목과 밀접히 연관된다.

#### 2.1.1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한국어 교육과정의 분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제도, 교육 환경에 따라 교육과정을 나눈다면 교육 현장이 국내냐 국외냐에 따라 ‘국내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국외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고 공교육으로 실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공교육 과정’과 ‘기타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대학 부설의

1) 이 부분은 조항록(2003)에 근거하여 집필되었다.

한국어 교육 전문 교육기관에서 특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분류한다면 순수 어학 교육 목적의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 전공 목적의 교육과정, 학문적 목적의 교육과정, 직무수행 능력 제고 목적의 교육과정, 민족교육 목적의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교육과정은 국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교육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교재는 이를 실제 교육으로 실행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교재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데 특히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아래와 같다.

<표1>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의 상관성

교육과정	대표적인 예	주된 교육 목표	과정의 개요	요구되는 교재
순수 어학 교육 목적의 교육과정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 교육기관의 정규 과정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	- 초급(1,2)-중급(1,2)-고급(1,2) - 단계 별 교육기간은 10 주 내지는 16주 - 단계 별 교육시간은 200 시간 내지는 320시간	- 주제, 과제와 기능, 기본 대화, 어휘, 문법 학습용 주교재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용 교재 - 발음, 문법, 한자, 작문 학습용 교재 - 한국 문화 학습용 교재
한국어 교육 전공 목적의 교육과정	미국, 일본,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 학과	- 한국어 교육 전문 인력 배양 - 한국어 사용 직무 수행 능력 배양	- 초급(1,2)-중급(1,2)-고급(1,2)의 한국어과정 -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통사론... 등 한국어학 - 한국 문학, 한국 문화, 시사한국어, 한국어 무역실무... 등 한국학과 응용 한국어 - 4년 8학기	- 주제, 과제와 기능, 기본 대화, 어휘, 문법 학습용 주교재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용 교재 - 발음, 문법, 한자, 작문 학습용 교재 - 한국어학 관련 교재 - 한국 문화 학습용 교재 - 한국 문학 강독 등 한국학과 응용 한국어 관련 교재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 과정	- 미국, 일본 등 해외 대학의 기초 한국어 과정 - 국내 대학 유학생 과정	전공 과목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배양	*기초 한국어 과정 - 초급(1,2)-중급(1,2)-고급(1,2)의 한국어과정 *국내 유학생 과정 - 한국 문학, 한국 문화, 시사한국어 등 한국학과 응용 한국어 - 1년 2학기~2년 4학기	- 주제, 과제와 기능, 기본 대화, 어휘, 문법 학습용 주교재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용 교재 - 발음, 문법, 한자, 작문 학습용 교재 - 한국 문학 강독 등 한국학과 응용 한국어 관련 교재

교육과정	대표적인 예	주된 교육 목표	과정의 개요	요구되는 교재
직무 수행 능력 제고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 국내 기업체 사 내 한국어 연수 - FSI, DLI의 한 국어 교육 과정	직무 수행에 필 요한 한국어 능 력 배양	- 초급(1,2)-중급(1,2)-고급 (1,2)의 한국어과정 - 직무 관련 전문 교과목 - 단기(3주)~장기(63주)	- 주제, 과제와 기능, 기본 대화, 어휘, 문법 학습용 주교재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 육용 교재 - 직무 관련 교과목을 위한 교재
민족교육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 일본의 민족학교 - 한글학교	한국어를 통한 민족 교육	- 초급(1,2)-중급(1,2)-고급 (1,2)의 한국어과정 - 한국예절...등 한국 관 련 교과목	- 주제, 과제와 기능, 기본 대화, 어휘, 문법 학습용 주교재 - 한국예절, 한국문화, 한국역 사 등 민족교육 관련 교재

그러나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사용 교재는 위의 내용과 매우 상이하다. 최근에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재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은 주교재의 개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어 교육 현장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실제로 사용되는 교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국내 교육과정과 교재

국내 한국어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교육 과정이 극히 적고 대부분 ‘기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약 5,000명 정도인 국내 한국어 학습자들 대부분은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연수생이다. 공교육에 속하는 초·중등학교와 대학, 대학원의 한국어 과정은 매우 빈약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 현재 한국어 교육과정을 찾을 수 없고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재외국민의 모국 수학 적응을 위한 국제교육진흥원의 한국어 과정과 서울 시내 3개 중학교의 한국어 특별 과정, 그리고 서울외국인학교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의 국제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전부이다. 전자의 경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후자의 경우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우리 교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교육과정은 그 체계 자체가 아직은 제도화가 덜 되어 있고 3개 중등학교의 경우 대상 학생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교수요목과 교육 내용이 수시로 바뀌게 되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기보다는 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사용 교재 역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보다는 그 때 그 때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간행 임시 자료를 활용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 역시 하나의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되며 그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 사용 교재는 대부분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성인 학습자용 교재를 쓰거나 비간행 임시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국제교육진흥원

의 경우 자체 개발한 전문 교재를 쓰고 있다. 한편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은 최근에 한국에 오는 외국 유학생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 대학에도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규모 및 연속성의 측면에서 교육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보잘 것 없는 곳이 많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은 대체로 6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 교육기관의 체계와 유사하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대부분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편찬한 것들로서 대학교과목으로서의 성격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정식 출판은 아니나 이들을 위한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재를 개발한 전례가 있으며 최근에 들어와 이들을 위한 전문 교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한국어 교육 전문 교육기관은 자체 교육과정에 맞춘 교재들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규모가 큰 교육기관은 정규 교육과정용 교재는 물론 비정규 교육과정용 교재까지 개발하기도 하고 규모가 작은 교육기관은 정규 교육과정용 교재를 개발하였거나 다른 교육기관의 교재를 활용하기도 한다. 정규 교육과정용 교재는 각 등급 체계에 맞춰 1개 등급 1개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기능 별 교재 개발을 시도하거나 주교재에 맞춘 워크북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교재는 대체로 한 학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철저하게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육기관의 1급용 교재의 이름은 ‘한국어 1’ 또는 ‘한국어 초급1’과 같이 등급 체계를 교재 명에 사용한다. 기능 별 교재의 정식 출판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읽기 학습용 교재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4가지 기능별로 교재를 개발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기관은 기능별 교재 이외에 범주별 교재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데 발음, 한자, 문법 교재가 대표적이다. 비정규 과정 교재의 경우는 아직 개발이 활발하지 않으며 일부 교육기관에서 시험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주교재의 보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대부분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t;표2&gt; 국내 한국어 교육과정과 사용 교재의 유형

교육과정 분류 1	교육과정 분류 2	사용 교재의 유형	비고
공교육 과정	중·고등학교	교사 작성의 입시 자료	국어 교육적 성격이 강함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발 교재	해외 현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
	대학, 대학원	기차 교육과정 중 정규 교육과정용 교재 - 주교재, 기능 별 교재, 범주 별 교재	교육과정의 상이함에서 오는 불편이 큼
기타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	각 등급 별 주교재 기능 별 교재 범주 별 교재 교사 작성의 교육 자료	각 등급 별 교재는 주로 6단계로 되어 있음 기능 별 교재로는 읽기 교재가 대표적임 범주 별 교재로는 발음, 한자, 문법이 대표적임
	비정규 과정	정규 교육과정용 교재 교사 작성의 교육 자료	

#### 나. 국외 교육과정과 교재

국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국내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다. 해외 현지의 교육제도적 특성, 해외교포 집단의 특성이 주요 변수가 되며 한국과의 관계 정도에 따른 한국어 학습 유형의 다양화 또한 주요 변인이 된다.

우선 해외 현지의 교육 제도적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분류하면 공교육 과정으로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대학의 교양과목 또는 기초과목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대학의 전공과목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들 수 있으며 우리 교민(특히 외교관, 주재원 등) 자녀의 국내 교육과정에 맞춘 한국학교 교육과정, 해외 한글학교 교육과정 등이 있다.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최근에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수업 시간 수는 주당 2시간 내외가 주를 이루어 체계화가 아직은 미흡하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교재 역시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로 교사의 개인 자료나 성인 학습자용 교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대학의 교양과목 또는 기초과목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최대 주당 10시간 정도로 비교적 체계화가 되어 있으며 사용 교재 역시 현지에서 개별 학교 별 또는 지역 내 연합의 형태로 교재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 중에는 문법서 등 보조 교재도 포함된다.

대학의 전공과목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최근에 빠르게 체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용될 교재 역시 비록 지역 별로 차이가 크나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어 능력을 함양할 목적으로 교과목 명 또는 각 단계 별로 개발되는 교재가 많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전문 과목 별 교재의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재로서 예를 들어 ‘한국 문학 강독’, ‘한국어 무역 실무’, ‘한국어 통번역’ 등 다양하다.

한국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에서보다 초등학교에서 비중이 크며 비교적 사용 교재가 잘 개발되어 있다. 위에서 제시된 국제교육진흥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교재가 바로 그것으로 각 단계별로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뛰어나 뛰니 해도 한국어 교재가 다양한 것은 한글학교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전 세계 96개국 1,687개교에 달하는 숫자가 나타내듯이 한글학교는 방대하게 분포되어 있다.<sup>2)</sup> 이들 한글학교는 비록 1주 1회, 1회 3시간의 매우 느슨한 교육과정이지만 여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약 95,000명으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학생 수의 대다수가 초등학교 학생이고 교육과정의 특성상 다른 교육과정의 교재를 차용하기가 어렵다. 국내의 국제교육진흥원의 교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으나 이들 교재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 교재의 개발을 지역 단위로 시도하여 많은 교재가 출판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동부지역한글학교 협의회 발간 교재, 남가주 한국학교연합회 발간의 교재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외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사용 교재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국외 한국어 교육과정과 사용 교재의 유형

교육과정 분류 1	교육과정 분류 2	사용 교재의 유형	비고
공교육 과정	중·고등학교	교사 작성의 임시 자료 국내·현지 발간의 성인용 교재	일본 지역은 현재 교재 개발하여 시험적으로 사용중임
	대학 (한국어 전공)	국내 발간 교재 현지 개발 교재 ‘한국어 무역실무’ 등 과목 별 교재 교사 작성의 임시 자료	미국과 중국의 일부 대학은 지역 별 공동 개발 교재
	대학 (기초교양과목)	국내 발간 교재 현지 발간 교재 교사 작성의 임시 자료	
	한국학교	국제교육진흥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발 교재	

2)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작성 대통령 보고 자료에 근거한 숫자임

교육과정 분류 1	교육과정 분류 2	사용 교재의 유형	비고
기타 교육과정	한글학교	국제교육진흥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발 교재 지역 별 한글학교 연합회 개발 교재 교사 작성의 임시 자료	각 등급 별 교재는 주로 6단계로 되어 있음 기능 별 교재로는 읽기 교재가 대표적임 범주 별 교재로는 발음, 한자, 문법이 대표적임
	사설 학원	국내 발간 교재 현지 개발 교재 교사 작성의 임시 자료	사설 학원은 일본, 중국, 미국의 순으로 많으며 기타 지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2.1.2 한국어 교수요목과 교재

교육과정이 설정이 되면 다음으로 교수요목을 작성해야 한다. 교수요목은 교육 내용을 상세화하고 교수-학습의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다. 즉 어떤 교과목의 전 과정에 대한 학습 항목을 배열하여 구체화시켜 놓은 계획이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과목의 기본 정신과 철학을 단계에 따라 계획으로 전환하는 교수-학습 요소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의미한다(배두본 2000;46~47). 외국어 교육에서의 교수요목은 교육 목표의 실천을 위해서 단원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 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를 연결해 주는 교재와 또한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언어를 가르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은 언어를 무엇으로 보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구조주의 관점에서는 언어를 문법과 규칙 체계로 보았으며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변형생성 문법과 인지주의 학습이론이 대두된 이후에는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주어졌다. 즉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문법, 언어 규칙과 같은 구조의 학습이 주를 이루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언어의 의미와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이후 1972년 Hymes가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개념을 제기한 이후에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대변하는 주된 교수요목은 McKay(1978)가 제시한 구조적 교수요목(structural syllabus), 상황적 교수요목(situational syllabus), 개념적 교수요목(notional syllabus)이다. 이후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교수요목 논의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논의 중 하나로 Yalden(1983)은 구조기능적 교수요목(structural-functional syllabus), 다양한 초점의 교수요목(syllabus of variable focus), 기능 교수요목(functional syllabus),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요목(fully communicative syllabus)을 제시했다. 외국어 교육 교수요목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로서 J. D. Brown(1995)의 논의가 있다. J. D. Brown은 지금까지 논의된 교수요목을

종합하여 ① 구조 교수요목(Structural syllabus), ② 상황 교수요목(Situational syllabus), ③ 주제 교수요목(Topical syllabus), ④ 기능 교수요목(Functional syllabus), ⑤ 개념 교수요목(Notional syllabus), ⑥ 기능 기반 교수요목(Skills-based syllabus), ⑦ 과제 기반 교수요목(Task-based syllabus), ⑧ 혼합 또는 다층 교수요목(Mixed or layered syllabus)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외국어 교수요목

교수요목	기본 개념	한국어 교재와의 관련성
구조 교수요목	음운, 문법과 같은 언어 구조를 중심으로 작성한 교수요목. 배열 기준은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빈도 수가 많은 것로부터 적은 것으로, 의미 기능이 간단한 것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배열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교재가 채택한 주된 교수요목임
상황 교수요목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한 교수요목. 식당에서, 길에서, 지하철 역에서, 시장에서와 같이 발화 장면을 중시한다.	최근에 일부 교재에서 중심적인 교수요목으로 채택하고 있음
주제 교수요목	각 등급에 맞춰 채택된 주제를 일정 기준에 따라 배열한 교수요목이다. 대체로 상황 교수 교수요목과의 혼합 형태를 보여 준다. 가족, 날씨, 음식, 전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에 개발되는 한국어 교재에서 주로 채택하는 교수요목임
기능 교수요목	소개하기, 설명하기, 요청하기, 제안하기 등 언어 활동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작성한 교수요목이다. 주로 주제 교수요목과 연계되어 사용된다.	최근에 개발되는 교재에서 때때로 채택되었음
개념 교수요목	물건, 시간, 거리, 관계, 감정, 용모 등과 같이 실생활 관련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작성한 교수요목이다. 유용성이나 친숙도에 따라 배열한다.	때때로 주제 교수요목이 일부가 포함되기도 하였음
기능 기반 교수요목	대의 파악, 주제 파악, 화자 의도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과 같이 언어 기능 중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배열한 교수요목이다.	주로 이해 기능으로 이 분야 교재가 매우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 채택된 사례를 찾기 어려움
과제 기반 교수요목	지시에 따르기, 편지 쓰기, 면접하기, 신청서 작성하기 등과 같이 실생활 과제 중심으로 배열한 교수요목이다.	주제 교수요목 등과 함께 때때로 채택되고 있음
혼합 교수요목	둘 이상의 교수요목을 함께 활용하여 작성한 교수요목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최근의 대부분의 교수요목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개발되는 교재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음

이 이외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을 고려할 때 문화 교수요목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교수요목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교재 개발과 관련한 교수요목의 채택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특성,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교수방법과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 주제 교수요목을 주로 하고 상황 교수요목과 구조 교수요목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상황 교수요목을 주로 하고 기능 교수요목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등 복합형 교수요목의 채택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최근에 개발된 한국어 교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적절히 반영되었다. 다음은 최근에 개발된 한국어 교재의 교수요목의 실례이다.

<표5> 한국어 교재에 채택된 교수요목의 예1(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개발 초급 읽기 교재)

단원	주제	기능	어휘	문법	과제
1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물 소개의 글 이해하기</li> <li>명함에서 정보 파악하기</li> </ul>	국적 직업	-은/는 -입니다. -은/는 -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명인에 대한 설명 읽기</li> <li>명함 읽기</li> <li>자기 소개의 글 읽기</li> </ul>
2	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적인 동작 파악하기</li> <li>펜팔 편지 이해하기</li> </ul>	동작 사물	-은/는 -비/습니다. -은/는 -을/를 -비/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적인 동작을 서술한 글 읽기</li> <li>펜팔 편지 읽기</li> </ul>
.	.	.	.	.	.
.	..	.	.	.	.

<표6> 한국어 교재에 채택된 교수요목의 예2(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2)

단원	단원명	주제	기능	문법/어휘/발음	과제활동	한국문화/게임
1	주말에 무엇을 하실 거예요?	휴일	계획 말하기	-만 -(으)르 거예요 준말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간 계획 짜기</li> <li>반 친구들의 주말계획 물어보기</li> </ul>	한국의 공휴일
2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전화(1)	부탁하기 확인하기	-아/어 주다 -에게/한테/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화/이메일 주소록 만들기</li> <li>자유 게시판에 글 올리기</li> </ul>	한국의 주요 전화번호
.	.	.	.	.	.	.
.	.	.	.	.	.	.

## 2.2 학습자 요인과 교재

최근 외국어 교육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learner-centered instruction)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함으로써 교사 보다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교수 학습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교수법의 개발 및 적용, 교재의 개발 등 모든 측면에서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 또는 제2언어 학습에서 강조되는 학습자 요인은 인지적 요인(cognitive factors), 정의적 요인(affective factors), 사회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factors)으로 나뉜다. 그러나 교재와 관련하여 학습자 요인을 논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가,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가? 일반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대부분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든 국내든 한국어 학습 과정을 마친 후에 이들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한국어 사용 환경이 아닌 외국이라고 볼 때 주제 및 소재, 과제와 기능, 내용과 맥락 등 교재 내용 구성은 이들의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으로의 여행, 단 기간 한국에서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상황 등이 초급 단계에서 깊이 고려된다면 외국 소재 한국 회사 근무, 한국과의 비즈니스 수행 등은 중고급 단계에서 중요한 주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산업체 연수생용 교재와 같이 국내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라면 초급부터 고급까지 한국 상황이 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heritage 학습자인가, non-heritage 학습자인가? 이는 한국어 교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인이다. 단순 숫자 면에서 전세계 한국어 학습자 중 절대 다수가 heritage 학습자이다. 한글학교 등 교포 대상의 비정규 프로그램은 물론 미국 내 대학에서 heritage보다 non-heritage 학습자가 많은 대학은 BYU(Brigham Young University)가 유일하다. 그 밖에 몇몇 대학이 현지인 학생 수가 전체 학생의 절반에 가까우나 그 밖의 대학은 heritage 학습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바로 heritage 학습자의 주요 특징을 반영한 교재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기, 듣기 능력에 비하여 떨어지는 쓰기와 읽기 능력, 어휘나 문법 학습에서 의미/기능의 이해보다는 형태상 부정확성 노출,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정서와 한국어를 통한 민족 교육적 측면 등이 교재 개발의 곳곳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heritage 학습자용 교재라면 초급 단계에서 가족 호칭의 광범위한 제시와 정확한 사용, 담화체 등 언어 내적인 요인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 예절 등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으며 중고급으로 올라가면서 한국의 풍습, 사회문화적 특성은 물론 단군신화와 같은 민족 교육적 함의를 가진 주제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해질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모국어가 무엇인가? 교수 활동에서 학습자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조분석학적인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 음운, 형태, 통사, 어휘적 측면에서 학습자 모국어 체계와의 비교 접근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도 유발시킨다. 그 결과 학습자의 성취 수준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과정(learning process)과 학습 전략(learning strategy)을 교사가 간과할 수 있고,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 적확하게 교정해 줄 수도 있다. 이는 교재의 개발과 사용에서 깊이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최근 일부 교육기관은 특정 언어권을 주 대상으로 삼아 교육과정을 재편한다거나 교수요목을 개발하는 등 이에 맞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재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습자 집단이 특성화될 경우 대조분석학적 접근의 도입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상황의 설정이나 맥락의 구성에서도 학습자 변인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어 학습 목적이 무엇인가? 최근 외국어 교육계에서는 학습 목적에 따른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재, 교수법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는 주로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AP(English for Academic Purposes)라는 이름으로 쟁점화되었으며 내용 중심의 학습(Content-based Learning)이라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을 출현시켰다. 한국어 교재와 관련하여 이미 선교사 한국어 교본 등 전문 영역에 종사하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기도 하였으나 기존의 교재 대부분은 일반적 목적의 한국어(Korean for General Purposes)이다. 다만 중국 등 복합인재를 목표로 하는 지역에서 무역실무, 통역론 등의 교재를 개발한 것은 이 분야와 관련한 좋은 사례가 된다. 최근 한국어 학습 목적들이 다양해진 시점에서 학습 목적에 따른 교재의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3. 교재 개발론

#### 3.1 교재 개발의 기본 원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재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요목에 따라 실제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교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그리고 학습자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담는다. 이는 곧 교재가 담고 있는 내용이나 언어 자료의 배열 방법, 이와 관련한 교수법 등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의미한다. 그만큼 교재의 개발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것이다.

교재의 개발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이론과 실재를 병행하는 일이다. 한

국어 교육은 현장성이 중시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론적인 연구는 실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적인 산출 또한 이론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재 개발과 관련한 이론의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교재 개발 목적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개발 당시의 외국어 교육원리에 따라 개발하고 시험 사용과 실제 사용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거 구조주의 언어학이 풍미하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개발되는 교재들은 구조 중심의 교재이었고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확고히 자리 잡은 1990년대 이후의 교재들은 과제 수행 중심의 교재가 주를 이룬다.

최근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기존의 교재를 분석하면서 새 교재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고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설계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재가 되어야 한다.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의 설정은 교재가 사용될 교육기관이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바가 되고 학습자에게는 학습의 목표 설정이 된다. 이것이 올바르게 진행이 될 때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이 가능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교재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둘째, 학습자 요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의 한국어 교육 환경은 과거에 비하여 매우 다양해졌다. 학습 목표, 동기, 연령, 직업, 모국어, 인지적 배경, 정서적 측면, 한국어 학습 경험 정도 등에서 매우 다양해졌다. 학습자 요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소재/주제, 기능, 문화 등 교재의 내용 구성과 각 단원의 구성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할 교재의 종류와 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물론 교육과정, 교수요목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교재만을 개발할 것인지, 교사지침서와 워크북을 함께 개발할 것인지, 각 기능별로 분리된 교재를 개발할 것인지, 통합 교재를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 교재의 성격과 내용은 분명하게 결정될 것이다. 최근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주교재와 워크북의 동시 개발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일부 국가 주도의 교재 개발 사업에서는 교사지침서까지 포함하고 있다.

넷째, 어휘, 문법, 문화, 발음과 같은 교재 내용 구성에 있어 이론적 뒷받침과 함께 경험적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휘의 경우 최근 국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를 적절하게 포함시켜야 하며 문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임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발음은 표준 발음의 교육을 목표로 하되 대상 학습자에 따라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가 달라져야 할 것이며 문화 역시 교육 목표 또는 학습자 요구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하게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재의 구성이 필요하다. 외국어로서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지적 수준은 한국어 숙달도와는 무관하다. 즉 한국어 숙달도가 낮다고 해서 주제/소재의 선정이나 내용/맥락의 구성이 계속하여 평이하다면 학습자는 곧 학습 의욕이 떨어지거나 동기가 저하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한국어 교수법이 과제 수행 중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실제 수업 현장에서 가제로 전환될 경우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걸맞는 수준으로 교재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내용 또한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전이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재는 학습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학습 진도에 맞춰 학습자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교사의 지도를 받아 성취 수준을 평가받는 기제의 설정이 필요하다.

## 3.2 교재 개발의 단계

### 3.2.1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요목의 설정

위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실제 교재 개발 단계에 들어갈 때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설정은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이미 기존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과정에 대한 절차는 생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재 개발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교수요목의 개발은 교재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어느 교수요목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에 중심이 되고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요목이라면 주제/소재, 과제/기능, 언어(어휘, 문법, 발음), 문화, 내용/맥락 등이 구성되어야 교재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교수요목의 내용은 각 단원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초급의 주제에 해당하는 ‘물건사기’라면 학습 목표를 ‘한국어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물건사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주제는 ‘물건사

기'가 될 것이며 소재는 '백화점에서 일상용품 사는 일' 또는 '시장에서 식료품 사기'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과제/기능으로는 '값 묻기', '(물건을 보여 달라고 하는 일과 같은)간단하게 요청하기' 등이 될 것이다. 어휘와 문법은 주제/소재에 따라 과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물건사기'라면 간단한 소품 이름, 한국의 화폐 단위, 숫자 관련 어휘, '사다', '팔다', '주다'와 같은 행위 관련 기본 어휘, '싸다', '비싸다'와 같은 물건 값 관련 형용사가 요구될 것이다. 내용과 맥락으로는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백화점에서 일상용품을 사는 내용', '백화점에서 식료품을 사는 상황' 등을 생각할 수 있고 문화로는 '한국의 시장', '한국의 화폐단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3.2.2 단원의 구성

교수요목이 완성되면 다음으로 각 단원을 구성해야 한다. 단원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교수요목에 기반을 하나 교수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 구두청각교수법이 중심이었을 때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은 대체로 '대화문 → 어휘 → 문법/문형 → 연습'의 순서였다. 그러나 최근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중심을 이루면서 단원의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와 준비 도입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학습 과정을 중시한 구성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 논의는 Larsen-Freeman(1993)으로 도입(warm up) → 제시·설명(presentation) → 연습(practice) → 사용(use, communicative phase) → 마무리(follow up)를 들 수 있다. 최근에 한국어 교재와 관련해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대표적인 논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백봉자 외(1997) 준비 단계(표제, 도입) → 제시 단계(대화, 단어, 발음, 문법) → 연습 단계(문형연습, 기능연습) → 문화 소개(기능 연습 병행) → 부록(책 사용법)

원진숙(1999) 준비 도입 단계 → 제시 단계 → 연습 단계 → 실제 활용 단계 → 확인 점검 단계

김정숙 외(2001) 학습 목표 → 들어가기 → 어휘 → 문장 읽기(연습 포함) → 과제 → 새 단어 → 마무리 → 문화 → 자기 평가

이를 볼 때 한국어 교재에 있어 단원의 구성은 준비 도입으로부터 마무리, 자기 평가까지 각 단계가 점점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원 설정에 있어 최근에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는 것들이 있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원 구성에 있어 과제의 도입과 위치 설정이다. 최근의 교수 원리에서 과제 수행 중심의 교수법, 교재 개발이 중시되는 만큼 과제의 도입은 필수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느 단계에 설정할지 하는 것은 교수요목과 교수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어휘, 문법/문형 학습 등 각 단계 별로 제시할지, 아니면 이를 종합하여 끝 부분에 제시할지 등은 논의거리가 된다.

둘째, 초급의 경우 발음 기호의 제시와 번역의 문제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교재가 본문을 로마자화하여 국제 발음 기호를 통해 독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실제성을 강조하는 만큼 기호화한 발음은 학습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아닌 독학의 경우 실제 발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만큼 발음 기호의 표기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 말 개발된 한국어 교재 중 유일하게 경희대학교 초급 교재에서는 어휘에 발음 기호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외는 반대로 의미를 중시하는 최근의 흐름은 본문의 의미를 번역해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다. 시청각 자료는 교재 내용의 실제성을 높이는가 하면 학습 활동에 input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 시청각 자료의 활용 가치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들 자료를 활용할지는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 3.2.3 교재 내용의 구체화

이상에서 단원 구성 원칙이 서면 교수요목과 단원구성 원칙에 따라 교재 내용을 구성한다.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에 따라 위 아래 단원과의 연계에 관심을 갖고 주제/소재-과제/기능-어휘 등과 같이 단원 내 하위 구성 요소의 횡적인 연계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시각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려하고 전체적인 편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언어 재료의 선정과 조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3.2.4 시험적 사용과 수정, 보완

일단 단원의 구성이 완료되면 시험 사용의 단계로 들어간다. 시험 사용은 개발 과정에 따라 각 단원별로 진행할 수도 있고 교재 전체가 완성된 후 시행할 수도 있다. 시험 사용은 교재 출간 후 사용될 학습 환경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수정, 보완하여 출간을 하게 되는데 시험 사용 시에 문제가 많은 경우 다시 한번 시험 사용의 기회를 갖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교재 개발의 단계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목표 수립→교육과정 설정→교수요목 설계→단원 구성→교재 내용 구성→시험 사용→수정, 보완→평가
--

### 3.3 내용의 선정과 구성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교재에 담길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교재에 담은 내용은 교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소재/주제, 발음, 어휘, 기능/과제, 문법/문형, 담화 유형, 문화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sup>3)</sup>

소재/주제란 의사소통 활동 과정에서 처리하고 생산해야 하는 의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재/주제는 교재의 구성에 있어 하나의 단원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하여 어휘, 문법, 기능/과제, 문화 등이 관련성을 갖고 선정, 배열된다. 일반적으로 소재/주제의 단계 별 선정, 배열은 몇몇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즉, 저급에서는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주제가 포함이 되어야 하고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공공성, 사회성을 갖는 소재/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어진 소재/주제를 단계 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8> 기존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소재/주제

등급	소재/주제
초급	소개, 물건, 활동, 동작, 가족, 취미, 주말, 인사, 일과, 일상생활, 물건사기, 가격, 장소, 위치, 시간, 날짜, 요일, 계절, 식당, 음식, 전화, 신체, 병, 운동, 약속, 계획, 감정, 거리, 고향, 공부, 교통, 규칙, 모양, 방학, 색, 생일, 여행, 영화, 우체국, 은행, 병원, 학교, 집, 직업, 가구, 초대, 친구
중급	운동, 습관, 예절, 버릇, 전통, 언어, 국가, 문화, 가족제도, 환경, 공해, 인구, 숙담, 관용어, 교통, 사건, 사고, 실수, 인물, 모양, 외모, 성격, 태도, 규약, 생활, 조리법, 기계, 결혼, 우정, 육아, 직업, 직장, 업무, 취업, 꿈, 병원, 여행, 공공장소, 유행, 영향, 생산과 소비, 인간, 노인, 행사, 미신
고급	역사, 제도, 가치, 전통, 문화, 국가, 환경, 지구, 우주, 생명과학, 경제, 정책, 정치, 교육, 국제관계, 숙담, 과농어, 현상, 사건, 태도, 규약, 인생, 인간의 능력, 과학, 철학, 권리와 의무, 업무, 공공장소, 통일, 미래사회, 관혼상제, 명절

3) 이 중에서 발음, 어휘, 문법/문형은 언어 내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하나로 묶어 언어로 지칭하여 살피기로 한다. 한편 기존 교재 분석과 관련하여 소재/주제, 기능/과제, 언어, 담화유형 관련 부분은 필자가 참여하여 진행한 김왕규 외(2002)의 기존 한국어 교재 분석 부분에 힘입은 바 큼을 밝힌다.

기능/과제는 언어를 사용하여 실제 사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기능)와 의사소통 활동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과제)을 말한다. 같은 소재/주제에 여러 가지 기능/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물건사기’를 주제로 했을 때 ‘값 묻기’, ‘간단하게 물건 사기’, ‘물건 값 흥정하기’, ‘반품 요청하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기능/과제를 등급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9> 기존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기능/과제

등급	기능/과제
초급	질문하기, 대답하기, 거절하기, 교통편 이용하기, 길 묻기, 명령하기, 묘사하기, 제안하기, 물건 사기, 병원 이용하기, 부탁하기, 설명하기, 소개하기, 약속하기, 요청하기, 우체국 이용하기, 은행 이용하기, 전화하기, 주문하기, 간단한 광고·안내문 이해하기
중급	설명하기, 비교하기, 묘사하기, 기술하기, 비유하기, 거절하기, 후회하기, 제안하기, 충고하기, 일기예보 읽기, 신문기사 읽기, 함축적 의미 이해하기
고급	설명하기, 묘사하기, 추론하기, 논증하기, 논술하기, 토론하기, 요약하기, 공식적 자리에서 발표하기, 업무 관련 서류 작성하기, 보고서·논문 작성하기, 함축적 의미 표현하기

담화 유형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특히 고립된 어휘나 문장 차원보다는 의미적 결속성과 형태적 응집성을 갖는 두 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담화가 중심이 된다. 이는 실제 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데 기존의 교재가 담고 있는 담화 유형을 등급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기존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담화 유형

등급	담화 유형
초급	문장, 대화문, 실용문, 생활문, 설명문, 메모, 초대장, 안내장, 표지, 광고, 일기예보, 편지
중급	문단, 대화문, 실용문, 생활문, 설명문, 메모, 광고, 안내문, 일기예보, 신문기사, 방송 자료, 수필, 옛날 이야기, 동화, 우화, 편지, 서식, 설문지
고급	문장, 대화문, 실용문, 설명문, 논설문, 안내문, 신문 기사, 방송 자료, 수필, 옛날 이야기, 동화, 시, 소설, 비평, 담화문

언어는 발음, 어휘, 문법 등과 같이 언어 내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의사소통 활동에 있어 격식과 맥락에 따라 형식적·의미적으로 적절하게 이해되고 생성될 수 있어야 한다. 최근까지 한국어 교재가 가장 치중했던 영역으로서 나름의

기준에 따라 선정, 배열해 왔으나 최근에는 한국어 학습용 기초 어휘의 선정이 과학적,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법 항목의 선정 및 등급 배열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아직 최종적인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한 상태로서 기존의 교재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기존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언어 내적 요소

등급	언어 내적 요소
초급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기본적인 어휘, 주변의 사물, 위치 관련 어휘, 기본적인 동사와 형용사, 자주 사용되는 빈도 부사, 공공시설 이용 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휘, 자주 접하는 고유명사 문장의 종류, 어순, 시제, 관형사형, 기본 조사, 종결형 어미, 기본 연결어미, 빈도 높은 표현, 부사형, 격식체와 비격식체, 구어체와 문어체, 불규칙 활용, 자주 쓰이는 표현, 사동법과 피동법, 간접화법
중급	일상생활과 관련한 일반적인 어휘, 추상적인 어휘, 업무나 사회 현상과 관련한 어휘, 감정 표현 어휘, 기본적인 한자어,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전문 어휘, 빈도가 높은 관용어와 속담, 일반적인 사회현상과 관련한 핵심적인 개념어 사동법과 피동법, 간접화법, 복잡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어미 중 사용 빈도가 높은 것, 사용 빈도가 높은 문법적·구조적 표현
고급	사회 현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추상적인 어휘, 사회의 전문적 영역과 관련한 어휘, 복잡한 의미를 갖는 속담이나 관용어 사용 빈도가 낮은 문법적·구조적 표현, 특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표현

마지막으로 내용의 선정에 있어 문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개발되는 한국어 교재들이 문화 요소를 깊이 고려하고 있음은 최근의 외국어 교육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일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최근에 개발된 교재들이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여기에서는 초급 단계 교재를 대상으로 정리한다.

<표12> 기존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문화 요소

등급	문화 요소
초급	한국인의 이름, 한국의 옛날 집, 가족의 호칭, 주부들의 주말, 한글과 세종대왕, 돌과 회갑, 태권도, 식사예절, 서비스전화번호 안내, 한국인의 여가 활동, 태극기/애국가/아리랑,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기후, 한국사람과 수, 백일/돌/환갑, 한국음식, 생활 속의 미신, 한국의 화폐, 호칭, 가족관계, 한국의 결혼, 한국지도와 관광지, 한복, 근무시간, 재미있는 의성어, 인사법, 사회위계와 호칭, 명함 교환, 친구/친지 소개, 사회위계와 종결형, ‘우리’ 개념과 사용, 가족 호칭의 확대 사용(친구/친지 등), 주택의 종류, 달력(양력과 음력), 서울, 서울의 지하철 체계, 한국인의 사적 질문(나이 묻기 등), 한국의 시장, 김치, 한국의 상차림, 한국의 공휴일, 한국의 명절, 한국인의 몸짓언어, 사물놀이

이상에서 기존 한국어 교재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몇몇 범주 별로 알아보았다. 교재 개발 시 포함해야 할 자료의 선정은 몇몇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ackey(1965)에서 논의했듯이 학습 목적(purpose), 학습자의 언어 수준(level), 학습 기간(duration)에 따라 적절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흥미가 있어야 한다(interesting). 이를 위하여 사실적 자료를 제시하고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셋째, 지적으로 자극적이어야 한다(intellectually stimulating). 포함되는 자료는 언어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지적으로 자극을 받아 학습 의욕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challenging). 교재에 포함된 내용이 학습자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도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authentic). 교재에 포함된 내용은 실제성을 갖춰야 한다.

여섯째, 적절성을 가져야 한다(relevance). 교재에 포함된 내용은 사회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적절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선정되는 자료는 그 자체로서 명료해야 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하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학습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 4. 교재 평가론

### 4.1 교재 평가론의 의미와 평가 기준

일반적으로 교재 평가론은 이상적인 교재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고, 기존 교재에 분석이 병행됨으로써 경험적 데이터를 얻어 체계적인 교재 개발에 기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관 교재를 갖고 있지 교육 현장에 교재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 평가론과 관련해서 활용된 분석들은 주로 외국어, 특히 영어 교재 분석들로부터 도움을 얻었다 여기에 주로 인용된 몇몇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eville Grant(1987)의 교재 평가를 위한 사전 조사 항목>**

- ① **Communicative(의사소통성)**: 교재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가?
- ② **Aims(목표성)**: 교재가 프로그램의 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는가?
- ③ **Teachability(교수성)**: 실제 이 교재로 가르칠 때 어려움이 없고, 각 교수 방법론과 밀접하게 연관되는가?
- ④ **Available Add-ons(부교재)**: 교재에 뒤따르는 지침서나 테이프, 워크북 등이 존재하는가?
- ⑤ **Level(등급성)**: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
- ⑥ **Your impression(매력성)**: 교재 전체 과정에 대한 인상이 어떠한가?
- ⑦ **Student interest(흥미성)**: 학습자가 교재에서 어떤 흥미를 찾아낼 수 있는가?
- ⑧ **Tried and tested(검증)**: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검증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

**<Stevick(1972)의 교재 평가 기준>**

- ① 세 가지의 정성 분석(qualities): 첫째는 학습자 요구에의 적합성, 자료의 사실성, 학습자 만족도, 실생활 활용성과 관련한 강도(strength-weakness)이며 둘째는 단원 별 자료량과 각 행의 문장량의 정도와 같은 경중(lightness-heaviness), 자료의 일관성, 문법 항목, 문장 구조가 얼마나 간결한가와 같은 투명성-명확성(transparency-opacity)의 세 가지 기준에서의 분석
- ② 세 가지 차원의 분석(dimensions): 언어적 차원, 사회적 차원, 주제적 차원과 같은 내용 문제
- ③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components): 단원마다 언어 사용 기회, 소통 사례 제시, 어휘 선택 능력 개발, 언어 구조 이해 내용 포함 여부에 따른 분석

한편 국내의 영어 교육계에서 제시하는 영어 교재 평가 기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대표적인 논의로 배두분(1999)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적합한가? 즉 교육과정과의 일치, 학습자 수준, 학습 동기 유발, 학습목표 제시, 자료의 타당성, 소재와 활동의 다양성, 연습문제의 적정성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둘째, 구성은 어떠한가? 즉, 단원 길이와 학습량, 차례의 배열과 소재의 다양성, 학습목표 제시 여부, 자료의 타당성, 소재와 활동의 다양성, 연습문제의 적절성 등

을 평가한다.

셋째, 교수 적합성은 어떠한가? 자료 배열의 일관성, 자료 내용의 유용성, 통합 지도 가능성, 보조교구 사용, 학습자 중심 수업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넷째, 언어적 적절성은 어떠한가? 즉 자료의 신빙성, 제시 상황과 주제의 적합성, 구문의 균등 분포, 자료의 재미와 유용성 등이 어떠한지를 평가한다.

다섯째, 교수-학습 활동 유형은 어떠한가? 즉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지, 학습자 활동을 극대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여섯째, 실용성은 어떠한가? 즉 그림, 예제, 지도, 도표, 색인표, 활자와 인쇄, 오자와 탈자 여부 등과 같은 형식과 실용도를 평가한다.

이상의 논의는 한국어 교재 평가를 교육과정의 측면, 학습자의 측면, 교사의 측면, 사회적 관점,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할 것을 제기한다. 교육과정의 측면이란 우선 교재가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가 제1의 관건이 된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평가 방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가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학습자의 측면은 교재가 학습자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고 흥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자의 인지적 배경과 선수 학습 수준을 고려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교사 측면에서 볼 때 교사의 외국어 교수법 이론과 관련한 배경이 고려되었는지를 봐야 하고 교사의 수업 준비, 진행,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고려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교재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적절한지, 그리고 교육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지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 한국어를 담고 있는지, 수업 기간과 수업 시수에 적합한 지도 살펴보아야 할 항목이다.

한국어 교재 평가와 관련한 기준이 정리된다면 다음으로 이를 종합하여 평가 모형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평가 모형은 우선 대범주 기준을 정하고 그 안에 하위 범주를 상세화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것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사용된 언어의 형태, 학습 내용 및 주제, 학습 내용의 구성, 교수법, 문화, 사회문화적 적절성, 언어의 네 기능, 발음, 어휘, 문법, 학습자 활동, 편집 및 디자인, 교사용 지도서와 워크북, CD 등 멀티미디어, 값과 같은 실용적 고려 사항

## 4.2 교재의 선택

교재 평가 기준이 완성이 되면 실제 교재를 선택하기 위한 평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를 위한 고려 사항이 복잡하고 수적으로도 많은 만큼 이를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범주 또는 세부 항목 별로 가중치를 두어야 할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교재 선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시험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 과정 및 교수 요목[가중치 부여 여부: 없음, 중간, 높음] <계량화 방법>

- 교육 과정의 목표를 적절히 반영하는가?
- 교육 과정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 교육 과정에 제시된 평가 방법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 효과적인 교수 요목을 가지고 있는가?

### 내용 및 구성[가중치 부여 여부: 없음, 중간, 높음] <계량화 방법>

- 교재 전체의 내용 연계가 적절한가?
- 언어의 네 기능의 학습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가?
- 문법, 어휘 및 발음 영역의 학습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가?
- 제시된 과제가 적절한가?
- 학습자 주도적인 개인 학습이 가능한가?
- 내용 제시가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체계적인 복습이 가능한가?
- 삽화, 사진 등 시각자료가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가? 그리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가?
-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가?
- 각 단원의 학습 내용의 분량이 학습 기간 및 수업 시수에 적절한가?

### 학생습자의 수준과 필요[가중치 부여 여부: 없음, 중간, 높음] <계량화 방법>

-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는가?
-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는가?
- 학습자의 환경을 고려할 때 내용이 실용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실용적 측면[가중치 부여 여부: 없음, 중간, 높음]****<계량화 방법>**

- 값이 적절한가?
- 쉽게 구할 수 있는가?
- 인쇄, 편집, 디자인 상태가 매력적인가?

이 밖에 교사용 지도서, 워크북, 오디오/비디오/CD의 포함 여부 및 그 수준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선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설정하여 담을 필요가 있다.

**■ 학습과제**

1. 교육과정이나 교수요목에서 교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2. 한국어 교재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3. 교재개발의 기본 원리로서 수행중심 교수원리를 교재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 참고문헌**

- 권미정(199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연구 : 기존교재의 검토와 새 모델의 모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권순희(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 서울사대 국어교육연구소 3. pp.1-19
- 김영기(199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론적 배경, 효과적 교수법과 교재 개발", 교육한글 4.
- 김영만(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 외국어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영숙(1999), "영어 교재론", 김영숙 외, 영어과 교육론 - 이론과 실제 -, 서울: 한국문화사.
- 김영아(2001), "호주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방향",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왕규, 김정숙, 조항록, 정구향, 조지민, 김수정(2002),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2002.
- 김유정(2001), "초급 교재에서의 주제-기능-문법의 상관성,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

- 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김정숙(2001),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의 과제 구성의 실제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정숙, 조항록, 김유정, 이미혜, 정명숙(2001), “한국어” 초급(읽기·쓰기) 실물 교재 개발 최종 보고서, 한국어세계화재단·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 교육 제1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중섭, 이관식(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0권 1호.
- 노명완(1998), “한국어교육 자료의 개발 실태와 평가”, 1998년도 이중언어학회 전국 학술대회논문집.
- 노명완(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라혜민, 우인혜(1999), “한국어 교재의 효율적 개발 방안“, 한국어교육 제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개발 방향,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제2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민현식(2002), “한국어 교재론”, 동남아 한국어 교육의 오늘과 내일, 국제한국어교육 학회·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 워크숍 발표논문집.
- 배두분(2000), 외국어 교육 과정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백봉자(1991),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 교육한글 4. 한글학회.
- 백봉자(1999),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제 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봉자, 손연자, 조항록(1997), 신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 문화체육부 정책연구과제.
- 서상규(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과 말뭉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서혁(199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와 교재구성의 방향”, 신청어문 2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안경화, 김정화, 최은규(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제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원진숙(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국어교육 99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관규(1995), “한국어 교재의 구성 원리와 내용”, 이중언어학회지 12.
- 이동재(1999), “교재 개발과 평가-영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제9차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 이성희(2001), “영어 교재 평가 모형 연구”, Foreign Language Education, 제8권 1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이정노(2000),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개발 방향,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제2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이해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 제12권 1호,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1),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제1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 교육 제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 강승혜(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요목의 개발(1)”, 한국어 교육 제1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현룡(1998), “한국어 교육 자료의 체제 분석”, 이중언어학회지 15, 이중언어학회.
- 지현숙(2001), “웹 기반 한국어 교재 개발의 쟁점”, 한국어 교육 제1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정순(1997), “개발자로서의 교사-교재 개발 및 교과 과정 개발에서의 교사의 역할”, 한국말교육 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Brown, H. D.(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2nd edition)*,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Brown, J. D.(1989), *Language program evaluation: A synthesis of existing possibilities*, in R. K. Johnson (ed.),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J. D.(1995), *The Elements of Language Curriculum: A Systematic Approach to Program Development*, Newbury House Teacher Development.
- Cunningsworth, A.(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Oxford: Heineman.
- Dudley-Evans, T, & St John, M. J. (1998),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nt, Neville(1987), *Making the most of your textbook*, Longman Keys to Language Teaching, Longman.
- Larson-Freeman, Daine(1993), 조명원, 신규수 역, *외국어 교육의 원리*
- Mackey, W. F.(1965), *Language teaching analysis*, London: Longman.
- McDonough, J. & Shaw, C.(1993), *Materials and methods in EL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Nunan, David(1988),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hn, Ho-min(1995), "*Performance-based and Proficiency Criteria for KFL TextbookDevelopment*". 한국말 교육 6.
- Stern, H. H., 심영택 외 옮김(1995), *언어교수의 기본 개념*, 서울: 도서출판 하우.
- Wilkins, D. A.(1976), *National Syllabu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alden, J.(1983), *Communicative syllabus: Evalua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xford: Perogmon Press.
- Yalden, J.(1987), *Principles of course design for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한국어의 특징

이병규 (국립국어원 국어생활부 학예연구사)

세계에는 5,000여 종이 넘는 언어가 있다. 이 중 불과 20여 개의 언어가 세계 인구의 70~80 %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어는 사용자 수가 고작 수백 또는 수천에 불과하다. 세계 대부분의 언어는 말소리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명사와 동사가 있으며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개별 언어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 역시 지니고 있다. 한국어 역시 모든 언어가 나타내는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고유의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특징으로 여기서는 사용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구분되는 문법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한국어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의 해당 부분에서 하도록 한다.

## 1. 한국어의 분포적 특징

### ¶한국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을까?

한국어의 사용자 수는 남한 4,400만 명, 북한 2,300만 명을 합쳐서 약 6,700만 명이 있고, 중국에 약 200만 명, 미국에 180만 명, 일본에 70만 명, 구 소련 지역에 50만 명, 중남미 9만 명, 캐나다 7만여 명, 기타 지역에 13만 여명 등 호주, 유럽 등에 있는 동포들까지 합치면 사용 인구가 7,000만이 넘는다. 이처럼 한국어는 세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수 세계 13위 정도가 되는 언어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 교육, 외교 관계, 학문 교류, 구직, 한국·한국인·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 주요 언어의 사용 인구수

(단위: 백만)

	모국어로 쓰는 경우		공용어로 쓰는 경우	
	언어	인구수	언어	인구수
1	중국어	726	영어	1400
2	영어	427	중국어	1000
3	스페인어	266	힌디어	700
4	힌디어	182	스페인어	280
5	아랍어	181	러시아어	270
6	포르투갈어	165	프랑스어	220
7	벵골어	162	아랍어	170
8	러시아어	158	포르투갈어	160
9	일본어	124	말레이어	160
10	독일어	121	벵골어	150
11	프랑스어	116	일본어	120
12	자바어	75	독일어	100
13	한국어	66	우루드어	85
14	이탈리아어	65	한국어	67
15	편잡어	60	이탈리아어	60
16	마라트어	58	베트남어	55
17	베트남어	57	페르시아어	50
18	텔루구어	55	타갈로그어	50
19	터키어	53	타이어	50
20	타밀어	49	터키어	50

Crystal David. 1997.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89.

## 2. 한국어의 형태적 특징

흔히 한국어는 몽골어, 터키어, 통구스어, 만주어 등과 함께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한다. 이들 언어와 함께 한국어를 알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첨가어(교착어)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모음조화와 두음법칙이 있으며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없기 때문이다.

(1) 아이-가 꽃병-을 깨-뜨리-었-겠-더-군-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한국어는 (1)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아이’, ‘꽃병’과 같은 명

사에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가’, ‘을’이 붙어 문법적인 역할을 나타내거나 ‘깨(다)’에 ‘-뜨리-’를 붙여 ‘강조’의 뜻을 더하거나 ‘-시-’, ‘-었-’, ‘-겠-’, ‘-더-’, ‘-군’, ‘-요’를 붙여 다양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①의 ‘가’는 ‘아이’에 붙어 그 성분이 문장의 주어임을, ②의 ‘을’은 ‘꽃병’에 붙어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③의 ‘-뜨리-’는 접미사로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깨-’는 “꽃병을 깨다”에서와 같이 어근이면서 동시에 어간이기도 한데 ‘깨뜨리-’는 ‘깨-’에 ‘-뜨리-’가 붙어 만들어진 어간이다. ④의 ‘-었-’, ⑤의 ‘-겠-’, ⑥의 ‘-더-’는 모두 시간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며, ⑦의 ‘-군’은 감탄의 뜻을 보이는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한다. ⑧의 ‘요’는 다른 성분 뒤에 붙어서 말 듣는 사람을 높이는 데 쓴다. 이처럼 한국어는 어휘적 요소에 문법적인 요소를 덧붙여 단어나 어절을 만드는데 이러한 언어 유형을 첨가어라고 한다.

### ○ 돋보기 언어의 유형별 특성

언어는 유형에 따라 크게 고립어, 굴절어, 교착어, 포함어로 나눈다. 중국어, 베트남어와 같이 어근에 접사나 어미가 붙지 않고 시제나 문장에서의 역할이 독립된 단어나 어순에 의해 표시되는 언어를 고립어라고 한다.

#### (1) 武松打虎(무송이 호랑이를 잡다.)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립어는 접사나 조사, 어미 등의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어 아무런 요소가 붙지 않고 ‘打’ 자체로 서술어가 된다. 또 서술어 ‘打’의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武松은 주어가 되고 虎는 목적어가 된다.

한편, 라틴어, 러시아어, 고대 희랍어, 산스크리트어처럼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녹아 붙어서 이들을 분석하기 어려운 언어를 굴절어라고 한다. 영어, 독어, 불어 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 언어에서는 어느 부분이 시간이나 복수를 나타내는지 어느 부분이 주어나 목적어임을 나타내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 (2) 가. took[tuk](영어: take[teik]의 과거형), children[ʃildrən](영어: child[ʃaɪld]의 복수형)  
 나. puer(라틴어-소년, 남성, 단수, 주격), pueri(남성, 복수, 주격), puerum(남성, 단수, 대격)

(2가)의 took에서는 어느 부분인 어근이고 어느 부분인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인지, children에서는 어느 부분인 어근이고 어느 부분이 복수 접사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2나) 라틴어의 각각의 예에서도 성, 수, 격을 나타내는 부분인 어느 부분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어의 성질과 매우 다르다.

첨가어, 고립어, 굴절어 외에도 포함어라는 것이 있다. 이에에는 에스키모어, 인디언어 중 일부가 여기에 포함된다. 포함어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나 형용사 등도 접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분석할 수 없을 만큼 엉켜 붙어 있어 마치 한 문장이 하나의 단어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 유형이다.

- (3) illu- mi- niip- puq  
 house his be-in 3인칭-단수-직설법  
 ‘그는 자기 집에 있다.(He is in his (own) house)’

그러나 각각의 언어는 어느 한 가지 유형적 특성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이 중의 어느 한 가지 특징을 주로 하고 다른 특징이 섞여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어는 첨가어이지만 굴절적인 요소가 섞여 있고 일본어의 경우도 첨가어 범주에 들지만 한국어보다 굴절적 요소가 더 많다. 영어도 굴절어로 분류되지만 고립어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 3. 한국어 문장의 특징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특징은 문장, 단어, 소리, 사회·문화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 한국어 어순의 특징은 무엇일까?

언어마다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체로 ‘주어+서술어+목적어(SVO)’, ‘주어+목적어+서술어(SOV)’, ‘서술어+주어+목적어(VSO)’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서로 문장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언어에는 일본어, 몽고어, 터키어, 미얀마어, 힌디어 등이 있다. ‘주어+서술어+목적어’ 유형의 언어에는 핀란드어, 이탈리아어, 타이어, 노르웨이어

가 있으며 넓게 보아 영어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서술어+주어+목적어’ 유형에는 히브리어, 마오리어, 웨일스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에서는 모든 문법적 요소가 반드시 어간이나 어근 뒤에 온다. 즉 조사는 명사 뒤에 붙고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쓰인다.

(2) 아이가 사과를 먹는다.

(2)에서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가’,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를’은 각각 명사 ‘아이’와 ‘사과’ 뒤에 붙어서 쓰이며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어미 ‘-는다’는 동사 ‘먹다’의 어간 ‘먹-’ 뒤에 붙는다. 또 한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배열도 ‘주어(아이)+목적어(사과를)+서술어(먹는다)’ 순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또 다른 어순상의 특징은 수식어는 항상 피수식어 앞에 온다는 것이다.

(3) 가. 푸른 하늘에 큰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나. 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3가)는 ‘푸른’과 ‘큰’이 각각 명사 ‘하늘’과 ‘비행기’를 그 앞에서 꾸며 주고 있으며, (3나)는 ‘매우’가 동사 ‘아름답습니다’를 그 앞에서 꾸며 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는 수식어가 수식을 받는 말 앞에 놓인다. 한편 프랑스어는 명사를 꾸며 주는 말이 그 앞에 놓일 수도 뒤에 놓일 수도 있으며 영어에서는 관계절이 항상 명사 뒤에 있어야 하고 부사가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한국어의 어순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문장 성분의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들 수 있다.

(4) 가. 손님이 집에 왔다.

나. 집에 왔다, 손님이.

다. 왔다, 손님이 집에.

라. 집에 손님이 왔다.

한국어는 (4)에서처럼 문장 성분의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4)의 각각의 문장이 전달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4)의 모든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성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 (4나),

(4다)처럼 어순을 바꾸어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4가)나 (4나)처럼 쓴다. 그러나 모든 문장 성분의 자리 이동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5) 가. 그는 그림을 잘 그린다.  
나. 그는 잘 그림을 그린다.
- (6) 가. 오늘 나는 새 구두를 신었다.  
나. 오늘 나는 구두를 새 신었다.
- (7) 가. 어제 내가 받은 소포는 영희가 보낸 것이다.  
나. 소포는 어제 내가 받은 영희가 보낸 것이다.
- (8) 가. 그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나. 그는 의사로 아들을 만들었다.

부사어 중에서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는 자리 이동이 자유롭지만 (5)의 ‘잘’처럼 특정한 성분(서술어)만을 꾸며 주는 부사어는 문장 안에서 마음대로 자리를 옮길 수 없다. 또 (6), (7)에서처럼 ‘구두’를 꾸며 주는 관형어 ‘새’나 ‘소포’를 꾸며 주는 관형절 ‘어제 내가 받은’은 반드시 그 꾸미는 말 앞에 놓여야 한다. (6나), (7나)처럼 그 자리를 옮기게 되면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없다. 이 밖에도 (8)과 같이 특정한 문장 유형에 나타나는 ‘명사-로’ 성분이 주어진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한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되풀이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한국어의 문장 가운데는 하나의 서술어에 주어가 두 개이거나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가 있다.

- (9) 가. 영희가 마음씨가 곱다.  
나. 그 책이 표지가 색깔이 예쁘다.
- (10) 가. 영희가 나를 손을 잡았다.  
나. 아버지는 시장에서 생선을 큰 것을 세 마리를 사오셨다.

(9)은 각각 하나의 서술어에 대해 주어가 두 개씩 나타나는 문장이다. (9가)는 ‘영희’, ‘마음씨’가 주어인데 비해 서술어는 ‘곱다’ 하나이고 (9나)는 ‘그 책’, ‘표지’가 주어인데 서술어는 ‘예쁘다’ 하나이다. 한편 (10)는 목적어가 두 개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10가)는 ‘나’, ‘손’이 모두 목적어이고 (10나)는 ‘생선’, ‘큰 것’, ‘세 마리’ 모두 목적어이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잇달아 나타나는 주어(목적어) 사이에는 소유자와 소유물, 전체와 부분 등의 관계로 해석된다.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범위를 좁혀 들어가면서 명사를 나란히 쓴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2층 212호 세 번째 책상 왼쪽 서랍’, ‘2004년 11월 11일 오후 3시 10분’ 등과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반대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가는 순서를 취하여 비교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2시 55분’ 또는 ‘3시 5분 전’이라고 하는 것이 ‘5분 전 3시’보다 자연스럽다.

#### 4. 한국어 단어의 특징

##### ○ 한국어의 어휘 범주별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 명사

한국어 명사는 격변화를 하지 않는다. 주어, 목적어와 같은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격(case)’은 한국어에서는 ‘이/가’, ‘을/를’ 등과 같은 조사가 붙음으로써 실현된다. 굴절어의 경우는 명사 자체의 격변화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비해 첨가어인 한국어는 명사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명사에 조사가 붙는 방법으로 이러한 기능을 할 뿐이다.

또 다른 한국어 명사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문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명사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형태의 차이가 없다. 또 단수, 복수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 ‘나’의 복수형인 ‘우리’, ‘우리들’, ‘너’의 복수형인 ‘너희’, ‘너희들’은 의미 차이가 없다. 즉 복수 접미사 ‘-들’을 붙인 경우나 붙이지 않은 경우나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11) 가. 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였다.

나.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

(11가)의 ‘사람’이나 (11나)의 ‘사람들’이나 모두 각 문장에서 복수의 대상을 나타낸다. ‘-들’은 복수임을 나타내는 접미사지만 한국어에서 복수는 항상 ‘-들’을 붙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1)의 두 문장은 의미의 차이가 없다. 아울러 한국어에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른 관형어나 동사의 성, 수 변화도 없다.

#### · 의존명사

한국어의 명사 중에는 문장에 사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하는 명사가 있는데 이를 의존명사라고 한다.

- (12) 가. 동생은 먹을 것을 사왔다.  
 나. 그는 아직 운전할 줄을 모른다.  
 다. 나는 도저히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다.

(12)의 각각의 문장에 밑줄 그은 ‘것’, ‘줄’, ‘수’는 목적임을 나타내는 조사 ‘을’이나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 ‘가’가 붙어 목적어나 주어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먹을’, ‘운전할’, ‘떠날’과 같은 수식어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수식어 없이 홀로 문장에 나타나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된다.

- (13) 가. 동생은 것을 사왔다.  
 나. 그는 아직 줄을 모른다.  
 다. 나는 도저히 여기를 수가 없었다.

또 한국어에는 사람이나 물건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발달해 있다. ‘개, 명, 마리, 켈레, 자루, ……」 등이 있는데 이런 말 역시 ‘사과 세 개’, ‘사람 두 명’, ‘호랑이 두 마리’, ‘신발 한 켈레’, ‘연필 열두 자루’ 등과 같이 그 앞에 물건이나 사람, 수가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존명사의 한 종류로 다룬다.

#### · 대명사

한국어는 전반적으로 대명사의 사용이 활발하지 않다.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서 다시 받을 때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같은 명사를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 (14) 만득이는 우리 동네의 유일한 읍내 중학생이라 품앗이 일에서는 저절로 제외되곤 했지만 곱단이네가 일손이 모자라는 집도 아닌데 제일 먼저 달려들곤 했다. 곱단이 작은오빠하고 만득이는 친구 사이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가 곱단이네 집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싶어하는 게 친구네 집이라서가 아니라 그 여자, 곱단이네 집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 더운 점심을 짓느라 여기가 곧게 올라가는 따뜻한 가을날, 곱단이네 지붕에 제일 먼저 뛰어올라 깃발처럼 으스대는 만득이일 보고 동네 노인들은 제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더니만, 하고 혀를 찼지만 그건 곧 만득이가 곱단이 신랑이 되리라는 걸 온 동네가 다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다.(박완서, ‘그 여자네 집’ 중에서)

앞의 이야기에서 밑줄 친 ‘만득이’와 ‘곱단이’는 매우 여러 번 표현되고 있다. 영어를 비롯한 다른 유형의 언어에서는 이처럼 한 이야기 안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사람이나 사물은 주로 처음 나올 때가 아니면 대명사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앞의 글에서처럼 대명사보다 명사를 되풀이해서 쓰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한국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고 의문대명사와 부정대명사의 형태가 같다. 의문대명사로 쓰였는지 부정대명사로 쓰였는지는 문장의 억양에 따라 구분한다.

- (15) 가. 선생님: 영희야, 거기 누구 있니?(↗)  
영희: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나. 선생님: 영희야, 거기 누구 있니?(↘)  
영희: 철수요.
- (16) 가. 선생님: 너 지금 무엇 하니?(↗)  
영희: 예.  
나. 선생님: 너 지금 무엇 하니?(↘)  
영희: 음악 들어요.

(15가)와 (15나)의 ‘누구’나 (16가), (16나)의 ‘무엇’은 그 형태가 같다. 그러나 (가)와 (나)의 ‘누구’와 ‘무엇’의 쓰임은 같지 않다. (15가), (16가)에서처럼 문장 끝의 억양을 높이게 되면 부정대명사로, (15나), (16나)에서처럼 문장 끝의 억양을 낮추게 되면 의문대명사로 쓰이게 된다.

### · 형용사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어미가 붙어 형용사 자체가 서술어가 된다. 영어, 불어에서는 형용사 범주와 명사 범주가 유사한 속성을 지니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와 동사의 관계가 그러하다. 영어 등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기 위해서는 be 동사와 같은 계사가 함께 쓰여 ‘계사(be)+형용사’의 꼴로 쓰여야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형용사 자체가 동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활용을 하여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다만 형용사와 동사는 의미적으로는 행위, 동작과 상태, 속성으로 구분되고 문법적으로는 명령형 어미 ‘-어라’, 청유형 어미 ‘-자’, 현재 시제 서술형 어미 ‘-는다’가 어간에 붙어 쓰일 수 있는지를 통해서 구분한다. 동사는 이 어미들과 함께 쓰일 수 있는데 비해 형용사는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와 쓰일 수 없다.

### · 접속사

한국어는, 영어나 불어와 달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와 같은 어휘 범주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어에서는 문장과 문장은 주로 연결어미로 연결하는데 서술어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아, -게, -지, -고’ 등과 같은 연결어미를 붙여 이어 준다. 그러던 것이 현대 국어에 와서는 연결어미에 의한 문장 연결뿐만 아니라 접속사처럼 쓰이는 별도의 어휘로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지만’ 등이 영어나 불어 등의 접속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다, 그러다’ 등의 동사나 형용사에 연결어미 ‘-나, -어서, -지만’ 등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접속사로 처리하지 않고 접속부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조사어미

한국어는 조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주어+서술어+목적어’ 어순을 나타내는 언어는 주로 전치사가 발달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와 같이 ‘주어+목적어+서술어’ 어순을 나타내는 언어는 후치사가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에는 후치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있다. 조사에는 명사, 대명사 등이 문장에서 하는 구실을 나타내 주는 ‘격조사’가 있고 단지 뜻만 덧붙여 주는 ‘보조사’, 명사(대명사)와 명사(대명사)를 이어주는 ‘접속 조사’가 있어 조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 (17) 가. 내가 사과를 샀다.  
 나. 백화점마다 사람들로 붐볐다.  
 다.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집으로 보냈다.

조사와 더불어 한국어는 어미도 대단히 발달하여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는 어미의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 문장을 끝 맺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의 다섯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범주 속에 다시 많은 어미가 있어서 말 듣는 사람을 높이는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다양한 어미를 사용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원인, 이유, 조건 등 여러 가지 의미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도 여러 가지 연결어미를 사용한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 한국어의 어미는 어간과 더불어 한 단어를 이루지마는 그 문법적인 뜻은 문장 전체에 미친다.

- (18) 가. 친구가 산 자전거와 같은 것을 나도 샀다.  
 나. 영희가 어제 결석했음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다른 유형의 언어에서는 부사와 같은 독립된 단어로 나타내야 할 의미를 한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로 나타낼 수 있다.

· 관형사(수관형사)

한국어에는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관사에 해당하는 어휘 범주는 없으나 지시, 의문, 부정, 수, 속성을 나타내는 관형사가 있다. 지시관형사에는 영어의 'this', 'that'에 대응되는 '이', '저' 외에도 '그'가 있다. 또 '무슨'처럼 '무엇인지 모르는 일이나 대상, 물건 따위를 물을 때 쓰는 경우'를 나타내는 의문 관형사와 '사물을 특별히 정하여 지목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경우'를 나타내는 부정 관형사의 형태가 같다.

- (19) 가. 무슨 일 있었니?  
 나. 그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냈다.
- (20) 가. 어떤 분을 찾아오셨습니까?  
 나. 그는 기차 안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다.

이외에도 한국어 관형사에는 ‘새, 헌’ 등과 같은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한, 두, 세, 네, ……」나 ‘일, 이, 삼, 사, ……」와 같은 수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

· 이다

한국어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 등의 계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다’가 있다. 그런데 ‘이다’는 계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반드시 명사 뒤에 붙어 ‘명사-이다’의 형태로 서술어 기능을 한다.

(21) 가. 이것은 책상이다.

나. 저 분이 영수의 아버지이다.

(21)의 밑줄 그은 ‘책상이다’와 ‘영수의 아버지이다’는 각각 ‘책상’과 ‘영수의 아버지’에 ‘이다’가 붙어 그 전체가 서술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영어의 ‘be’ 동사를 비롯한 다른 유형의 언어에 존재하는 계사는 독자적으로 서술어 구실을 하는 데 비해 한국어의 ‘이다’는 반드시 명사나 명사 구실을 하는 말에 붙어 ‘명사-이다’ 전체가 서술어가 된다.

· 흉내말

한국어는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 매우 발달해 있다. 이러한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은 주로 같은 형태가 되풀이되어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22) 가. 딸랑-딸랑, 철썩-철썩, 찰랑-찰랑

나. 펠럭-펠럭, 술-술, 아장-아장

(22가)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이고 (22나)는 모양을 흉내 낸 말이다. 이러한 흉내말은 대부분 모음이나 자음을 바꾸어 말의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다.

(23) 가. 줄줄/줄줄/쫄쫄

나. 반짝반짝/번쩍번쩍/뵤뵤뵤뵤/뵤뵤뵤뵤

또 흉내말은 ‘-이다, -거리다, -대다’ 등이 붙어 동사나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

- (24) 가. 딸랑딸랑-거리다  
 나. 깔깔-대다  
 다. 필릭-이다

## 5 한국어 소리의 특징

### ○ 한국어의 자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국어에는 영어의 f, v, θ, ð에 해당하는 소리가 없다. 또 p-b, t-d, s-z, k-g의 대립이 없어 p와 b, t와 d, s와 z, k와 g를 구별하여 들을 수 없고 각 쌍이 보이는 차이(목청의 떨림이 있고 없음)가 단어의 뜻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소리의 세기에 따른 구별이 있다. 예사소리(ㄱ, ㄷ, ㅂ) : 거센소리(ㅋ, ㅌ, ㅍ) : 된소리(ㆁ, ㄷㆁ, ㅃ)의 대립이 있다. 즉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차이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고, ‘달(moon) : 탈(mask) : 딸(daughter)’이나 ‘불(fire) : 풀(grass) : 뿔(horn)’에서 처럼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차이가 뜻의 차이도 나타낸다. 다른 언어 유형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소리를 구별하여 듣기란 쉽지 않다.

이외에도 한국어는 음절 끝의 자음이 불파음(unreleased)으로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영어의 ‘camp’, ‘help’, ‘belt’의 ‘p’, ‘t’는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낸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를 ‘캠프’, ‘헬프’, ‘벨트’로 적는다. 그러나 ‘낙’, ‘밥’의 음절 끝 자음 ‘ㄱ’, ‘ㅂ’은 공기를 터뜨려 소리내지 않는다. 이외에도 한국어에는 ‘ㄹ’이 말의 첫머리에 오지 않는 특징이 있다.

### ○ 그 밖의 한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어에서는 말의 첫머리에 ‘ㄹ’이 발음되지 않는다. 그래서 ‘ㄹ’로 시작하는 단어가 거의 없다. 또 말 첫머리에 ‘ㄴ’의 사용도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있다. 모음 ‘ㅣ, ㅏ, ㅑ, ㅓ, ㅕ, ㅗ, ㅛ’ 앞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라디오, 레몬, 럭비, 뉴스’ 등과 같은 외래어의 사용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또 한국어는 말 첫머리에 자음이 두 개 이상 쓰일 수도 없다. 예를 ‘strike’, ‘stop’ 처럼 영어에서는 말 첫머리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로는 ‘stop’을 ‘스톱’과 같이 말 첫머리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을 쓰지 않고 모음 ‘ㅡ’를 넣어 ‘스툼’으로 표기한다.

## 6. 그 밖의 한국어의 특징

### ○ 한국어는 대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우를 어떻게 할까?

옛날부터 한국은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 사이의 예의와 범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언어에도 반영되어 한국어는 높임법이 매우 발달해 있다. 대화나 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사이의 높이고 안 높이는 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 친한 정도, 직위의 높고 낮음, 향렬(친척들 사이)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주로 조사와 어미의 사용을 통해 드러난다.

(25) 가. 윤정이가 전화를 받는다.

나.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신다.

(26) 가. 해솔아, 집에 가니?

나. 선생님, 댁에 가십니까?

한국어의 높임법에는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과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25가)는 전화를 받는 행위를 하는 주체인 ‘윤정이’는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고 (25나)의 ‘할아버지’는 높여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25나)에서는 ‘받다’의 어간 ‘받-’에 주체를 높일 때 쓰는 ‘-(으)시’와 주어 ‘할아버지’ 뒤에 조사 ‘께서’가 붙었으며 (25가)에서는 ‘-(으)시’나 ‘께서’가 붙지 않았다.

(26)에서는 듣는 사람을 높여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26가)는 듣는 사람 ‘해솔이’가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높임의 뜻이 없는 의문형 어미 ‘-니’가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26나)는 듣는 사람 ‘선생님’이 높여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높일 때 사용하는 의문형 어미 ‘-십니까’가 쓰였다. 또 한국어에서는 높임의 뜻이 있는 단어를 그렇지 않은 단어와 바꿔 씀으로써 높임 표현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26가)의 ‘집’을 (26나)의 ‘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는 높임법이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 ○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까?

한국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많이 쓰인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주어와 무엇인지 또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흔하다. (26)는 과일 가게에서 손님과 점원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의 일부이다.

(26) 손님: ㉠ “이 수박 얼마예요?”

점원: ㉡ 만이천 원이에요.

손님: ㉢ 왜 이렇게 비싸요?

점원: ㉣ 올해 수확량이 많지 않아 비싸요.

손님: ㉤ 조금만 깎아 주세요.

점원: ㉥ 그럼 만천 원에 가져가세요.

손님: ㉦ 만원에 주세요.

점원: ㉧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수박 가게에서 손님과 점원 사이에 오간 대화 중에서 (26㉠), (26㉢)를 빼고는 주어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26㉡), (26㉣), (26㉤)에서는 주어는 물론 목적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 ㉣, ㉤에서는 ‘값이’, ㉢, ㉣, ㉤에서는 ‘당신이’같은 것이 생략된 주어가 될 것이다. 또 ㉡, ㉣, ㉤에서는 ‘수박을’을 생략된 목적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쉽게 생략될 수 있는 것은 나타내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대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글에서는 같은 성분이 되풀이되어 그것이 무엇인지 글을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흔히 그 중 하나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 역시 한국어의 특징이다.

(27) 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는 가장 먼저 신문을 보신다.

나. 새가 울면서 날아간다.

다. 나는 어제 본 영화를 동생에게 얘기해 주었다.

(27가)에서 서술어 ‘일어나다’, ‘보시다’의 주어는 모두 ‘아버지’이고, (27나)에서 ‘울다’와 ‘날아가다’의 주어는 ‘새’이다. 같은 주어가 앞뒤 문장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둘 중 하나가 생략된 것이다. (27가)에서는 앞의 주어가 (27나)에서는 뒤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27다)에서는 서술어 ‘보다’와 ‘얘기해 주다’의 주어가 모두 ‘나’로 둘 중 어느 것을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27다)는 뒤의 주어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어제 본 영화를 나는 동생에게 얘기해 주었다.”처럼 앞의 주어를 생략하고 뒤의 주어를 표시해도 의미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주어나 목적어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만 하면 쓰지 않는 습관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찾아내기 어려운 문장들도 많다.

- (28) 가. 이젠 그만 울어야 좋겠는데.  
 나. 길이 넓어서 다행이군요.  
 다. 그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라. 즉시 여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28)의 문장들에서 밑줄 친 서술어의 주어가 무엇인지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주어를 꼭 갖추어야 하는 언어에서는 주어가 될 말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주어(假主語)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위의 한국어에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가주어가 없다. 이처럼 주어가 나타나지 않고 서술어만 있지만 그 서술어의 주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역시 한국어의 특징이다.

## 7. 한국어의 문자

### ○ 한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국어는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한글’이라고 하는데 한글은 로마자와 마찬가지로 모음자와 자음자가 따로따로 만들어진 자모 문자이다. 한글은 1443년에 세종 대왕이 만들었는데 창제 원리가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어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하고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세계 문명 퇴치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한글 자모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와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기본 글자에 가로나 세로 획을 더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ㄱ’은 입의 네모진 모양을, ‘ㅋ’은 이의 뾰족한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ㄱ’은 그 소리를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 모양을,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 글자이다.

### ○ 발음 기관을 본 뜬 그림

모음은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지고 없지만 세종 대왕이 한글을 만들 당시에는 있었던 것으로 ‘ㅏ’는 둥근 하늘을 본 떠서 만들었고, ‘ㅑ’는 평평한 땅을, ‘ㅣ’는 곧게 선 사람을 본 떠서 만들었다.

자음 ‘ㄱ, ㅋ, ㆁ, ㄷ, ㅌ’과 모음 ‘ㅏ, ㅑ, ㅣ’를 기본자로 하여 여기에 가로 세로의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 자음자의 구성

ㄱ → ㅋ  
 ㄴ → ㄷ → ㅌ(ㄷ → ㄹ)  
 ㄹ → ㄱ → ㅋ  
 ㄷ → ㅌ → ㅍ  
 ㅌ → ㅍ → ㅍ  
 ㅍ → ㅍ → ㅎ

### 모음자의 구성

ㅏ + ㅏ → ㅓ  
 ㅏ + ㅣ → ㅗ  
 ㅏ + ㅏ → ㅓ  
 ㅏ + ㅣ → ㅗ  
 ㅣ + ㅓ → ㅕ  
 ㅣ + ㅗ → ㅛ  
 ㅣ + ㅓ → ㅕ  
 ㅣ + ㅗ → ㅛ

이 밖에도 ‘ㄱ, ㄷ, ㅍ, ㅌ, ㅍ’ 등과 같이 자음 글자를 옆으로 하나 더 나란히 써서 된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한글은 로마자와 마찬가지로 자모 문자이지만 로마자와는 달리 각 글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예를 들면 영어는 ‘spring’, ‘sky’처럼 각각의 낱글자를 가로로 풀어서 쓰지만 한글은 ‘ㅏㅓㅏ’, ‘ㅎㅏㅏㅏ’처럼 가로로 풀어 쓰지 않고 ‘봄’, ‘하늘’처럼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 <한글 맞춤법>

###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우리는 (1ㄱ)이 '맞춤법을 아는' 사람이 쓴 글이고 (1ㄴ)은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

- (1) ㄱ.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어요
- ㄴ. 폰니피 바라메 혼날리고 이씨요

그런데 말로 할 때는 (1ㄱ)과 (1ㄴ)은 차이가 없다. (1ㄱ)을 읽어 본 후에 (1ㄴ)을 읽어 보면 둘 다 [폰니피 바라메 혼날리고 이씨요]로 소리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맞춤법을 규정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르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다.

'소리대로 적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는다는 뜻이다. [돌]이라고 소리 나는 말은 '돌'로 적고 [눈물]이라고 소리 나는 말은 '눈물', [꿈]이라고 소리 나는 말은 '꿈'이라고 적는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대로 적을 경우 쓰기는 쉬워도 읽을 때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꽃'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꼬치 아름답따], [꽃또 아름답따], [폰만 아름답따]와 같은 말을 생각해 보자.

- (2) 가. 꼬치  
 나. 꼰또  
 다. 꼰만

위의 밑줄 친 말은 모두 ‘꽃’이라는 명사에 조사 ‘이, 도, 만’이 결합한 말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기가 무척 어렵다. 글을 쓰는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다면 이처럼 알아보기 어려운 표기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한글 맞춤법》에서는 ‘꼬치, 꼰또, 꼰만’이라고 적지 않고 ‘꽃’의 형태를 고정해서 ‘꽃이, 꽃도, 꽃만’이라고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가. 꽃이  
 나. 꽃도  
 다. 꽃만

위와 같이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뒤에 붙는 ‘이, 도, 만’의 형태 또한 고정되어 어떤 말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가 쉬우므로 맞춤법에서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꽃이’라고 할 때의 [꼬치], ‘꽃을’이라고 할 때의 [꼬출], ‘꽃만’이라고 할 때의 [꼰만] 모두를 ‘꽃’이라는 하나의 표기로 적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원리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꼬치], [꼬출], [꼰만]의 경우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을’, ‘꽃만’으로 적는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4) 가. 아름답-고  
 나. 아름답-다  
 다. 아름답-지

‘아름답고, 아름답다, 아름답지’를 보면 ‘아름답-’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연결될 경우에는 ‘\*아름답-은’, ‘\*아름답-어’로 적지 않고 ‘아름다운’, ‘아름다워’와 같이 적는다.

- (5) ㄱ. 아름다운(←\*아름답-은)  
 ㄴ. 아름다워(←\*아름답-어)

‘꽃이’와 ‘꽃만’은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서 ‘아름답’의 경우에는 같은 말을 하나의 표기로 적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꽃이, 꽃만’은 ‘꼬치, 쏘만’으로 적을 때와 마찬가지로 [꼬치]와 [쏘만]으로 소리가 나므로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아름답은’, ‘\*아름답어’는 [아름다운], [아름다워]로 소리 나지 않고 [아름다븐]과 [아름다버]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른 말을 적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아름답은’, ‘\*아름답어’로 적을 수 없다.

## 2. ‘한글 맞춤법’의 실제

한번 정해진 표기는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본딧말에서 말이 줄어들어 준말이 되는 경우에도 표기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

- (1) ㄱ. 게 섰거라(←서 있거라)  
 ㄴ. 엿다(←여기 있다)  
 ㄷ. 발다리, 발벽, 발사돈(←바깎)  
 ㄹ. 오늘은 웬지(←왜인지) 기분이 좋아.

‘게 섰거라’를 ‘\*게 섯거라’로 적지 않는 것은 ‘섰거라’가 ‘서 있거라’에서 온 말이기 때문이다. ‘있’의 받침을 그대로 유지한다. ‘엿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 있다’의 받침 ‘ㅍ’으로 적는다. ‘발다리, 발벽, 발사돈’의 ‘발’은 ‘바깎’에서 온 말이므로 받침을 ‘ㅌ’으로 적는다. ‘웬지’와 ‘\*웬지’를 구별하는 것도 본딧말의 표기와 관련이 있다. ‘왜인지’에서 줄어든 말이므로 ‘웬지’로 일관되게 적는다. “웬 낫선 사람이 찾아 왔던데?”와 같은 경우는 ‘왜’와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반듯이’와 ‘반드시’를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을 반듯하게 긋다’의 뜻으로 ‘반드시’를 쓰지 않고 ‘반듯이’를 쓰는 것은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둘 다 ‘반듯’에서 나온 말이다.

- (2) ㄱ. 금을 반듯이(←반듯하게) 긋어라.  
 ㄴ. 오늘 반드시(←반듯하게) 긋내라.

‘반드시’는 ‘반듯하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이다. 이러한 점은 아래의 ‘지긋이, 지그시’에서도 볼 수 있다.

- (3) ㄱ. 나이가 지긋이(←지긋하게) 든 반백의 신사.  
 ㄴ. 눈을 지그시(←지긋하게) 감았다.

‘일찍이, 더욱이’를 ‘\*일찌기, \*더우기’로 적지 않는 것도 ‘일찍, 더욱’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4) ㄱ. 일찍이(\*일찌기) 문명을 꽃피운 우리나라.  
 ㄴ. 비도 내리고 더욱이(\*더우기) 바람도 세다.

그렇지만 표기의 일관성을 지키면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칠다, 거칠고, 거칠어’에서는 ‘거칠-’로 일관되게 적을 수 있지만 ‘-은’이 연결될 경우에는 ‘거친’이 되므로 ‘\*거칠은’으로 적을 수 없다.

- (5) ㄱ. 하늘을 나는(\*날으는) 비행기  
 ㄱ' 멀리 날아가는(\*날라가는) 비행기  
 ㄴ. 거친(\*거칠은) 별판에 푸른 솔잎처럼  
 ㄴ. 놀이터에서 노는(\*놀으는) 아이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지?”라고 할 때의 ‘며칠’ 또한 ‘몇 년, 몇 월’과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몇 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몇 월’이 [며월]로 소리 나듯이 ‘\*몇 일’은 [며딜]로 소리 나기 때문에 ‘\*몇 일’로 적을 수 없다. 그러므로 ‘며칠’로 적는다.

- (6)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몇 일)이지?

이와는 달리 소리가 달라지더라도 표기의 일관성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 아래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면서 소리가 달라졌지만 원래의 모양대로 적은 경우이다.

- (7) ㄱ. 눈에 눈곱(\*눈뿔)이 끼었어.  
 ㄴ. 눈살(\*눈쌀)을 찌푸린다.

‘눈곱’은 [눈꺄]으로 소리 나고 ‘눈살’은 [눈쌔]로 소리 나지만 ‘곱’과 ‘살’이 자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눈꺄’, \*‘눈쌔’로 적을 경우 두 말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눈곱’, ‘눈살’로 일관되게 적는다.

잘못된 말을 쓰기 때문에 한글로도 잘못 적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이 나무로는 탁자를 □□이 좋겠다.”의 □□에 알맞은 말을 ‘만듬’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만드미]라고 잘못 읽어서 적을 때도 ‘만듬이’로 잘못 적는 일이 많다. [만들미]로 올바르게 읽는 경우에는 대부분 ‘만듬이’로 적는다.

- (8) ㄱ. 이 나무로는 의자를 만듬이(\*만듬이) 좋겠다.  
 ㄴ. 서울에서 3년간 삶(\*살음).

국어에서 명사형을 만들 때 ‘-ㅁ/음’이 연결되는데 받침이 ‘ㄹ’인 말일 때는 ‘살+ㅁ→삶’처럼 ‘ㅁ’이 된다. 명사형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처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말이다. 흔히 ‘있다, 없다’의 ‘있-, 없-’을 명사형으로 만들 때 잘못 적는 일이 적지 않다.

- (9) ㄱ. 철수는 서울에 있음(\*있슴).  
 ㄴ. 오늘은 보리밥을 먹음(\*먹슴).

‘있음’을 \*‘있슴’으로, ‘없음’을 \*‘없슴’으로 잘못 쓰는 일이 많은데 ‘있+음’, ‘없+음’이므로 ‘있음’과 ‘없음’이 옳다. 이러한 혼란은 ‘있음’과 \*‘있슴’이 소리가 같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므로 ‘먹-’의 경우에 ‘먹음’이 맞고 \*‘먹슴’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있습니다’와 ‘있습니다’를 혼동하는 경우에도 ‘먹습니다’를 \*‘먹읍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있습니다’가 맞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국어의 동사나 형용사에 여러 가지 어미가 연결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동사나 형용사의 모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 (10) ㄱ. 맡-아, 뵈-아, 얹-아  
 ㄴ. 떡-어, 죽-어, 뵈-어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막-, 볶-, 얹-’처럼 ‘아, 오, 야’가 들어 있는 말 뒤에는 ‘-아’가 연결되어 ‘막아, 볶아, 얹아’가 되고 ‘떡-’처럼 그 외의 모음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어’가 연결된다. 따라서 “철수는 잠깐 남어라.”의 ‘\*남어라’는 ‘남아라’로 고쳐야 옳고 “침을 빨았다.”의 ‘\*빨았다’는 ‘빨었다’로 고쳐야 옳다.

또한 특정한 어미가 연결될 때 전체의 모습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 (11) ㄱ. 잠그다, 잠가, 잠그니/ 담그다, 담가, 담그니  
 ㄴ. 머무르다, 머물러/ 들르다, 들러

‘잠그-’는 ‘-어’가 연결되면 ‘잠가’로 모양이 바뀐다. ‘담그-’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체 모양이 바뀌는 경우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물을 잠귀라.”의 ‘\*잠귀라’는 ‘잠가라’로 고쳐야 옳고 “바닷물에 손을 담궜다.”의 ‘\*담궜다’는 ‘담갔다’로 고쳐야 옳다. ‘머무르-’는 ‘-어’가 연결되면 ‘머물러’가 되고 ‘들르-’는 ‘들러’가 된다.

한편, ‘사귀어’와 ‘바뀌어’와 같이 ‘ㄱ+어’가 되는 경우에는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흔히 ‘\*사겨’, ‘\*바껴’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사겨’는 ‘사기어’가 준 말이고 ‘바껴’는 ‘바끼어’가 준 말로 ‘사귀어’, ‘바뀌어’와 관계가 없다.

- (12) ㄱ. 너희 둘이 사귀어(\*사겨) 보면 어떨까?  
 ㄴ. 내 것과 네 것이 바뀌었어(\*바켰어).

한편 ‘되-’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들면 ‘돼’가 된다. ‘되-+었다 →됐다’, ‘되-+어서 →돼서’가 그러한 경우다. ‘되라’와 ‘돼라’는 둘 다 가능하다. ‘되라’는 ‘되-’에 간접적, 문어적 명령을 나타내는 ‘-으라’가 연결된 말이고 ‘돼라’는 직접적, 구어적 명령을 나타내는 ‘-어라’가 연결된 말이다.

- (13) ㄱ. 철수는 고등학생이 됐다(←되었다).  
 ㄴ. 자식이 돼서(←되어서) 그게 할 소리냐?  
 ㄷ. 저도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돼요(←되어요).  
 ㄹ. 다음 물음에 올바른 답을 쓰라/써라.

실제 국어 생활에서 혼동이 되는 말 중에는 소리가 같아져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예들이 있다. 이러한 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아래의 예는 국어에서 ‘요’와 ‘-오’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 (14) ㄱ. 무엇을 할까요.  
 ㄴ. 말씀 낫추십시오(\*요).

국어에서 ‘요’는 말이 끝난 다음에 덧붙어서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무엇을 할까’에 ‘요’가 덧붙으면 ‘할까요’가 된다. 그런 까닭에 ‘할까요’에서 ‘요’가 빠져서 ‘할까’가 되더라도 문장이 성립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오’는 빠질 경우 ‘\*말씀 낫추십시오’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와는 다르다. ‘이리 오시오’, ‘무엇 하오’에서도 ‘오’를 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의 이러한 특성은 ‘예’에 상대되는 말이 ‘아니오’인지 ‘아니요’인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예’의 낮춤말 ‘응’에 상대되는 짝은 ‘아니’이다. 여기에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요’가 붙어서 ‘아니요’가 되었다고 설명하면 ‘응, 아니’와 ‘예, 아니요’가 등급의 차이를 두고 서로 짝을 맞춰 존재하는 현상을 적절하게 보여 줄 수 있다.

- (15) ㄱ. 다음 물음에 예, 아니요(\*아니오)로 답하십시오.  
 ㄴ. 아니요(\*아니오) 영수가 온다고 했어요.  
 ㄷ. 나는 의사가 아니오.

‘아니오’는 ‘나는 의사가 아니오’, ‘그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오’와 같이 ‘아니’에 ‘-오’가 붙은 서술어이다.

한편 아래의 ‘-요’는 서술격조사 ‘이-’ 다음에 나타나서 문장끼리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말은 역사적으로 ‘이고>이오>이요’의 과정을 겪어서 생긴 말로 위에서 다룬 ‘요’와는 관련이 없는 말이다.

- (16)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와 관련되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두음 법칙을 들 수 있다. 두음 법칙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 ㄷ’ 소리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자립적인 명사뿐 아니라 합성어와 고유 명사에서도 두음 법칙이 나타난다. 다만 의존 명사일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년, 몇 리’의 ‘년’과 ‘리’가 그러한 경우이다.

(17)

	녀, 뇨, 뉴, 니	랴, 려, 레, 료, 류, 리	라, 래, 로, 뢰, 루, 르
어두/비어두	여자/남녀	양심/개량	낙원/극락
의존 명사	몇 년, 2002 년	몇 리, 그릴 리가	
합성어	신-여성/남존-여비	역-이용/해외-여행	중-노동/사상-누각
고유 명사	한국여자대학	신흥이발관	

또한 두음 법칙은 원칙적으로 한자어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리울’, ‘녀석’ 같은 고유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존 명사일 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말이라도 자립 명사로 쓰일 경우와 의존 명사로 쓰일 경우에 표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年度’는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연도’가 되고 의존적으로 쓰일 때는 ‘년도’가 된다. ‘신년도, 고랭지’는 ‘신년-도, 고랭-지’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18) ㄱ. 연도별 생산 실적, 회계 연도/회계연도  
 ㄴ. 2000 년도/2000년도, 2000 년대/2000년대  
 ㄷ. 신년-도, 구년-도, 고랭-지

‘란/난’, ‘량/양’의 경우에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란’, ‘량’이 되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난’, ‘양’이 된다.

- (19) ㄱ. 가정란, 투고란, 독자란, 학습란, 답란  
 ㄴ.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난(gossip欄)  
 (20) ㄱ. 노동량, 작업량  
 ㄴ. 일양, 알칼리양(alkali量)

한편 ‘울/률’의 경우에는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울’이 되고 그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이 된다.

- (21) ㄱ. 비율(比率), 실패율(失敗率)  
 ㄴ. 선율(旋律), 전율(戰慄), 백분율(百分率)  
 ㄷ. 법률(法律), 능률, 출석률

사이시옷 규정 또한 소리와 관계가 있다. 사이시옷은 발음에 따라 적도록 되어 있

는데 실제로는 올바른 발음을 모르는 일이 많아서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많다.

- (22) ㄱ. 시냇가, 찻잔, 나뭇잎, 뒷마루
  - ㄴ. 기댓값, 대폿값, 만뚝국, 등곶길, 성곶길, 장밋빛, 맥줏집
  - ㄷ.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
  - ㄹ. 초점(焦點), 개수(個數),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

사이시옷이 쓰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ㄹ’이나 모음 앞에 ‘ㄴ’ 소리가 덧나는 합성어이어야 한다. 둘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한자어’나 ‘외래어+고유어’가 아니어야 한다. ‘시냇가[-까], 찻잔[-잔], 나뭇잎[-문땀], 뒷마루[-뒷마루]’ 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렇지만 ‘내과(內科), 화병(火病)’ 등은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기댓값, 만뚝국, 장밋빛’ 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한다.

‘한자어+한자어’ 구성이더라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초점(焦點), 개수(個數),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23) ㄱ. 머리말/\*머릿말, 인사말/\*인삿말
  - ㄴ. 핑크빛, 피자집

위에서 ‘머리말’이 옳은 것은 [머린말]로 소리 나지 않고 [머리말]로 소리 나기 때 문이다. ‘인사말’도 마찬가지다. ‘한자어+한자어’ 구성일 때와 마찬가지로 ‘핑크빛, 피자집’처럼 외래어가 들어간 구성일 때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어원에 따라서 표기를 정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넓-[廣]’과 관련 있는 말은 의미적인 관련이 있으면 ‘넓-’으로, 관련이 적으면 ‘넙-’으로 적는다.

- (24) ㄱ. 강아지가 고기를 넙죽 받아 먹는다.
  - ㄴ. 하인이 넙죽 절을 한다.
  - ㄷ. 무를 넙적하게 썰어서 깍두기를 담갔다.
  - ㄹ. 넙적다리, 널따랗다, 넙치[廣魚]

위의 ‘넙죽’은 ‘넓-’과는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멀어졌으므로 ‘넓’으로 적지 않고 ‘넙’으로 적는다. ‘넓적하다’는 의미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넓’으로 적는다.

‘붙이다’와 ‘부치다’도 ‘붙-’의 의미가 살아 있으면 ‘붙이다’로 적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치다’로 적어서 구분한다. 아래 밑줄 친 ‘올려붙이다, 걷어붙이다, 밀어붙이다’와 ‘숙식을 부치다’는 유의해야 한다.

- (25) ㄱ. 반창고를 붙이다, 주석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ㄴ. 따귀를 올려붙이다, 소매를 걷어붙이다, 계획대로 밀어붙이다
- (26) ㄱ. 편지를 부치다, 극비에 부치다, 한글날에 부치다  
 ㄴ.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 논밭을 부치다

‘오이소박이’는 ‘오이에 소를 박은 음식’을 말한다. ‘박다’의 의미가 살아 있으면 ‘박이’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기’가 된다. ‘차돌박이’는 ‘흰 차돌이 박혀 있는 듯한 고기의 부위’를 말한다.

- (27) ㄱ. 오이소박이/\*오이소백이, 차돌박이/\*차돌백이/\*차돌배기  
 ㄴ. 붙박이, 덧니박이, 판박이
- (28) ㄱ. \*한 살박이/한 살배기  
 ㄴ. 알배기, 공짜배기, 진짜배기

‘한 살배기’처럼 ‘-배기’가 쓰이는 말들은 ‘박다’와는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말이다.

흔히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를 잘못 쓴 말이다. ‘\*그리고 나서’와 ‘그리고 나서’는 문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별되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로 분석되는데 ‘-고 나서’ 앞에는 ‘먹고 나서’, ‘쉬고 나서’, ‘일하고 나서’처럼 용언만이 올 수 있다. 따라서 ‘그리-’는 용언이어야 한다. 하지만 의미가 맞는 ‘그리-’를 찾을 수 없으며 \*이리고 나서, \*저리고 나서’가 불가능하므로 ‘이, 그, 저’의 계열 관계를 이루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를 잘못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리고 나서, 저리고 나서’와 같이 계열 관계를 이룬다.

- (29) ㄱ.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그리고 나서) 물을 마셨다.  
 ㄴ. 밥을 먹었다. 그리고 물을 마셨다.  
 ㄷ. 밥을 먹었다. 그리고는(\*그리고는)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또한 ‘\*그러나는, \*그래서는’ 등이 불가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는’을 잘못 쓴 말이다.

아래의 ‘-대’와 ‘-데’도 문법적인 기준에 따라 서로 구별해서 써야 하는 말이다.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 (30) ㄱ. 영희가 그러는데 철수가 결혼한다.  
 ㄴ. 철수도 오겠대?

또한 ‘-대’는 아래와 같이 놀라거나 못마땅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 (31) ㄱ. 왜 이렇게 일이 많대?  
 ㄴ. 신랑이 어쩜 이렇게 잘 생겼대?

‘-데’는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회상하여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 (32) ㄱ. 두 살배기가 아주 말을 잘하데.  
 ㄴ. 철수는 아들만 둘이데.

## <띄어쓰기>

### 1. 띄어쓰기의 원리

띄어쓰기 원리는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이 원칙은 대단히 명료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띄어쓰기 문제는 명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기준으로 제시한 단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흔히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렇지만 조사를 띄어 쓰는

일은 없다.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가 단어인데도 붙여 쓰는 것을 보면 단어의 개념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단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 2. 자립성과 의존성

아래의 말들을 두 개의 동아리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 (1) 하늘, 자동차, 를, -는구나, 바다, 구름, -겠-, -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로 나누는 데 동의할 것이다.

- (2) ㄱ.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ㄴ. 를, -는구나, -겠-, -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것은 명사이고 뒤의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가 아니냐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 (3) ㄱ. 무얼 보니? 하늘  
 ㄴ. 어딜 가니? 바다

(3)에서처럼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나, -겠-’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일이 없다. [를], [는구나]라고 일부러 읽지 않는 한 이들을 단독으로 소리 내서 쓰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비자립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 (4) ㄱ. 학교를  
 ㄴ. 떡-습니다  
 ㄷ. 가-겠-다

(4ㄱ)의 ‘학교를’에서 ‘를’은 ‘학교’에 의존하고 있고 (4ㄴ)의 ‘-습니다’는 ‘떡-’에, (4ㄷ)의 ‘-겠-’은 ‘가-’와 ‘-다’에 각각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는 말들을 띄어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의존적인 요소가 둘 이상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 (5) ㄱ. 서울에서처럼만  
 ㄴ. 좋-습니다그러

(5ㄱ)의 ‘에서’, ‘처럼’, ‘만’과 (5ㄴ)의 ‘-습니다’, ‘그러’는 모두 의존적인 요소이므로 언제나 붙여 쓴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자립적인지 의존적인지를 판정하는 일은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존적이지만 띄어 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의존 명사가 바로 그것이다. 의존 명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말에 의존적이다. 그렇지만 (6)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와 의미와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명사처럼 앞말과 띄어 쓴다.

- (6) 떡을 것(밥)이 없다.

국어에서 의존적인 요소로는 ‘어미, 조사, 접사’ 등을 들 수 있다. 사전에는 의존 요소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띄어쓰기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 (7) ㄱ. 개-  
 ㄴ. -었-  
 ㄷ. -는구나

위의 ‘개-’는 ‘개살구’와 같이 뒤에 오는 말에 의존한다는 뜻이고 ‘-었-’은 ‘먹었다’와 같이, ‘-는구나’는 ‘먹는구나’와 같이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띄어쓰기를 쉽게 알 수 있다.

자립적인 요소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한다.

- (8) ㄱ. 어디선가 귀를 찢을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  
 ㄴ. 철수는 말로는 언제나 큰소리만 친다.

(8ㄱ)의 ‘큰 소리’와 (8ㄴ)의 ‘큰소리’는 의미가 다르다. ‘큰 소리’는 소리가 큰 것이지만 ‘큰소리’는 소리가 큰 것과는 관계없이 과장하여 말하는 것을 뜻한다.

- (9) ㄱ. 철수가 시험에 안 됐다.  
 ㄴ. 그래서 모두 철수가 안돼 보인다고 했구나.

(9ㄱ)의 ‘안 되다’는 ‘되지 않다’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9ㄴ)의 ‘안되다’는 ‘안 쓰럽다’의 의미다. ‘안’과 ‘되다’의 의미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안 되다’는 띄어 쓰지만 새로운 의미가 생긴 ‘안되다’는 붙여 쓴다.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새로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처럼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루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노루 귀’는 띄어 쓰지만 ‘미나리아재빗과의 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붙여 쓴다. ‘노루귀’에는 ‘노루’나 ‘귀’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 (10) ㄱ. 노루√귀 - 노루의 귀  
 ㄴ. 노루귀 - 미나리아재빗과의 풀

두 번째 기준은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돌아가다’는 ‘돌아’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 (11) ㄱ.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돌아(서)갔다.  
 ㄴ. 모두들 선물을 받아 갔다/받아(서) 갔다.

이러한 사실은 ‘돌아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다.”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찢어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12) 서류를 찢어▽버렸다/찢어버렸다.

그런데 걸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3)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조 용언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붙이는 것을 허용한 것은 보조 용언 구성이 합성어와 구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4) ㄱ.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 간다.  
 ㄴ.\*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서 간다.

‘죽어 간다’는 ‘죽다’에는 의미 변화가 없고 ‘간다’에만 의미의 변화가 있다.

이는 구성 요소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합성어와는 다른 점이다. 그렇지만 (14ㄴ)처럼 중간에 ‘서’와 같은 다른 요소가 끼어들지 못하는 점은 합성어와 동일하다. 이처럼 합성어와 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어 지다’와 ‘-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다 보조 용언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어 지다’는 타동사를 자동사로 바꾸고 ‘-어 하다’는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꾼다는 점에서 언제나 붙여 쓰는 것만 가능하다.

(15) ㄱ. 뜻을 이룬다. → 뜻이 이루어진다.  
 ㄴ. 꽃이 예쁘다. → 꽃을 예뻐한다.

‘뜻이 이루어▽진다’나 ‘꽃을 예뻐▽한다’와 같이 띄어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뜻이 이루어진다’와 ‘꽃을 예뻐한다’로 붙여 써야 한다.

### 3. 조사의 띄어쓰기

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단어로 다룬다. 그렇지만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체언의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띄어 쓰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16) 겹침: <u>집에서</u> 처럼	<u>학교에서만</u> 이라도
여기서부터 <u>입니다</u>	너마저도
어미: 나가면서 <u>까지</u> 도	들어가기는 <u>커녕</u>
갈게 <u>요</u>	“알았다.” <u>라고</u>

아래의 밑줄 친 말들은 조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앞말과 띄어 쓰는 일이 많다.

- (17) ㄱ. 너같이 바보 같은 놈은 처음 봤다.  
 ㄴ. 역시 친구밖에 없어.  
 ㄷ.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던데?  
 ㄹ. “알았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  
 ㅁ.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

‘너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단 ‘너와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는 조사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너 같은’의 ‘같은’ 또한 조사가 아니다. ‘밖에’는 조사인 경우와 명사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조사로 쓰일 때는 서술어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는 특징이 있다.

- (18)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 밖에도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의 ‘밖에’는 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과는커녕’은 ‘사과는∨커녕’으로 띄어 쓰는 일이 많지만 ‘는커녕’이 하나의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알았구나.”라고의 ‘라고’는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그러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라고’와 비슷한 ‘하고’는 조사가 아닌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19) ㄱ.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는 ‘너뿐만아니라’로 모두 붙여 쓰거나 ‘너∨뿐만∨아니라’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많다. ‘뿐만’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너뿐만∨아니라’가 옳다. ‘뿐만’은 명사 뒤에서는 조사이고 관형형 어미 뒤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인다.

- (20) ㄱ. 온 사람은 철수뿐이다. (조사)  
 ㄴ. 때렸을 뿐만 아니라 (의존 명사)

#### 4. 어미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어미와 의존 명사는 겉으로 볼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문법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갖추지 않은 보통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렵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21) ㄱ.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ㄴ. 이 일을 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21ㄱ)의 ‘-는데’는 하나의 어미이고 (21ㄴ)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설명은 웬만한 문법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는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 조사가 결합하는 것은 명사류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 (22) ㄱ. 학교에 가는데에 …… (결합 불가능)  
 ㄴ. 이 일을 하는 데에 …… (결합 가능)

‘학교를 가는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붙여 쓰고 ‘이 일은 하는 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다음도 ‘에’를 상징할 수 있어서 ‘데’를 띄어 쓰는 경우다.

(23) 얼굴이 예쁜 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나바’도 두 가지 경우를 혼동하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24) ㄱ.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ㄴ. 그 일은 고려해 본 바 없다.

(24ㄱ)의 ‘본바’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24ㄴ)은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4ㄴ)의 ‘본 바’는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25)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25)를 ‘도착했는 $\vee$ 지’로 띄어 쓰는 것은 잘못이고 ‘도착했는지’로 붙여 써야 옳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는지’가 하나의 어미라는 문법적 사실을 외우기보다는 (25)와 (26)이 의미가 같고 띄어쓰기 또한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26) 제시간에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국어의 화자 중에 ‘도착했는가’를 ‘도착했는 가’로 띄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했는가’와 ‘도착했는지’가 서로 같으므로 ‘도착했는지’로 붙인다고 이해하는 것이 ‘-는지’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인다는 문법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다음의 ‘도착할지 모르겠다’의 띄어쓰기 또한 ‘도착할까 모르겠다’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27) ㄱ.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할까 모르겠다.

또한 이렇게 이해하면 아래와 같이 ‘ㄴ’과 ‘지’를 띄어 쓰는 경우도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 (28) 벌써 집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28)의 ‘떠난 지’는 문법적으로 관형형 어미 ‘ㄴ’과 의존 명사 ‘지’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러한 구성은 주로 ‘시간의 경과’를 뜻하며 띄어 쓴다는 점에서 (25)의 ‘-ㄴ지’ 구성과는 다르다.

이 둘의 띄어쓰기는 틀리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25)의 ‘도착했는지’는 ‘도착했는가’로 바꿀 수 있는 반면 (28)의 ‘떠난 지’는 ‘\*떠난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둘을 혼동하지 않고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밖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로는 ‘간’과 ‘만’이 있다. ‘간’은 접미사와 의존 명사로 쓰이고 ‘만’은 조사와 의존 명사로 쓰인다.

‘간’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렇지만 ‘거리’를 뜻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지’나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의존 명사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29) ㄱ. 한 달간, 십 년간 (시간)  
 ㄴ.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거리)

‘만’이 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주로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낸다.

- (30) ㄱ. 철수만 오너라. (한정)  
 ㄴ. 키가 형만 하다. (비교)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다. 이때는 주로 ‘만에’, ‘만이다’, ‘만이야’의 꼴로 쓰이는 특징이 있다.

- (31) ㄱ. 십 년 만에 만난 친구  
 ㄴ. 이게 얼마 만이야.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만’으로 띄어 쓰지 않는다. ‘오래간만’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한편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은 두 가지로 쓰인다.

- (32) ㄱ. 강아지가 송아지만∨하다.  
 ㄴ. 음악이 들을∨만하다/들을만하다.

‘송아지만∨하다’의 ‘만’과 ‘하다’를 접미사 ‘만하다’로 다루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이다. 이때의 ‘만하다’가 접미사라면 ‘송아지만은 하다’와 같이 중간에 보조사가 끼어드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들을∨만하다/들을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러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다.

의존 명사가 들어 있는 경우 띄어 쓴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르결’의 띄어쓰기는 ‘르 것을’로 풀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33) ㄱ. 나중에 후회할결.  
 ㄴ. 후회할 결 왜 그랬니?

(33ㄱ)의 ‘후회할결’은 ‘-르결’이 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할 것을’로 풀 수가 없다. 그렇지만 (33ㄴ)은 의존 명사 ‘것’이 들어 있는 ‘할 것을’로 풀 수 있으므로 ‘할 결’로 띄어 쓴다.

- (34) ㄱ. 사랑을 할 거야(←할 것이야)  
 ㄴ. 내일 뭐 할 거니(←할 것이니)

이러한 점은 ‘터’가 들어 있는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다. ‘할 터인데’, ‘갈 터이야’로 풀 수 있으므로 ‘할 텐데’와 ‘갈 테야’로 띄어 쓴다.

- (35) ㄱ. 비가 와야 할 텐데(←할 터인데)  
 ㄴ. 나는 집에 갈 테야(←갈 터이야)

## 5. 관형사의 띄어쓰기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한다. 아래의 예는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36) ㄱ. 각(各) 가정, 각 개인, 각 학교, 각 부처, 각 지방  
 ㄴ. 고(故) 홍길동/고인(故人), 귀(貴) 회사/귀사(貴社)  
 ㄷ. 동(同)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음.  
 ㄹ. 만(滿) 나이, 만 15세  
 ㅁ. 매(每) 경기, 매 회계 연도, 별(別) 사이가 아니다.  
 ㅂ. 연(延) 10만 명, 전(全) 국민  
 ㅅ. 갖은 양념, 탄 일, 맨 꼭대기, 못 백성, 새 신, 온 식구  
 ㅇ. 온 사람이 몇 명이나?

(36ㄴ)에서 ‘고 홍길동’과 ‘고인’의 띄어쓰기가 다른 것은 ‘고인’의 경우 ‘인(人)’이 비자립적인 일 음절 한자어이므로 띄어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귀 회사, 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6. 수 표현의 띄어쓰기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스물여섯’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스물여섯’이 합성어가 아니며 ‘스물V여섯’으로 띄어 쓴다는 말이다. 구성 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스물여섯’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여섯’은 분명히 합성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찾을 수 있다.

- (37)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규정은 ‘십이억V삼천사백오십육만V칠천팔백구십팔’과 같은 띄어쓰기에 적용되지만 ‘스물여섯’에도 적용된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은 ‘만’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스물여섯’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살’과 결합할 때는 ‘스물여섯∨살’로 띄어 쓴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다.

- (38) ㄱ. 스물여섯∨살  
 ㄴ. 26∨살(원칙)/26살(허용)

즉 한글로 적는 경우에는 ‘스물여섯∨살’만 가능하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경우에는 ‘26살’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아라비아 숫자와 다음의 단위 명사를 붙여 쓰는 현실의 직관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6∨살’보다는 ‘26살’로 쓰는 일이 많다.

아래와 같이 ‘제-’가 붙어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의 띄어쓰기 또한 혼동하는 일이 많다.

- (39) ㄱ. 제2∨차 회의(원칙)  
 ㄴ. 제2차 회의 (허용)  
 ㄷ. 제∨2차 회의(잘못)

‘제-’는 접두사이므로 뒤에 오는 말에 붙여 써야 하고 ‘차’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39ㄱ)이 원칙이고 (39ㄴ)은 허용된다. (39ㄷ)처럼 쓰는 일이 많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라비아 숫자가 올 경우 다음의 단위 명사는 무조건 붙여 쓰는 것으로 단일하게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7. 전문어와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전문어의 띄어쓰기 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일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50항)”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서 제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0) ㄱ.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40ㄱ)과 (40ㄴ)을 비교해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뜻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어에 속하는 말은 모두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아래와 같은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41) 영화-나트륨, 강장-동물, 사과-나무, 두시-언해

화합물이나 동식물의 분류상의 명칭, 책명처럼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전문어라 하더라도 띄어 쓸 수 없다.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9항)”라고 되어 있다. 단위별로 띄어 쓰도록 한 것은 자연스러운 띄어쓰기 직관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42) ㄱ. 성균관∨대학교∨문과∨대학∨부속∨연구소(단어별 띄어쓰기)

ㄴ. 성균관대학교∨문과대학∨부속연구소(단위별 띄어쓰기)

(42ㄱ)보다 (42ㄴ)의 띄어쓰기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한 직관을 보여 주기 위해 ‘단위별로 띄어 쓴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서는 위의 (42)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래는 고유 명사지만 이러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43) 이순신/이충무공, 황보민/황보∨민

사람의 성과 이름은 언제나 붙여 쓴다. 호가 올 경우도 마찬가지다. 띄어 쓸 수 있는 경우는 ‘황보민’과 같이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이다.

# 한국어 어휘와 문화

## <어휘 속의 문화, 문화 속의 어휘>

### 1. 어휘 학습의 중요성

어떤 언어를 배우든 기초가 되는 것은 발음, 어휘, 문법에 대한 지식이다. 이 중 어휘는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두 어휘 문장, 세 어휘 문장으로 모국어를 발전시킨다. 외국어 습득에서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습이 어려워지는 것은 주로 어휘 때문인데 읽기나 듣기에서 어휘를 모르면 텍스트의 이해가 어렵고(물론 문법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어휘는 그 뜻을 알 때와 모를 때 이해 정도의 차이가 아주 크다.), 말하거나 쓰기에서도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는 어휘를 알지 못하면 표현이 쉽지 않다.

어휘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휘 교육의 접근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데 어휘 교육의 접근 방법으로는 구조에 따른 교육, 의미 관계에 따른 교육, 사회언어학적 특징에 따른 교육 등 세 가지가 있다(조현용 2004). 구조에 따른 교육은 파생어와 합성어, 관용어, 음성상징어 등 국어의 어휘 형성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어휘를 학습하게 하는 접근 방법이며, 의미 관계에 따른 교육은 어휘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른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상의어, 하의어, 동음이의어, 이철자 동음어를 이용하여 어휘를 학습하게 하는 접근 방법이다. 세 번째로 사회언어학적 특징에 따른 교육은 사회언어학에서 사회 변수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경어, 완곡어, 비속어, 방언, 외래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육법을 효과적으로 응용한 교재를 이용하거나 수업을 듣게 되면 효과적으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어휘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단계에 맞는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에 따른 어휘 학습을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해 현대 국어의 어휘 사용 빈도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등급별 목록을 선정해 놓았다. (2003년) 이 목록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의 자료실에서 볼 수 있는데 1단계 982개, 2단계 2,111개, 3단계 2,872개 등 총 5,965개가 등급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어휘 목록에는 조사, 어미, 접사 등 자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조사나 어미 등은 같은 형태라도 학습 단계에 따라 배워야 하는 문법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어휘의 단어형성법을 응용하여 어휘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접사의 목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접미사 ‘-적’이나 ‘-하다’는 아주 생산적인 접사이기 때문에 결합 조건과 접사의 뜻(혹은 기능)을 제대로 학습해 놓으면 어휘 습득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 2. 한국어 어휘의 특징

한국어는 계통적으로 첨가어로서 어간에 어미가 첨가되어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철수가, 먹는다). 그리고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파생법과 합성법이 있는데, 파생법은 여기에 접두사(한-, 남-)나 접미사(-하다, -기)를 첨가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며(한겨울, 남동생/사랑하다, 글짓기), 합성법은 두 어기를 결합하여 한 어휘를 만드는 방법이다(결혼+식, 한국+말). 이를 응용하여 같은 접사를 가진 어휘를 같이 학습하거나(한겨울, 한낮, 한가운데/남학생, 남동생, 남학교), 합성법을 응용하면(결혼식, 약혼식, 장례식, 개회식, 졸업식...) 좀더 효율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다.

한국어 어휘는 기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국어에는 유의어(동의어)가 많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서로 다른 기원의 말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값/가격, 집안일/가사, 흰빛/백색, 어른/성인, 올해/금년, 찬물/냉수, 책/도서, 열쇠/키, 공책/노트, 목욕/샤워...).

한국어 어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어의 경우 같은 한자가 여러 단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알고 있으면 어휘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한자어들은 ‘집’을 뜻하는 ‘가(家)’가 포함된 단어들로 집과 관련된 뜻을 지닌다.

가구(家具), 가문(家門), 가장(家長), 가정(家庭), 가족(家族), 처가(妻家), 친가(親家)

또 다음의 말은 모두 ‘배움’을 뜻하는 ‘학(學)’이 들어 있다.

개학(開學), 방학(放學), 학교(學校), 입학(入學), 학년(學年), 학생(學生), 학원(學園)

또한 한자어에는 한글 표기는 같으나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른 동음이의

어가 많다.

부자(富者): 돈이 많은 사람	부자(父子): 아버지와 아들
수도(水道): 물을 보내는 시설	수도(首都):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
시장(市場): 물건을 사고파는 곳	시장(市長): 시를 운영하는 우두머리
신부(神父): 천주교의 성직자	신부(新婦): 혼인을 할 여자

한자어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의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고, 고유어는 원래부터 한국어에 있던 말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말에 많이 사용된다.

하나, 둘, 셋, 넷...  
 눈, 코, 입, 머리, 가슴, 다리, 팔...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언니, 오빠...  
 돌, 바위, 풀, 꽃, 나무...  
 위, 아래, 옆, 앞, 뒤...

반면 한자어에는 학문에서 사용되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나 근대화와 함께 들어온 물건들을 가리키는 데 주로 많다.

학문, 과학, 인문, 사회, 역사, 지리, 미술, 음악, 체육...  
 기차, 비행기, 철도, 안경, 전화, 전선, 전기...

외래어는 점차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서양 기원의 외래어는 대체로 특정 분야를 특정 언어가 담당하고 있다.

음악(이탈리아 어):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 콘체르토...  
 의약(독일어): 파스, 알레르기, 비타민, 칼륨, 게놈...  
 미술, 발레, 예술(프랑스 어): 샬롱, 카페, 콩쿠르, 르네상스, 바로크...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자음이나 모음을 조금씩 바꾸어 뜻이 조금씩 다른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까맣다/꺼멩다, 캄캄하다/킴킴하다…  
꼬불꼬불/꾸불꾸불, 꼭/꼭…  
깜깜하다/깜깜하다, 바르르/파르르…

이런 말 중에는 모양이나 소리를 본떠 만든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다.

의성어: 동물 소리-음매, 멍멍, 야옹, 꼬끼오, 삐악삐악, 꿀꿀, 어흥…  
사람의 웃음소리-하하, 호호, 낄낄, 킬킬, 깔깔, 까르르…  
사람의 울음소리-엉엉, 으앙, 응애응애, 흑흑, 훌쩍훌쩍, 꺽꺽, 꺾이꺾이…

의태어: 사람의 웃는 모양-방글방글, 방긋방긋, 빙긋, 썩긋, 빙그레…  
사람의 우는 모양-훌쩍훌쩍…

한국어에는 높임법이 발달해 있어 상대에 따라 어휘를 골라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아 높여야 할 경우에는 ‘나이’ 대신 ‘연세’를, ‘주다’ 대신 ‘드리다’를 사용해야 한다.

나이가 몇이니?(=몇 살이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형에게 책을 주었다.  
아버지께 책을 드렸다.

또한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술어로 ‘합니다’나 ‘해요’체를 써야 하며,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술어에 ‘-시-’를 꼭 넣어야 하고, 조사도 ‘이/가’ 대신 ‘께서’를 써야 한다.

할아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잡수셨어요?)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셨습니다.

### 3. 쉬운 우리말

여기서 우리는 자주 틀리는 우리말 어휘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먼저 가족이나

친척을 나타내는 말,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재미있는 우리말 어휘에 대해, 다음에는 국어 어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높임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 사람들도 자주 틀리는 어휘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 3.1. 재미있는 우리말

가족 및 친척을 나타내는 말: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부모님과 어머니의 부모님을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는데, 아버지의 부모님께서는 ‘친’을 붙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의 부모님께서는 ‘외’를 붙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 동생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부인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분이 결혼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삼촌’이라고 부른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삼촌’ 또는 ‘외삼촌’이라고 부르고, 그 부인은 ‘숙모’, ‘외숙모’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고모’, 그 남편은 ‘고모부’라고 부르고, 어머니의 여자 형제는 ‘이모’, 그 남편은 ‘이모부’라고 부른다.

나와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분의 자식은 사촌 관계이다. 나이에 따라 ‘사촌 형, 사촌 누나, 사촌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고, 만약에 나의 형제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에게 ‘조카’가 된다.

동기가 남자와 남자일 때는 ‘형제’를 쓰고, 남자와 여자일 때는 ‘남매’를 쓴다. ‘형제’일 때는 동생이 윗사람을 ‘형’이라고 부르지만 ‘남매’일 때는 동생이 윗사람을 ‘오빠’ 또는 ‘누나’라고 부른다. 그리고 동기가 여자와 여자일 때는 ‘자매’라고 하고, 이때는 동생이 윗사람을 ‘언니’라고 부른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

물건을 셀 때 숫자 다음에 물건을 세는 말을 붙인다. 종이는 ‘한 장, 두 장’과 같이 ‘장’으로 세고, 동물은 ‘한 마리, 두 마리’와 같이 ‘마리’로 센다. 그리고 나무는 ‘한 그루, 두 그루’와 같이 ‘그루’로 센다.

이렇게 물건의 낱말을 세는 말 이외에 물건을 묶음으로 세는 말이 있다. 달걀은 열 개를 묶어서 ‘꾸러미’라고 하고, 물고기는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어서 ‘두름’이라고 하고, 마늘이나 배추 100개를 묶어서 ‘접’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징어 스무 마리

를 묶어서 ‘축’이라고 하고, 김 100장을 묶어서 ‘툇’이라고 한다.

#### 때를 나타내는 말 :

우리말에서 때를 나타내는 말은 아주 다양하다. ‘오늘’을 중심으로 바로 전날은 ‘어제’, 어제의 전날은 ‘그저께’, 그저께의 전날은 ‘그끄저께’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 다음 날은 ‘내일’, 내일의 다음 날은 ‘모레’, 모레의 다음 날은 ‘글피’라고 한다. ‘널모레’라는 말도 있는데 ‘글피’를 뜻하는 것 같지만 ‘모레’와 같은 말이다.

‘해’도 ‘올해’(‘금년’이라고도 함)를 중심으로 올해의 바로 앞의 해는 ‘작년’ 또는 ‘지난해’, 그 앞의 해는 ‘재작년’ 또는 ‘지지난해’라고 한다. 그리고 ‘올해’를 중심으로 그 다음 해는 ‘내년’, 내년의 다음 해는 ‘내내년’ 또는 ‘후년’, 그 다음 해는 ‘내후년’이라고 한다.

#### 바람을 나타내는 말: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동풍은 ‘셋바람’, 서풍은 ‘하늬바람’, 남풍은 ‘마파람’, 북풍은 ‘된바람’이라고 부르고 ‘높새바람’은 북동풍을 말한다.

그리고 바람의 모양이나 강도, 부는 시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꽃샘바람’은 봄에 꽃이 필 때 쌀쌀하게 부는 바람을 말하고, ‘소슬바람’은 가을에 쓸쓸한 느낌을 주며 부는 바람, ‘건들바람’은 초겨울에 선들선들 부는 바람, ‘선들바람’은 가볍고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말한다.

#### 눈을 나타내는 말:

눈은 ‘가루눈, 싸라기눈, 진눈깨비, 포슬눈, 함박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루눈’은 말 그대로 가루와 같이 내리는 눈을 말하고, 쌀알 같은 눈은 ‘싸라기눈’, 비가 섞여 내리는 눈은 ‘진눈깨비’, 가늘고 성기게 내리는 눈은 ‘포슬눈’,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은 ‘함박눈’이라고 한다.

#### 비를 나타내는 말: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모양을 보고 재미있게 이름을 붙였는데 ‘눈개’는 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고, ‘이슬비’는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로, 눈개보다 굵고 가랑비보다는 가늘게 내리는 비를 말한다. ‘가랑비’는 이슬비보다는 좀 굵지만 소나기나 작달비보다는 가는 비를, ‘작달비’는 굵고 역세게 내리는 비를 가

리키며, 갑자기 내리다가 멈추는 비는 ‘소나기’라고 한다. 그리고 해가 날 때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는 ‘여우비’라고 한다.

####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

아기가 코 고는 소리는 ‘쿨쿨’, 아빠가 코 고는 소리는 ‘쿨쿨’이라고 한다. ‘쿨쿨’과 ‘쿨쿨’은 소리의 크기를 달리 나타내는 말인데, 작은 소리를 나타내는 ‘쿨쿨’은 ‘작은말’, 큰 소리를 나타내는 ‘쿨쿨’은 ‘큰말’이라고 한다. 별빛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날 때와 보석이 눈이 부시게 ‘빽빽빽빽’ 빛날 때처럼 빛의 세기가 다를 때 표현하는 말도 있는데, ‘반짝반짝’처럼 여러개 빛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여린말’이라고 하고, ‘빽빽빽빽’처럼 세게 빛나는 말은 ‘센말’이라고 한다.

#### 웃는 소리, 웃는 모양:

웃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에는 ‘하하, 호호, 킬킬, 깔깔, 까르르’ 등이 있는데 ‘하하’는 주로 남자 어른이 웃는 소리를 ‘호호’는 여자의 웃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킬킬’은 귀신이나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악당이 음흉하게 웃는 소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며, ‘깔깔’은 재미있지만 그 웃음소리를 참을 때 내는 소리이다. ‘까르르’는 너무 재미있어 자지러지게 굴러갈 듯 웃는 소리이다.

아이가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귀엽게 웃을 때에는 ‘방글방글’, ‘방긋방긋’ 웃는다고 하고, 어른이 그렇게 웃을 때에는 ‘빙그레’ 웃는다고 한다. 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자꾸 웃을 때에는 ‘생글생글’ 웃는다고 하고, ‘생그레’라는 말도 있는데 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웃을 때 쓰는 말이다. 이 외에도 ‘히죽’과 ‘씩’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히죽’은 만족스러운 듯이 슬쩍 한 번 웃는 모양을 말하고, ‘씩’은 소리 없이 싱겁게 얼핏 한 번 웃는 모양을 말한다.

#### 웃음의 종류:

웃음을 나타내는 말은 웃는 모양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른데 큰 소리로 시원하게 웃는 웃음은 ‘너털웃음’, 소리 없이 눈으로만 웃는 웃음은 ‘눈웃음’(눈웃음을 치다), 염소처럼 채신머리없이 웃는 웃음은 ‘염소웃음’, 잔잔하게 웃는 웃음은 ‘잔웃음’, 크고 환하게 웃는 웃음은 ‘함박웃음’이라고 한다.

**우는 소리나 우는 모양 :**

어른이 울 때는 ‘엉엉’ 운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울 때는 ‘앙앙’ 운다고 한다. 그리고 젖먹이가 울 때는 ‘으앙으앙, 응애응애’ 운다고 하며, ‘꺼꺼’은 숨이 막힐 정도로 우는 소리를, ‘후후’은 설움이 북받쳐 자꾸 숨을 거칠게 쉬며 우는 소리를 말한다.

**울음의 종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우는 울음은 ‘떼울음’이라고 하고, 목이 잠긴 채 우는 울음은 ‘목울음’이라고 하고, 겉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속으로 우는 울음은 ‘속울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말 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우는 울음은 ‘건성울음, 건울음’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용울음, 황소울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울음’은 갑자기 내는 큰 울음을 말하고 ‘황소울음’은 황소의 울음소리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는 울음을 말한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말:**

손을 폈을 때 가장 짧고 굵은 첫 번째 손가락은 ‘엄지손가락’, ‘엄지’라고 하는데, 커서 ‘대지’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손가락은 ‘검지’라고 하는데, 집게처럼 쓸 수 있어서 ‘집게손가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 손가락은 가운데에 있어서 ‘중지(中指)’, ‘가운뎃손가락’이라고 하는데, 가장 길어서 ‘장지(長指)’라고도 하며, 그 다음에 있는 네 번째 손가락은 그 손가락으로 한약을 저었다고 해서 ‘약손가락, 약지(藥指)’라고 하며 이름이 없는 손가락이라고 해서 ‘무명지(無名指)’라고도 부른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있는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는데, 가장 작아서 ‘소지(小指)’라고도 부른다.

**이를 가리키는 말:**

‘이’는 나는 시기나 모양,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갓난아이일 때 이가 나서 6살이나 7살쯤에 빠지고 새로 나는데, 갓난아이 때 난 이를 ‘젓니, 배냇니’라고 하고, 그 후에 나는 이를 ‘간니’라고 한다. 앞에 있는 이는 ‘앞니’, 음식을 씹을 때 쓰는 안쪽에 난 이는 ‘어금니’, 그 사이에 뽀족한 이는 ‘송곳니’라고 한다. 젓니를 제때 빠지지 않아 그 위에 덧나는 이는 ‘덧니’이고, 밖으로 나온 앞니는 ‘빠드렁니’라고 한다. ‘떡니, 대문니’라는 것도 있는데 앞니 가운데 있는 넓적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동물과 그 새끼:**

동물과 그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개’의 새끼는 ‘강아지’, ‘말’의 새끼는 ‘말아지’, ‘닭’의 새끼는 ‘병아리’라고 한다. 그리고 ‘호랑이’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은 ‘개호주’이고, ‘고등어’의 새끼는 ‘고도리’라고 한다.

**맛을 나타내는 말:**

맛에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이 있으며, 음식이 ‘달다, 시다, 짜다, 쓰다, 맵다’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말 이외에 맛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말들이 많은데, ‘단맛’이 있을 때는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라고 말하고, ‘신맛’이 있을 때는 ‘새콤하다, 시큼하다’라고 말하고, ‘짠맛’이 있을 때는 ‘ 짹짹하다, 짹짹하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쓴맛’이 있을 때는 ‘씹새래하다, 씹쓰레하다’라고 말하고, ‘매운맛’이 있을 때는 ‘매콤하다’라고 말한다.

**그릇의 이름:**

음식은 모두 같은 그릇에 담는 것 같지만 음식에 따라 담는 그릇의 이름이 다르다. 밥은 ‘주발’이나 ‘공기’에 담는데, ‘주발’은 위가 약간 벌어지고 뚜껑이 있는 반면 ‘공기’는 위가 넓게 벌어지고 밑이 좁다. 국은 ‘사발’이나 ‘탕기’ 또는 ‘대접’에 담는다. 그리고 김치나 깍두기는 ‘보시기’에 담고, 간장이나 고추장은 ‘종지’에 담는다. 이 외에 ‘접시, 개인 접시(앞접시), 반찬 그릇, 컵, 머그(컵), 커피 잔’ 같이 용도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다르다.

**명태의 다른 이름:**

우리가 먹는 ‘생태, 동태, 북어, 황태, 노가리’는 모두 ‘명태’라는 생선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명태를 얼린 것은 ‘동태’, 말린 것은 ‘북어’라고 하고, 얼리지도 말리지도 않은 것은 ‘생태’라고 한다. 얼려서 말린 누르스름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황태’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다.

**떡의 종류:**

떡은 주로 명절이나 행사 때 먹는 음식인데 떡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설날에 떡국에 넣으려고 만든 둥글고 긴 모양의 떡은 ‘가래떡’이고, 추석에 ‘콩, 밤, 깨’ 등

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만든 떡은 ‘송편’이다.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겉에도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납작한 떡은 ‘절편’이고, 찹쌀로 만들어 겉에 콩고물을 묻힌 떡은 ‘인절미’, 백일이나 돌에 먹는 하얀 떡은 ‘백설기’이고, 가게를 열거나 이사했을 때 다른 집에 돌리는 떡은 ‘시루떡’이라고 한다. 층마다 여러 가지 빗깔을 내어 만든 떡도 있는데 이는 ‘무지개떡’이라고 한다.

#### 김치의 종류: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는 그 종류가 한 가지인 것 같지만 쓰이는 재료나 모양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배추로 담그면 ‘배추김치’, 무로 담그면 ‘무김치’, 총각무로 담그면 ‘총각김치’, 파로 담그면 ‘파김치’이다. 무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를 작고 네모나게 썰어 담근 김치는 ‘깍두기’라고 하고,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소금에 절인 통무에 끓인 소금물을 식혀서 붓고 심심하게 담근 김치를 ‘동치미’라고 한다. 그리고 오이로 담근 김치는 ‘오이소박이’라고 하고, 보통 김치와는 달리 잣, 밤, 배 등 갖가지 재료를 넣어 배추 잎으로 싸 김치는 ‘보쌈김치’라고 한다.

#### 전통 놀이:

‘강강술래’는 정월 대보름날(음력 1월 15일)이나 팔월 한가위(추석, 음력 8월 15일)에 남부 지방에서 행하는 민속놀이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고무줄놀이’는 주로 여자 아이들이 고무줄을 가로지르고 노래에 맞추어 줄을 넘으면서 고무줄이 발에 닿지 않게 하거나 고무줄에 다리를 높이 거는 놀이이다.

‘꼬리잡기’는 어린이들이 하는 민속놀이의 하나로, 두 편으로 나누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일렬로 늘어서서 맨 앞사람이 상대방의 맨 뒷사람을 붙잡는 방법과 한 명의 술래가 일렬로 늘어진 사람 가운데 맨 뒷사람을 붙잡는 방법이 있다.

‘구슬치기’는 구슬을 가지고 상대방의 구슬을 맞추거나 동그랗게 원을 그려 놓고 그곳에 구슬을 넣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구슬을 따먹는 놀이이다.

‘그림자밟기’는 달밤에 술래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밟는 놀이이다.

‘땅따먹기’는 정한 땅에 각자의 말을 통긴 대로 금을 그어서 땅을 빼앗아 가며 노는 놀이이다.

‘돌치기(비사치기)’는 손바닥만한 납작한 돌을 세워 놓고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돌을 던져 맞추거나 발로 돌을 차서 맞추어 넘어뜨리는 놀이이다.

**절기:**

‘절기’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일 년을 나눈 것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려준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이렇게 스물네 개가 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을 ‘입춘’,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을 ‘입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을 ‘입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날을 ‘입동’이라고 한다. 봄에는 ‘춘분’, 가을에는 ‘추분’이 있는데 이때에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여름에 있는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뜻이고 ‘대서’는 큰 더위라는 뜻으로, ‘소서’ 때 무더위가 시작되고 ‘대서’ 때 가장 덥다고 한다. 겨울도 마찬가지로 ‘소한’과 ‘대한’이 있고 ‘대한’은 한 해 중 가장 추운 때이다.

**집을 나타내는 말:**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은 지붕을 어떤 재료로 이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랐다. 짚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은 ‘초가집’, 기와로 지붕을 올린 집은 ‘기와집’, 기와는 아닌데 기와와 비슷한 얇은 돌 조각으로 지붕을 올린 집은 ‘너와집’이라고 한다. 그리고 집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큰 통나무를 ‘井’ 자 모양으로 귀를 맞추어 층층이 엮고 그 틈을 흙으로 메워 지은 집은 ‘귀틀집’이라고 하고, 마룻바닥이 지면보다 높게 되거나 이층으로 지은 집은 ‘다락집’이라고 한다.

현대에 우리가 사는 집을 가리키는 말로는 주거 형태에 따라 ‘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이 있고, 형태와 관계없이 집이 자기 집인지 또는 연이나 월 단위로 빌린 집인지에 따라 ‘자택, 전세, 월세’로 구분하여 말하기도 한다.

**3.2. 높임말**

**내가/제가** → 내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 “내가 도와드릴까요?”에서 ‘내가’는 ‘제가’로 써야 한다.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를 말할 때에는 ‘저’를 쓰고 ‘저’는 뒤에 ‘가’가 붙으면 ‘제가’가 된다. “나도 가고 싶어요.”는 “저도 가고 싶어요.”로, “내가 할게요.”는 “제가 할게요.”로 쓴다.

**우리/저희** → 선생님, 우리가 할 일이 없나요? 선생님, 저희가 할 일이 없나요? : “선생님, 우리가 할 일이 없나요?”에서 ‘우리가’는 ‘저희가’로 써야 한다. 윗사람에게 ‘우리’를 말할 때는 ‘저희’라고 쓴다.

**나이/연세, 춘추** → 할아버지 나이? 할아버지 연세? : “할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에서 ‘나이’는 ‘연세’로 써야 한다. 어른의 나이를 묻거나 말할 때에는 ‘연세’나 ‘춘추’를 쓴다.

**말/말씀** → 선생님 말? 선생님 말씀? : “판생각하느라 선생님 말을 못 들었다.”에서 ‘선생님 말’은 ‘선생님 말씀’으로 써야 한다. 윗사람의 말은 ‘말씀’이라고 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말을 낮추어 말할 때에도 ‘말씀’을 쓴다.

**병/병환** → 할아버지 병은 어떠시니? 할아버지 병환은 어떠시니? : “할아버지 병은 어떠시니?”에서 ‘병’은 ‘병환’으로 써야 한다. 윗사람의 병은 ‘병환’이라고 한다.

**생일/생신** → 할아버지 생일? 할아버지 생신? : “할아버지 생일을 맞아 잔치를 벌였다.”에서 ‘생일’은 ‘생신’으로 써야 한다. 윗사람의 생일은 ‘생신’이라고 한다.

**식사/진지** → 할아버지 밥 먹어요?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 “할아버지 밥 먹어요.”에서 ‘밥 먹어요’는 ‘진지 잡수세요’로 써야 한다. 윗사람에게는 ‘밥’을 ‘진지’라고 하고, 윗사람에게 식사를 권하는 인사말은 “진지 잡수세요.”이다.

**집/댁** → 외삼촌 집에 갔다? 외삼촌 댁에 갔다? : “외삼촌 집에 갔다.”에서 ‘집’은 ‘댁’으로 써야 한다. 남의 집이나 가정을 높여 이르는 말은 ‘댁’이다.

**이/께서** → 할아버지가 오신다? 할아버지께서 오신다? : “할아버지가 오신다.”에서 ‘할아버지가’는 ‘할아버지께서’로 써야 한다. ‘이/가’는 주어에 붙는데, 주어가 윗사람일 때 ‘께서’를 쓴다.

**데리다/모시다** →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다.”에서 ‘데리고’는 ‘모시고’로 써야 한다. 동생이나 동물에게는 ‘데리다’를 쓰지만 윗사람한테는 ‘모시다’를 쓴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에 갔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먹다/잡수시다** → 할아버지 점심 먹으세요? 할아버지 점심 잡수세요? : “할아버지 점심 먹으세요.”에서 ‘먹으세요’는 ‘잡수세요’로 쓴다.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고 계신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와 같이 윗사람에게는 ‘먹다’ 대신에 ‘잡수다, 잡수시다’를 쓴다.

**묻다/여쭙다** → 선생님께 물어 봐야지? 선생님께 여쭙 봐야지? : “선생님께 물어

봐야지.”에서 ‘물어’는 ‘여쭙’로 써야 한다. 윗사람께 말씀을 올리는 경우에는 ‘여쭙다, 여쭙다’를 쓴다.

**수고하다** → 할아버지 수고하세요? : ‘수고하다’는 ‘고생하다’라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수고하세요.”라고 하면 윗사람에게 고생하라고 말하는 것이어서 실례가 된다. 그래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있다/계시다** → 할아버지 집에 있어요? 할아버지 집에 계세요? : “할아버지 집에 있어요?”에서 ‘있어요’는 ‘계세요’로 써야 한다. ‘있다’를 윗사람에게 쓸 때는 ‘계시다’라고 하며, “할아버지 집에 있으세요?”도 잘못이다.

**아프다/편찮다** → 어머니 많이 아프시니?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니? : “어머니 많이 아프시니?”에서 ‘아프시니’는 ‘편찮으시니’로 써야 한다. 윗사람이 아플 때는 ‘편찮다’를 쓴다.

**자다/주무시다** → 아버지 자요? 아버지 주무세요? : “아버지 자요?”에서 ‘자요’는 ‘주무세요’로 써야 한다. 윗사람이 잘 때는 ‘주무시다’를 쓴다.

**죽다/돌아가다** → 병아리가 죽었어요? 병아리가 돌아가셨어요? : “병아리가 돌아가셨어요.”에서 ‘돌아가셨어요’는 ‘죽었어요’로 써야 한다. ‘돌아가시다’는 윗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말이다.

### 3.3.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

**가리키다/가르치다** →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다? :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집이 우리 집이다.”에서 ‘가르치는’은 ‘가리키는’으로 써야 한다. 일깨워서 알게 하는 것은 ‘가르치다’이고, 직접 알리는 것은 ‘가리키다’이다. “할머니께 길을 가르쳐 주었다.”와 “손으로 친구를 가리켰다.”와 같이 구분하여 써야 한다.

**갑절/곱절** → 세 갑절? 세 곱절? : ‘갑절’은 어떤 수량을 두 번 합친다는 뜻이고, ‘곱절’은 같은 수량을 몇 번이고 합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 곱절’은 가능하지만 ‘세 갑절’은 잘못 쓰인 것이다. 두 배 많을 때는 “갑절이 나 많다.”, “곱절이나 많다.”와 같이 쓸 수 있다.

**그을리다/그슬리다** → 햇볕에 그을려서? 햇볕에 그슬려서? : “햇볕에 그슬려서 얼굴이 새까맣다.”에서 ‘그슬려서’는 ‘그을려서’로 써야 한다. 햇볕에 살갓이 검게 되거나 촛불 따위의 검은 연기가 묻는 것은 ‘그을리다’이고, 사람이나 짐승의 털이 불에 닿아 약간 타는 것은 ‘그슬리다’이다.

**껍질/껍데기** → 달걀 껍질? 달걀 껍데기? : ‘달걀 껍질’은 ‘달걀 껍데기’로 써야 한다.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껍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을 가리키는 말은 ‘껍데기’이고,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껍을 싸고 있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은 ‘껍질’이다. ‘굴 껍데기, 소라 껍데기’와 ‘굴 껍질, 양파 껍질’과 같이 구분하여 쓴다.

**꼬리/꽂지** → 참새 꼬리? 참새 꽂지? : ‘참새 꼬리’는 ‘참새 꽂지’로 써야 한다. ‘꼬리’는 네발짐승의 엉덩이 끝에 가늘고 길게 내민 부분을 말하고, ‘꽂지’는 새의 몸 뒤에 빼죽 내민 깃을 말한다. 강아지한테는 ‘꼬리’가 있지만 참새한테는 ‘꽂지’가 있다.

**늘이다/늘리다** → 고무줄을 늘리다? 고무줄을 늘이다? : ‘고무줄을 늘리다’의 ‘늘리다’는 ‘늘이다’로 써야 한다. 힘을 가해서 길어지게 하는 경우에는 ‘늘이다’를 쓰고, 양이나 수를 늘게 하는 경우에는 ‘늘리다’를 쓴다. “옛 가락을 늘였다.”와 “공부 시간을 늘렸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다르다/틀리다** →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틀리다? : “동생과 나는 성격이 틀리다.”에서 ‘틀리다’는 ‘다르다’로 써야 한다. ‘틀리다’는 맞지 않다는 뜻이며, ‘다르다’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답이 틀리다, 계산이 틀리다’와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다리다/달이다** → 한약을 다리다? 한약을 달이다? : “엄마가 한약을 다려 주셨다.”에서 ‘다려’는 ‘달여’로 써야 한다. ‘다리다’는 옷의 구김을 펴는 것을 말하고, ‘달이다’는 한약이나 간장 따위를 끓여 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옷을 다리다’와 ‘약을 달이다, 간장을 달이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두껍다/두텁다** → 친분이 두껍다? 친분이 두텁다? : “두 분은 친분이 두꺼우시다.”에서 ‘두꺼우시다’는 ‘두터우시다’로 써야 한다. ‘두껍다’는 ‘책이 두껍다, 이불이 두껍다’와 같이 사물의 두께가 보통보다 큰 경우에 쓰고, ‘두텁다’는 ‘신앙이 두텁다, 두터운 교분’과 같이 신앙, 믿음, 인정 등이 굳고 깊은 경우에 쓴다.

**띠다/띄다** → 두 줄을 띠다? 두 줄을 띄다? : “두 줄을 띠어 썼다.”에서 ‘띠어’는 ‘띄어’로 써야 한다. ‘허리띠를 띠다, 노기를 띠다’와 같이 두르거나 지니는 경우에는 ‘띠다’를 쓰고, ‘적당히 띄어 앉다’와 같이 공간이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띄다’를 쓴다. 그리고 ‘눈에 띄다, 귀가 번쩍 띄다’와 같이 뜨게 하는 경우에도 ‘띄다’를 쓴다.

**로서/로써** → 형으로써? 형으로서? : “형으로써 책임을 다했다.”에서 ‘형으로써’는 ‘형으로서’로 써야 한다. ‘로써’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 ‘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로 쓰인다.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마중/배웅** → 전학 가는 친구 마중? 전학 가는 친구 배웅? : “전학 가는 친구를 마중하고 왔다.”에서 ‘마중’은 ‘배웅’으로 써야 한다. 오는 사람을 맞이할 때는 ‘마중’을 쓰고, 떠나는 사람을 보낼 때는 ‘배웅’을 쓴다.

**맞히다/맞추다** → 정답을 맞히다? 정답을 맞추다? : “퀴즈의 정답을 맞추다.”에서 ‘맞추다’는 ‘맞히다’로 써야 한다. ‘맞히다’에는 ‘적중하다’의 뜻이 있고 ‘맞추다’에는 ‘대상끼리 서로 비교하다’의 뜻이 있다.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맞춰 봐라.”와 “답안지와 정답을 맞춰 보았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매다/메다** → 밥을 급히 먹어 목이 매다? 밥을 급히 먹어 목이 메다? : “밥을 급히 먹어 목이 뻐다.”에서 ‘뻐다’는 ‘뻐다’로 써야 한다. ‘매다’는 ‘끈을 매다, 그네를 매다’와 같이 쓰이고 ‘메다’는 ‘구멍이 메다, 배낭을 메다’와 같이 쓰인다.

**먹다/마시다** → 산에 올라가 신선한 공기를 먹었다? 산에 올라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 “산에 올라가 신선한 공기를 먹었다.”에서 ‘먹었다’는 ‘마셨다’로 써야 한다. ‘음료수를 마시다, 국물을 마시다’와 같이 액체를 넘기는 경우 외에 공기나 냄새 따위를 입이나 코로 들이쉬는 경우에도 ‘마시다’를 쓴다.

**발견/발명** → 로봇을 발견하다? 로봇을 발명하다? : “심부름하는 로봇을 발견해야지.”에서 ‘발견해야지’는 ‘발명해야지’로 써야 한다. ‘발견’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미처 찾지 못한 사물, 진리 등을 알아내는 것이고, ‘발명’은 이 세상에는 없는, 쓸모 있는 물건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신대륙 발견”과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기계 발명”과 같이 쓴다.

**벌이다/벌리다** → 싸움을 벌이다? 싸움을 벌리다? : “친구와 싸움을 벌리다.”에서 ‘벌리다’는 ‘벌이다’로 써야 한다.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는 뜻을 나타내고, ‘벌리다’는 ‘사이를 넓히거나 연다’는 뜻을 나타낸다. ‘줄 간격을 벌리다, 입을 벌리다’와 ‘잔치를 벌이다, 논쟁을 벌이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벗겨지다/벗어지다** → 신발이 커서 벗겨지다? 신발이 커서 벗어지다? : “신발이

커서 자꾸 벗겨진다.”에서 ‘벗겨진다’는 ‘벗어진다’로 써야 한다.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떼어지거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벗겨지다’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벗어지다’를 쓴다. “신발이 작아서 잘 안 벗겨진다.”와 “신발이 커서 걸을 때마다 벗어진다.”, “머리가 벗어졌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보전/보존** → 문화재 보전? 문화재 보존? : “문화재 보전에 힘써야겠다.”에서 ‘보전’은 ‘보존’으로 써야 한다. ‘보존’은 그냥 놔두면 망가지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대상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보전’은 현재의 상태를 지켜서 앞으로도 같은 상태에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물 보존’과 ‘영토 보전’과 같이 구별하여 쓴다.

**봉우리/봉오리** → 산봉오리? 산봉우리? : ‘산봉오리’는 ‘산봉우리’로 써야 한다. 아직 피지 않는 꽃을 이르는 말은 ‘꽃봉오리, 봉오리’이고, 산에서 뽕죽하게 높이 솟은 부분을 이르는 말은 ‘산봉우리, 봉우리’이다.

**부치다/붙이다** → 우표를 부치다? 우표를 붙이다? : “우표를 부쳤다.”에서 ‘부쳤다’는 ‘붙였다’로 써야 한다. ‘붙다’의 의미가 살아 있으면 ‘붙이다’를, 그렇지 않으면 ‘부치다’를 쓴다. ‘벽에 포스터를 붙이다, 불을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와 ‘편지를 부치다, 힘에 부치다, 전을 부치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비치다/비추다** → 손전등을 비치다? 손전등을 비추다? : “손전등을 비치 봐라.”에서 ‘비치’는 ‘비추어, 비춰’로 써야 한다. ‘비추다’는 ‘불을 비추다, 달빛이 방을 비추다’와 같이 쓰이고, ‘비치다’는 ‘빛이 비치다’와 같이 쓰인다.

**빨리/일찍** → 학교에 빨리 가다? 학교에 일찍 가다? : “주변이라서 학교에 빨리 가야 해요.”에서 ‘빨리’는 ‘일찍’으로 써야 한다. ‘빨리’는 움직이는 속도가 보통 정도보다 큰 것이고 ‘일찍’은 어떤 시각이 정해진 시각보다 앞선 것을 말한다.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빨리 달린다.”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왔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식해/식혜** → 떡이랑 식해? 떡이랑 식혜? : “떡이랑 식해를 주셨다.”에서 ‘식해’는 ‘식혜’로 써야 한다. ‘식혜’는 ‘생선에 약간의 소금과 쌀밥을 섞어 숙성시킨 식품’을 말하고 ‘식혜’는 ‘쌀밥을 엇기름으로 삭혀서 설탕을 넣고 차게 식힌 음료’를 말한다. 우리가 마시는 것은 ‘식혜’다.

**신다/입다** → 양말을 입다? 양말을 신다? : “양말을 거꾸로 입었어요.”에서 ‘입었

어요’는 ‘신었어요’로 써야 한다. 옷을 몸에 걸치는 것은 ‘입다’이고 신발이나 양말 등을 발에 껴는 것은 ‘신다’이다. ‘옷을 입다’와 ‘신발을 신다, 양말을 신다’와 같이 구별하여 쓴다.

**씩이다/씩히다** → 속을 썩이다? 속을 썩히다? : “진학 문제로 속을 썩히고 있다.”에서 ‘썩히고’는 ‘썩이고’로 써야 한다. ‘썩히다’는 ‘거름을 썩히다, 재능을 썩히다’와 같이 쓰이고 ‘씩이다’는 ‘속을 썩이다’와 같이 쓰인다.

**안/못** → 이 문제는 어려워서 안 풀겠어요? 이 문제는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 “이 문제는 어려워서 안 풀겠어요.”에서 ‘안’은 ‘못’으로 써야 한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못’을 쓰고 하기 싫은 경우에는 ‘안’을 쓴다. “몸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겠어요.”와 “영화를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알갱이/알맹이** → 모래 알갱이? 모래 알맹이? : ‘모래 알맹이’는 ‘모래 알갱이’로 써야 한다. ‘알갱이’는 곡식, 모래 따위와 같이 작고 동글동글하며 단단한 물질을 말하고 ‘알맹이’는 껍질이나 껍데기에 싸여 있는 작은 물질을 말한다. “알맹이만 빼 먹고 껍데기는 버렸어요.”와 “쌀 알갱이 하나도 버리지 마라.”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알은체/아는 체** → 친구가 알은체도 하지 않고 가 버렸다? 친구가 아는 체도 하지 않고 가 버렸다? : “친구가 아는 체도 하지 않고 가 버렸다.”에서 ‘아는 체’는 ‘알은체’로 써야 한다. 서로 보고 인사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은체, 알은척’이라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아는 척, 아는 체’라고 한다. “다음에 만나 봐라, 알은체나 하나.”와 “잘 모르면서 아는 체해서 친구들이 싫어한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얇다/열다** → 얇은 분홍색? 열은 분홍색? : ‘얇은 분홍색’은 ‘열은 분홍색’으로 써야 한다. ‘얇다’와 ‘열다’는 깊지 않다는 뜻으로 ‘물이 얇다/열다, 생각이 얇다/열다’와 같이 쓰인다. 그러나 진하지 않다는 뜻일 때는 ‘열은 화장기, 커피를 열게 탔다’와 같이 ‘열다’만 쓴다.

**윗옷/웃웃** → 윗옷? 웃웃? : “추우니까 윗옷을 걸치고 가거라.”에서 ‘윗옷’은 ‘웃웃’으로 써야 한다. ‘웃웃’은 ‘겉옷’을 말하고, ‘윗옷’은 ‘상의(上衣)’를 말한다. “더워서 웃웃을 벗었어요.”와 “키가 커서 바지는 작는데 윗옷은 맞아요.”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이/이빨** → 이빨이 아프다? 이가 아프다? :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에서

‘이빨’은 ‘이’로 써야 한다. ‘이빨’은 ‘이’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동물에게 많이 쓰고 사람에게는 ‘이’를 쓴다.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와 “밥을 먹고 꼭 이를 닦는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일절/일체** → 일절 먹지 마라? 일체 먹지 마라? : “일체 먹지 마라.”에서 ‘일체’는 ‘일절’로 써야 한다. ‘일절’은 “출입을 일절 금한다.”와 같이 부정하거나 금지할 때 쓰는 말이고, ‘일체’는 “재산 일체를 사회에 기부했다.”와 같이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이다.

**잃다/잊다** → 지갑을 잃어버리다? 지갑을 잊어버리다? : “학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에서 ‘잊어버렸다’는 ‘잃어버렸다’로 써야 한다. ‘잊다’는 ‘기억하다’와 짝을 이루고, ‘잃다’는 ‘찾다’와 짝을 이룬다. “바빠서 친구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다.”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할아버지가 찾아 주셨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입/부리/주둥이** → 앵무새 입? 앵무새 부리? 앵무새 주둥이? : ‘앵무새 입’은 ‘앵무새 부리’로 써야 한다. ‘입’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신체 기관인데, 새는 ‘부리’라고 하므로 참새나 독수리는 ‘입’이 아니라 ‘부리’로 먹는다고 해야 한다. ‘주둥이’는 사람이나 동물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말인데, 사람에게 쓰면 점잖지 않은 표현이라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작다/적다** → 옷이 작다? 옷이 적다? : “옷이 적어서 입을 수가 없어요.”에서 ‘적어서’는 ‘작아서’로 써야 한다. 크기를 나타낼 때는 ‘작다’를 쓰고, 양이나 수를 나타낼 때는 ‘적다’를 쓴다. “동생은 나보다 키가 작아요.”와 “숙제가 적어서 일찍 끝냈어요.”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장사/장수** → 과일 장사한테 사과를 샀어요? 과일 장수한테 사과를 샀어요? : “과일 장사한테 사과를 샀어요.”에서 ‘장사’는 ‘장수’로 써야 한다. ‘장사’는 파는 행위를 뜻하고, ‘장수’는 파는 사람을 뜻한다. “호떡 장수는 지금 장사하느라 바쁘다.”와 같이 쓴다.

**크다/많다** → 고민이 크다? 고민이 많다? : “고민이 얼마나 큰데요.”에서 ‘큰데요’는 ‘많은데요’로 써야 한다. 크기를 나타낼 때는 ‘크다’를 쓰고, 양이나 수를 나타낼 때는 ‘많다’를 쓴다. “키가 커서 맨 끝자리에 앉아요.”와 “착해서 친구가 많아요.”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큰소리/큰 소리** → 큰소리로 떠들지 마라? 큰 소리로 떠들지 마라? : “큰소리로 떠들지 마라.”에서 ‘큰소리’는 ‘큰 소리’로 써야 한다. ‘큰소리’는 ‘야단

치는 소리, 과장하여 떠드는 소리'를 말하고, 소리가 큰 경우에는 '큰 소리'로 쓴다. “너, 큰소리가 나와 말을 듣겠니?”, “문제없다고 큰소리는 쳤지만 걱정이다.”와 “큰 소리로 발표합니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튀기다/부치다, 지지다** → 김치전을 튀기다? 김치전을 부치다? : “엄마가 맛있는 김치전을 튀겨 주셨다.”에서 ‘튀겨’는 ‘부쳐’로 써야 한다. ‘튀기다’는 끓는 기름에 넣어 부풀게 하는 것을 말하고, ‘부치다’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이나 전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새우를 튀기다’와 ‘빈대떡을 부치다’로 구분하여 쓴다.

**파괴/붕괴** → 지진으로 건물이 파괴되었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었다? : “지진으로 건물이 파괴되었다.”에서 ‘파괴되었다’는 ‘붕괴되었다’로 써야 한다. ‘파괴’는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 버린다는 뜻이고, ‘붕괴’는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뜻이다.

**해어지다/헤어지다** → 옷이 헤어졌다? 옷이 헤어졌다? : “옷이 헤어져서 무릎이 나와요.”에서 ‘헤어져서’는 ‘해어지다’로 써야 한다. 옷이 낡아서 떨어지는 것은 ‘해어지다’이고, 모여 있던 사람이 흩어지는 것은 ‘헤어지다’이다. “신발이 헤어져서 물이 샌다.”와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왔다.”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혼동/혼돈** → 할아버지 목소리와 아빠 목소리를 혼동하다? 혼돈하다? : “할아버지 목소리와 아빠 목소리를 혼돈했어요.”에서 ‘혼돈’은 ‘혼동’으로 써야 한다. ‘혼동’은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혼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혼돈에 빠지다)

**홀몸/홀몸** → 홀몸이 아니다? 홀몸이 아니다? : “홀몸이 아니니 몸조심해라.”에서 ‘홀몸’은 ‘홀몸’으로 써야 한다. ‘임신하고 있다’는 뜻으로는 ‘홀몸이 아니다’만 맞다. ‘배우자나 형제가 없다’는 뜻으로는 ‘홀몸, 홀몸’ 다 쓸 수 있다.

**환송회/환영회** → 신입생 환송회? 신입생 환영회? : ‘신입생 환송회’는 ‘신입생 환영회’로 써야 한다. ‘환송’은 기쁜 마음으로 보낼 때 쓰는 말이고, ‘환영’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때 쓰는 말이다. ‘졸업생 환송회’와 ‘신입생 환영회’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 <외래어, 한국 현대 문화의 거울>

### 1. 서론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국립국어원 간행)에 실려 있는 총 440,594개의 주표제어에서 외래어는 총 24,019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40,542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그리고 순수 외래어 24,019개 가운데 21,492개(순수 외래어의 89.5%)가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외래어 가운데 열에 아홉은 영어와 관련되는 말인 셈이다. 이는 한자어를 제외하여 말한다면 외국어 가운데 영어가 우리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구분 \ 어종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
표제어 수 (440,594)	111,156	252,278	24,019	36,618	1,323	14,480	720
백분율 (100%)	25.2	57.3	5.4	8.3	0.3	3.3	0.2

그런데 새로이 생성되어 쓰이는 말(신어)에서도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 신어(408개)와 2003년 신어(656개) 가운데 서구 외래어는 총 398개로 37.4%를 차지하며,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629개로 전체의 59.1%를 차지한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외래어 가운데 열에 아홉은 영어와 관련된다. 최근 들어 영어가 우리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새 외래어의 특성

#### 2.1. 영어 형용사, 동사의 남용

세계화, 국제화 추세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즉 외국과의 교류

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바꿔 쓰지 않는 한 외국어에서 그대로 빌려다 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것은 대개 ‘웰빙(well-being)’,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올인(all-in)’ 따위처럼 대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동사나 형용사는 어느 언어에서나 기본 어휘에 속하므로 명사와 달리 외국어에서 차용하여 쓰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

**웰빙(well-being)** 「명」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함. ¶그러나 아베다는 단순한 식물성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라 육체, 정신, 영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인 **웰빙(well-being)**을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이다.

**스크린 도어(screen door)** 「명」 지하철이나 경전철의 선로와 승강장 부분을 고정된 벽(screen)과 문(door)으로 차단하여 열차가 승강장에 완전히 정차한 뒤에야 열차 출입문과 함께 개폐되도록 한 안전 시설. ¶지하철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차가 역 구내로 완전히 진입한 뒤에야 승강장이 개방되는 **스크린 도어**의 설치와 알루미늄 전동차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올인(all in)** 「명」 포커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한판에 전부 거는 일.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최근 ‘**올인**’이라는 제목의 실명 소설로 출간됐다.

영어의 동사나 명사(동명사형 포함)는 우리말에서 ‘-하다’나 ‘-되다’를 결합하기만 하면 동사로 쓸 수 있다. ‘트레이드(trade)하다’, ‘리메이크(remake)하다’, ‘컴백( comeback)하다’, ‘스매싱(smashing)하다’와 ‘업그레이드(upgrade)되다’, ‘매치(match)되다’, ‘키퍼(keeping)되다’ 따위가 그러한 예들이다. 이는 우리말에서 ‘일하다’, ‘공부(工夫)하다’ 따위처럼 ‘-하다’나 ‘-되다’가 고유어나 한자어 명사에 결합하여 손쉽게 동사를 만드는 사실에서 유추해 낸 것이다. 영어의 명사(동명사형 포함)는 ‘그룹화(group化)하다’, ‘제로화(zero化)하다’, ‘버블화(bubble化)되다’ 따위처럼 ‘-화(化)’를 결합한 후 거기에 다시 ‘-하다’나 ‘-되다’를 결합하여 동사로 쓰기도 한다.

**트레이드(trade)** 「명」 프로 팀 사이에서 전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소속 선수를 이적시키거나 교환하는 일. ¶**트레이드** 조건을 내걸다

**리메이크(remake)** 「명」 예전에 있던 영화, 음악, 드라마 따위를 새롭게 다시 만들. 이때 전체적인 줄거리나 제목 따위는 예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다. 『요즘의 영화계에서는 예전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의 **리메이크**가 유행이다.

**컴백(comeback)** 「명」 예전의 활동 무대에 다시 돌아옴. 『연극 무대에 **컴백**을 하다.

**스매싱(smashing)** 「명」 테니스, 탁구, 배구 따위에서 공을 네트 너머로 세게 내려치는 일. 『장운창 선수가 상대의 블로킹을 피해 **스매싱**을 하고 있다.

**업그레이드(upgrade)** 「명」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 『컴퓨터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제품 발표 주기가 빨라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직종 중의 하나이다.

**매치(match)** 「명」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잘 어울림. 『가을 분위기와 **매치**가 잘 되도록 옷감의 색깔에 특히 신경을 썼다.

**키퍼(keeping)** 「명」 어떤 물건을 특정한 곳에 보관하여 두는 일. 『**키퍼**를 하면 큰 부담 없이 자주 들릴 수 있어 좋다.

**그룹화(group化)** 「명」 그룹으로 만들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소장 의원들은 친소 관계에 따라 **그룹화** 움직임을 보이며 정치적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할 태세이다.

**제로화(zero化)** 「명」 전혀 없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과 차별된 서비스로 민원 '**제로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버블화(bubble化)** 「명」 [경] 투자, 생산 따위의 실제 조건과 다르게 물가가 계속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면서 돈의 흐름이 활발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앞으로 증시가 개방화·국제화됨에 따라 **버블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얼마 전부터는 영어의 형용사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로서 어느 언어에서나 기본 어휘에 속한다. 따라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와 달리 외국어에서 빌려다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런 영어 형용사에는 ‘컬러풀(colorful)하다’, ‘스마트(smart)하다’, ‘와일드(wild)하다’, ‘로맨틱(romantic)하다’, ‘타이트(tight)하다’, ‘스포티(sporty)하다’, ‘다이내믹(dynamic)하다’ 따위처럼 오래 전부터 쓰인 말이 더러 있긴

하나 ‘슬림(slim)하다’, ‘프레시(fresh)하다’, ‘댄디(dandy)하다’, ‘엑셀런트(excellent)하다’, ‘모던(modern)하다’, ‘미니멀(minimal)하다’, ‘샤프(sharp)하다’, ‘스타일리시(stylish)하다’, ‘앤티크(antique)하다’, ‘쿨(cool)하다’, ‘터프(tough)하다’, ‘트렌디(trendy)하다’, ‘빈티지(vintage)하다’, ‘베이직(basic)하다’, ‘원더풀(wonderful)하다’,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하다’, ‘글래머러스(glamorous)하다’, ‘글로벌(global)하다’, ‘내추럴(natural)하다’, ‘보이시(boyish)하다’, ‘비비드(vivid)하다’, ‘센세이셔널(sensational)하다’, ‘에너지틱(energetic)하다’, ‘클래식(classic)하다’, ‘파워풀(powerful)하다’, ‘패셔너블(fashionable)하다’ 따위처럼 최근 들어 쓰인 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영어 형용사가 특별한 제약 없이 우리 말에 들어와 폭넓고도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대개 영어 형용사에 ‘-하다’를 덧붙이기만 하면 우리말로 둔갑을 해 버린다.

컬러풀(colorful)하다 「형」=다채롭다.

스마트(smart)하다 「형」 몸가짐이 단정하고 맵시가 있다. 또는 모양이 말쑥하다.

와일드(wild)하다 「형」=거칠다.

로맨틱(romantic)하다 「형」 낭만적인 데가 있다.

타이트(tight)하다 「형」=꽁꽁하다, 빠듯하다, 밀도 있다.

스포티(sporty)하다 「형」=경쾌하다, 날렵하다.

다이너믹(dynamic)하다 「형」=생동적이다, 역동적이다.

슬림(slim)하다 「형」 가늘고 날씬하다.

프레시(fresh)하다 「형」 신선한 데가 있다.

댄디(dandy)하다 「형」 세련된 데가 있다.

엑셀런트(excellent)하다 「형」 매우 훌륭하다.

모던(modern)하다 「형」 어떤 사물이나 모습이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데가 있다.

미니멀(minimal)하다 「형」 간결하고 단조롭다.

샤프(sharp)하다 「형」 머리가 좋다. 또는 기질, 말, 목소리 따위가 날카롭다.

스타일리시(stylish)하다 「형」 보기에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데가 있다.

앤티크(antique)하다 「형」 보기에 예스러운 데가 있다.

쿨(cool)하다 「형」 보기에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다.

터프(tough)하다 「형」 박력이 있거나 완력이 세다.

트렌디(trendy)하다 「형」 유행을 따르며 현대적인 느낌이 있다.

빈티지(vintage)하다 「형」 옛것으로 품위를 살린 데가 있다.

베이직(basic)하다 「형」 단순해 보이는 데가 있다.

원더풀(wonderful)하다 「형」 경이롭거나 훌륭하다.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하다 「형」 프로다운 데가 있다.

글래머러스(glamorous)하다 「형」 여성의 육체가 풍만하여 성적 매력이 있다.

글로벌(global)하다 「형」 개별 국가의 단위를 초월하여 세계를 하나의 통합체로 만들려는 생각이 있다.

내추럴(natural)하다 「형」 인위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 있다.

보이시(boyish)하다 「형」 소년 같다. 또는 소년과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비비드(vivid)하다 「형」 생생하고 활기차다.

센세이셔널(sensational)하다 「형」 감각을 자극할 만하다.

에너지틱(energetic)하다 「형」 원기가 왕성하다.

클래식(classic)하다 「형」 옛날의 의식이나 법식을 따르는 데가 있다.

파워풀(powerful)하다 「형」 강력한 데가 있다

패셔너블(fashionable)하다 「형」 최신 유행을 따르는 데가 있다.

특히 ‘스마트(smart)’는 ‘스마트(smart)하다’뿐만 아니라 ‘스마트(smart)’ 그 자체까지도 여러 분야와 계층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신분증, 신용카드, 여권, 전화카드 따위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 신분증’을 가리키는 ‘스마트카드(smart card)’, ‘목표물에 쏜 레이저 광선의 반사를 통하여 유도하는 폭탄’을 가리키는 ‘스마트 폭탄(smart爆彈)’, ‘냉난방, 조명, 방화 시설을 모두 컴퓨터로 자동화한 건물’을 가리키는 ‘스마트 빌딩(smart building)’ 따위처럼 단어나 구의 일부로 ‘스마트(smart)’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 따위에 의하여 시황(市況)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회전되는 자금’을 ‘스마트 머니(smart money)’, ‘빛의 투과도나 반사율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유리’를 ‘스마트유리(smart 琉璃)’, ‘휴대 전화와 개인 휴대 단말기(PDA)의 장점을 합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동영상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차세대 휴대 전화’를 ‘스마트폰(smart phone)’, ‘시간과 경비를 줄이면서 물건을 사는 일’을 ‘스마트 소비(smart消費)’ 따위의 ‘스마트(smart)’도 마찬가지이다.

초기에는 ‘스마트(smart)’가 포함된 영어의 단어나 구를 우리말에 들여와 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smart)’를 받아들여 썼다. 그러나 요즘에는 ‘스마트 소비(smart消費)’처럼 영어를 이용하여 우리 식대로 만들어 쓴 말에서도 ‘스마트(smart)’를 적잖이 발견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스마트(smart)’를 이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어 형용사 ‘스마트(smart)’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어 형용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현상이다.

그리고 최근 널리 쓰이고 있는 ‘롱다리(long--)', ‘숏다리(short--)’ 따위의 신조어는 우리말에서 ‘롱(long)하다’, ‘숏/쇼트(short)하다’란 말 자체가 전혀 쓰이지 않는데도 영어 형용사 ‘롱(long)', ‘숏/쇼트(short)’를 그대로 우리말의 형용사처럼 쓴 예이다.

**롱다리(long--)** 「명」 키가 크거나 상체에 비해 하체가 긴 것. 또는 그러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패션 토크...』의 첫 출연진은 최근 새 앨범을 낸 **롱다리** 가수 김현정과 전천후 입담꾼 주영훈.

**숏다리(short--)** 「명」 키가 작거나 상체에 비해 하체가 짧은 것. 또는 그러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숏다리** 컴플렉스, 고민 끝!

## 2.2. 한국식 외래어

외래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외국어에서 유입되어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외국어에서 유입되어 쓰인 외래어가 아니라 외래어나 외국어를 재료로 하여 우리말처럼 조합하여 만들어 낸 자생적인 외래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외래어를 한국식 외래어(대부분은 한국식 영어)라 한다.

‘골인(goal in)’, ‘더치페이(Dutch pay)’, ‘러브호텔(love hotel)’, ‘마이카(may car, 자가용)’, ‘모닝커피(morning coffee)’, ‘백넘버(back number)’, ‘스킨십(skinship)’, ‘아이쇼핑(eye shopping)’, ‘엠티(M.T.←Membership Training)’, ‘올백(all back)’, ‘카센터(car center)’, ‘하이틴(high teen)’ 따위가 오래 전부터 쓰여 온 대표적인 한국식 영어의 예이다.

**골인(goal in)** 「명」 골이나 바스켓 안에 공이 들어가는 것. 또는 경주에서 결승점에 도착하는 일.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300미터 남았다.

**더치페이(Dutch pay)** 「명」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일.

**러브호텔(love hotel)** 「명」 숙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히 성(性)을 즐기려고 하는 남녀가 이용하는 숙박업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마이카(may car)** 「명」 개인 전용 자동차를 달리 이르는 말. 『저마다 차를 소유하는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다.

**모닝커피(morning coffee)** 「명」 아침에 마시는 커피. 주로 식사 전에 마시는 것을 이른다.

**백넘버(back number)** 「명」 운동선수의 등 뒤에 붙이는 번호. 『**백넘버** 41번

선수.

**스킨십(skinship)** 「명」 피부의 상호 접촉에 의한 애정의 교류.

**아이쇼핑(eye shopping)** 「명」 물건은 사지 아니하고 눈으로만 보고 즐기는 일.

**엠티(M.T.←Membership Training)** 「명」 단체의 구성원이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하여 함께 수련하는 모임. 『우리 과는 주말에 근교로 엠티를 간다.

**올백(all back)** 「명」 가르마를 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을 모두 뒤로 빗어 넘김. 또는 그런 머리 모양. 『정복이 날씬하게 어울리는 30세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 머리는 깎아 올백으로 넘겼다.

**카센터(car center)** 「명」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업소. 『카센터에 자동차를 맡기다.

**하이틴(high teen)** 「명」 10대 후반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남녀. 주로 17~19세를 이른다.

한국식 영어에는 일본에서 일본어처럼 조합하여 만들어 낸, 자생적인 일본식 영어도 몇몇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일본식 영어가 우리말에 다시 차용된 말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식 영어인지 일본식 영어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리어카(rear car)’, ‘백미러(back mirror)’, ‘올드미스(old miss)’, ‘오토바이(←auto bicycle)’ 따위가 일본식 영어로서 우리말에서 널리 쓰이는 말로 알려져 있다.

**리어카(rear car)** 「명」 자전거 뒤에 달거나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둘 달린 작은 수레. 『그는 혜원동에서 리어카에다 오징어, 껌, 날담배, 땅콩을 놓고 노점을 했다.

**백미러(back mirror)** 「명」 뒤쪽을 보기 위하여 자동차나 자전거 따위에 붙인 거울.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백미러로 살펴보았다.

**올드미스(old miss)** 「명」 혼인할 시기를 넘긴 나이 많은 처녀. 『대학을 졸업하고 곧 올드미스 소리를 들을 만큼 나이 먹었으되 나는 엄마의 젖꼭지에 매달린 젖떡이었다.

**오토바이(←auto bicycle)** 「명」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자전거. 『오토바이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국식 영어나 일본식 영어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우리말 오용의 하나로 보아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즉 국적 불명의 말로서 다른 적절한 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야구 용어의 하나인 ‘포볼(four ball,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에게 스트라이크가 아닌 볼을 네 번 던지는 일)’은 한국식 영어나 일본식 영어라는 이유로 ‘볼넷’으로 바뀌 쓰거나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베이스 온 볼(base on balls)’이라는 원어로 대신하려 한 일까지 있었다. ‘핸드폰(hand phone,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통화할 수 있는 소형 무선 전화기)’도 똑같은 이유로 한자어인 ‘휴대 전화(携帶電話)’로 바뀌 쓰거나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셀룰러폰(cellular phone)’, ‘모바일폰(mobile phone)’이라는 원어로 대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말도 우리말에서 긍정적, 창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에서나마 대두되고 있다.

### 2.3. 영어 접사의 차용

외래어는 다른 나라 언어(외국어)에서 차용되어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어에서 명사와 같은 어휘 형태를 차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데 반해 접사와 같은 문법 형태를 차용하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럽다. 즉 영어의 ‘홈페이지(home page, 인터넷의 월드 와이드 웹에 개인적인 관심사나 주제를 나름대로 만들어 독특한 화면에 담아서 올린 사이트)’, ‘네티즌(netizen,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따위와 같은 어휘 형태는 차용하기 쉽지만 영어의 ‘-(tion)’, ‘-ly’ 따위와 같은 문법 형태는 그것만을 따로 차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바보틱하다(--tic--)’, ‘유아틱하다(幼兒tic--)’, ‘시골틱하다(--tic--)’ 따위처럼 고유어나 한자어에 영어 접사 ‘-tic’을 결합한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에로틱하다(erotic--)’, ‘로맨틱하다(romantic--)’ 따위의 말에 유추해서 ‘틱(-tic)’만을 따로 떼 내어 쓴 예이다. 심지어 ‘우아러스하다(優雅rous--)’라는 말이 쓰인 적이 있다. 이 말은 ‘유머러스하다(humorous--)’에 유추해서 ‘러스’를 따로 떼 내어 쓴 예이다. 사실 ‘유머러스하다’의 ‘유머러스’가 명사 ‘유머(humor)’와 접사 ‘-ous’가 결합하여 생성된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유머+러스’로 잘못 분석하여 ‘러스’를 접사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영어 접사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긴 했으나 이들은 임시어나 유행어처럼 쓰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

**바보틱하다(--tic--)** 「형」 바보스러운 데가 있다.

- 유아틱하다(幼兒tic--) 「형」 유치한 데가 있다.  
 시골틱하다(--tic--) 「형」 촌스러운 데가 있다.  
 에로틱하다(erotic--) 「형」 성적인 욕망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데가 있다.  
 로맨틱하다(romantic--) 「형」 낭만적인 데가 있다.  
 우아러스하다(優雅rous--) 「형」 우아스러운 데가 있다.  
 유머러스하다(humorous--) 「형」 익살스러우면서 재미가 있다.

최근에는 이 밖에도 적지 않은 영어 접사가 우리말에 차용되고 있다. 우선 영어 접사 ‘-ism’, ‘-ist’ 따위를 차용하여 손쉽게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쓴다. 즉 ‘귀차니즘(←귀찮다+ism)’, ‘네타티즘(←네 탓+ism)’: ‘귀차니스트(←귀찮다+ist)’, ‘재미니스트(재미+(n)+-ist)’ 따위처럼 우리말의 고유어에 영어 접사 ‘-ism’, ‘-ist’ 따위를 결합한 신조어를 생성해 낸다. 여기에서 ‘재미니스트’는 ‘귀차니스트’에 유추하여 만들어진 말로 ‘귀차니스트’를 ‘귀차+니스트’로 잘못 분석하여, 접사로 ‘-ist’가 아닌 ‘-니스트’를 본 데 따른 것이다.

- 귀차니즘(←귀찮다+ism)** 「명」 귀찮은 일을 몹시 싫어하는 태도나 사고방식. ¶ 학창 시절 방학 때면 집 밖으로 나와 본 적이 드물었던 그였다. 이러한 행태가 바로 요즘 인터넷상에 새롭게 나돌고 있는 ‘귀차니즘’에 해당된다.
- 네타티즘(←네 탓+ism)** 「명」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 또는 그런 사고방식. ¶ 이 책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게 바로 이 ‘네타티즘’일 것이다.
- 귀차니스트(←귀찮다+ist)** 「명」 귀찮은 일을 몹시 싫어하고 혼자 노는 데 익숙한 젊은 세대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주요 활동 무대는 방안. 으레 이들 곁에는 티브이(TV) 리모컨이나 인터넷·게임을 위한 컴퓨터 마우스가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귀차니스트는 세상과 소통한다.
- 재미니스트(재미+(n)+-ist)** 「명」 주로 재미를 찾는 데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럼 저는 재미니스트 2호 하겠습니다.

#### 2.4. 로마자 두문자어

우리말의 외래어에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구에서 각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만을 취하여 형성된 ‘로마자 두문자어(頭文字語, initial word 또는 acronym)’가 많다. ‘로마자 두문자어’란 ‘유엔(U.N./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피시(PC←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 따위와 같은 고유 어구나 전문 어구의 외래어를 ‘유엔(U.N./UN)’, ‘피시(PC)’ 따위로 줄여 쓴 말을 가리킨다.

이러한 로마자 두문자어는 ‘지피에스(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아이티(IT←Information Technology)’, ‘에스엠에스(SMS←Short Message Service)’, ‘피디에이(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따위처럼 로마자의 자모음대로 읽기도 하고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 ‘왓(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사스(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따위처럼 음절화하여 읽기도 한다. 드물지만 ‘시디롬(CDROM←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디램(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따위처럼 일부는 로마자의 자모음대로 읽고 또 다른 일부는 음절화하여 읽는 것도 있다. 그리고 ‘DIY(←Do It Yourself, 자동차, 주택, 가구 따위를 스스로 제작하거나 수리하여 쓰는 일)’처럼 두 가지로 읽는 로마자 두문자어도 있다. 즉 ‘DIY’는 로마자의 자모음대로 ‘디아이와이’로 읽기도 하고 음절화하여 ‘다이’로 읽기도 하는 것이다.

두문자어의 독법과 관련해 ‘NEIS’는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 대표적인 말이다.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전국 초·중·고등학교, 16개 시·도의 교육청 및 산하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따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교육 정보전산시스템)’의 로마자 두문자어인 ‘NEIS’를 일부에서 자모음대로 ‘엔이아이에스’로 읽는데 반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음절화하여 ‘나이스/네이스’로 읽어서 많은 일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일도 있다.

**지피에스(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명」 인공위성을 이용함으로써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 ¶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지피에스(GPS)] 기술을 적용한 이 서비스는 에스원의 보안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긴급상황 발생 시 휴대폰 버튼만 누르면 엘지(LG) 텔레콤의 무선망을 통해 에스원이 운영하는 종합 지령실로 긴급 통보된다.

**아이티(IT←Information Technology)** 「명」 [통] 정보 통신이나 정보 기술. ¶본격적인 아이티(IT) 사회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 기대되는 브로드밴드(고속 인터넷 회선) 보급률에서 한국이 미국을 큰 차로 제치고 세계 1

위로 부상했다.

**에스엠에스(SMS←Short Message Service)** 「명」 [컴] 단문 메시지 서비스. 컴퓨터나 휴대 전화기에서 작성한 메시지나 DB 정보를 다른 사람의 휴대 전화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이동 전화 보급이 늘면서 문자 정보를 이동 전화기 표시 창에 표시해 주는 ‘간단한 문자 정보 표시 서비스’[에스엠에스(SMS)]가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피디에이(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명」 휴대 전화와 같이 휴대기가 간편한 통신 정보 기기. 『‘데몰리션 맨’ 등 미래 생활의 단면을 보여 주는 공상 과학 영화에는 흔히 ‘피디에이’로 불리는 개인 정보 단말기가 등장한다.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 「명」 특별한 사무실 없이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쓰는 소규모 자영업.

**왁(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명」 데스크톱 PC용 연계 언어를 호출기나 휴대용 개인 정보 단말기(PDA), 휴대 전화 등 이동 단말기용 무선 통신 언어로 자동 변환해 주는 소프트웨어. 『역시 미국 기업인 모토로라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중국의 보안상 우려도 감안해 설계된 ‘왁(WAP)’ 방식의 휴대 전화 신제품 ‘아콤플리’를 중국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명」 [의] 고열, 두통, 인후통, 기침 등 독감 환자들이 보이는 것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 2003년 2월 중국 광둥 성에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사스(SARS)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 호흡 곤란, 저산소증, 엑스선 상의 폐렴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며, 두통, 근육통, 식욕 부진, 피로감, 발진, 설사를 동반할 수 있다.

**시디롬(CDROM←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명」 콤팩트디스크에 데이터나 도형 정보를 기록해 둔 읽기 전용의 기억 매체.

**디램(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명」 기억 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는 펄스를 공급받아야 하는 램. 기억 용량이 큰 램을 필요로 할 때 쓴다.

이들 로마자 두문자어는 기본적으로 말하거나 적을 때 좀 더 간결하고도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문자어가 폭넓게 쓰이는 최근

의 경향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로마자 두문자어가 ‘간결화’·‘간편화’를 추구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자 두문자어가 서구 외래어로 이루어진 어구에서 각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만을 취하여 형성된 준말이기 때문에 서구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언중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간결성’·‘간편성’만을 내세워 로마자 두문자어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점차 로마자 두문자어가 폭넓게 쓰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로마자 두문자어도 출현하여 쓰이고 있다. 로마자 두문자어는 대개 수식, 한정 관계로 연결된 어구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러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어구(문장에 준하는 어구)에서 형성된 두문자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로마자 두문자어의 남용이라 할 만하다. ‘넘비(NIMBY←Not In My Backyard)’, ‘핼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딤트족[DINT(←Double Income No Time)族]’, ‘싱크족[SINK(←Single Income No Kids)族]’,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族]’, ‘오파족[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族] 따위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넘비(NIMBY←Not In My Backyard)** 「명」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 『쓰레기장을 자기 동네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종의 넘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핼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명」 지역 주민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조처나 시설 따위를 자신이 속한 지역에 취해 주거나 설치해 주도록 요구하는 일.

**딤트족[DINT(←Double Income No Time)族]** 「명」 맞벌이를 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늘 바쁘게 사는 부부들. 『유통 업체는 구매력은 있지만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이들 딤트족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쇼핑을 마치도록 매장의 공간 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

**싱크족[SINK(←Single Income No Kids)族]** 「명」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사를 전담하지만 아이는 갖지 않는 젊은 부부들. 『남자 혼자 벌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싱크족(Single Income No Kids)’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族]** 「명」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 『그 첫째가 ‘자녀 없는 전문 맞벌이 부부’의 영어 약자를 딴

‘딩크족’이다.

**오팔족**[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族] 「명」 활동적인 삶을 누리는 나이 든 무리. 또는 그런 사람. 『**오팔족**은 일본의 경제 캐스터인 니시무라 아키라와 하타 마미코가 펴낸 ‘여자의 지갑을 열게 하라’에 처음 등장한 용어.

## 2.5. 혼성어(blend-word)

우리말에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재료로 하여 우리말 식대로 만들어 낸 한국식 외래어(대부분은 한국식 영어)가 적지 않다.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외국어나 외래어를 재료를 하여 우리말의 의미 구조에 맞추어 두 단어를 차례대로 연결하여 쓰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어의 준말 가운데 하나인 ‘혼성어(blend-word-portmanteau word)’에 유추하여 만들어 낸 한국식 영어가 적지 않게 쓰이고 있다.

‘혼성어(blend-word-portmanteau word)’란 두 개의 단어가 차례대로 연결된 어구에서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을 혼합하여 만들어 낸 말을 가리킨다. 영어권에서는 ‘스모그(smog←smoke+fog)’, ‘모텔[motel←motor(ists')+hotel]’, ‘브런치(brunch←breakfast+lunch)’, ‘네티즌(netizen←network+citizen)’ 따위를 전형적인 혼성어의 예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매니(manny←man+nanny)’, ‘머스(murse←man+nurse)’, ‘팝페라(popera←pop+opera)’ 따위와 같은 혼성어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다.

**스모그(smog←smoke+fog)** 「명」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가 안개와 같이 된 상태.

**모텔[motel←motor(ists')+hotel]** 「명」 자동차 여행자가 숙박하기에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여관.

**브런치(brunch←breakfast+lunch)** 「명」 아침을 겸하여 먹는 점심 식사. 『시간이 흘러 1998년 1월 7일. 쇼츠가 약속한 이날 빌은 에밀리를 브런치에 초대했다.

**네티즌(netizen←network+citizen)** 「명」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매니(manny←man+nanny)** 「명」 남자 가정부. 『최근 발매된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에 따르면, 요즘 미국에서는 ‘머스(murse)’, ‘매니(manny)’ 등의 신조어가 유행이다. 각각 ‘남자 간호사(nurse)’, ‘남자 가정부(nanny)’라는 뜻이다.

**머스(murse←man+nurse)** 「명」 남자 간호사. 『최근 발매된 유에스에이

(USA) 투데이에 따르면 요즘 미국에서는 ‘머스(murse)’, ‘매니(manny)’ 등의 신조어가 유행이다. 각각 ‘남자 간호사(nurse)’, ‘남자 가정부(nanny)’라는 뜻이다.

**팝페라(popera←pop+opera)** 「명」 성악과 팝이 만난 장르. 『팝 뮤직』은 더 이상 오페라에서 낫선 용어가 아니다. 팝과 오페라의 합성어인 ‘**팝페라**’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이러한 혼성의 방식이 우리말에서도 자연스러운 조어법의 하나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넷파이(netpy←network+spy)’, ‘댄커스(dancus←dance+circus)’, ‘디지털(←digital+cartoon)’, ‘뮤페라(←musical+opera)’, ‘사이처(cycher←cyber+teacher)’, ‘샐러던트(saladent←salaried man+ student)’, ‘아나털(anatal←analogue+digital)’, ‘카파라치(carparazzi←car+Ⓞ)parapazzi)’, ‘캐포츠(caports←casual+sports)’, ‘폰페이지[phon(e)page←phone+homepage]’ 따위와 같은 한국식 영어가 다량으로 생성되어 쓰이고 있는 사실에서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혼성어 가운데에는 ‘슛터링(shootering←shoot+centering)’처럼 본래 영어권에서 새로이 생성되어 쓰이다가 우리말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말도 더러 있고 ‘프리터(freeter←free+ⓈArbeiter)’처럼 일본식 외래어(일본어 식대로 하면 ‘후리타’가 됨)가 우리말에 유입된 말도 더러 있을 수 있다.

**넷파이(netpy←network+spy)** 「명」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빼내는 사람.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기업 기밀과 관련된 자료가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와 ‘스파이’를 합성한 ‘**넷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댄커스(dancus←dance+circus)** 「명」 서커스에 버금갈 정도로 난도가 높은 기술로 이루어진 춤. 『**댄커스**(댄스와 서커스를 조합한 신조어)라는 새 형식을 시도하는 ‘유에프오(UFO)’는 외계 비행 물체가 한국의 한 주 유소에 불시착해 외계인과 지구인이 한바탕 댄스파티를 벌인다는 게 줄거리이다.

**디지털(←digital+cartoon)** 「명」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손으로 그린 그림을 합성해서 만든 짧은 만화. 『**디지털**』을 아십니까? 다음 카페 ‘샐리네 조조클럽’의 운영자 ‘샐리’가 만들어 낸 이 용어는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와 '카툰'의 합성어다.

**뮤페라**(←*musical+opera*) 「명」 뮤지컬과 오페라를 혼합한 음악 장르. 『뮤페라 '라보엠'……시대만 현대, 푸치니 오페라 그대로.

**사이처**(*cycher*←*cyber+teacher*) 「명」 인터넷 학습 사이트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 진도와 내용 등을 점검해 주는 교사.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도 편한 교육 온라인 공간의 새로운 직업 부류에 '사이처(*cycher*)'가 가세했다.

**샐러던트**(*saladent*←*salaried man+student*) 「명」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하는 사람. 『나 역시 낮에는 시이오(CEO), 밤에는 열심히 공부해 온 만큼 '샐러던트'라는 단어가 무척 가슴에 와 닿는다.

**아나털**(*anatal*←*analogue+digital*) 「명」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중간에 낀 세대. 즉 40대를 이르는 말이다. 『어느 세대라고 할 말이 없겠는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의 중간에 끼여 딱 막힌 '아나털'들의 처진 어깨가 한결 무거워 보인다.

**카파라치**(*carparazzi*←*car+ paparazzi*) 「명」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몰래 촬영해 이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타내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평소 시내에서 활동하던 카파라치들에게 주말에는 이곳이 황금 어장입니다.

**캐포츠**(*caports*←*casual+sports*) 「명」 운동하기에 편하면서도 평상시에 격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음. 또는 그런 복장. 『캐주얼의 실용성과 스포츠의 기능성을 결합한 캐포츠(*caports*) 브랜드도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폰페이지**[*phon(e)page*←*phone+homepage*] 「명」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휴대 전화로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폰페이지는 인터넷 이용 기능을 가진 이동 전화 단말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슛터링**(*shootering*←*shoot+centering*) 「명」 [운] 축구에서 중앙으로 패스하는 척하며 골 쪽을 향하여 공을 차는 일. 『슛인지 센터링인지 애매한 이른바 슛터링도 각별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프리터**(*freeter*←*free+Arbeiter*) 「명」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 『부모에게 얹혀 살거나 자유직(프리터)을 택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이들 혼성어는 몇몇을 제외하면 대개 한국식 영어로서 진짜 영어가 아니다. 영어를 선호하여 마구잡이로 만들어 낸 가짜 영어이다. 따라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쓸 때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는 것보다 순수 고유어나 한자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처럼, 이러한 국적 불명의 한국식 영어를 양산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2.6. 접두사처럼 쓰이는 로마자 자모

로마자의 몇몇 자모는 우리말에서 접두사처럼 쓰인다. ‘Electronic’, ‘Mobile’을 대신하여 쓰이는 ‘이(E)’, ‘엠(M)’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코머스[E(←Electronic)+commerce]’, ‘이랜서[E(←Electronic)+freelancer]’, ‘이북[E(←Electronic)+book]’, ‘이비즈니스[E(←Electronic)+business]’, ‘이진[E(←Electronic)+magazine]’, ‘이러닝[E(←Electronic)+learning]’, ‘이슈퍼[E(←Electronic)+supermarket]’ 따위와 ‘엠티즌[M(←Mobile)+netizen]’, ‘엠비즈니스[M(←Mobile)+business]’, ‘엠코머스[M(←Mobile)+commerce]’ 따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E)’, ‘엠(M)’이 외래어와 결합하여 손쉽게 새로운 말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국민[E(←Electronic)+國民]’, ‘이기자[E(←Electronic)+記者]’, ‘엠세대[M(←Mobile)+世代]’, ‘엠쪽지[M(←Mobile)+紙]’ 따위처럼 ‘이(E)’, ‘엠(M)’이 우리말(한자어나 고유어)과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생성해 낸다.

**이코머스[E(←Electronic)+commerce]** 「명」 [경]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삼성 전자는 지난 1일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www.gosamsung.co.kr)를 개장했다. 또 35명 규모의 전담 관리팀인 ‘이(e)-코머스 팀’도 발족했다.

**이랜서[E(←Electronic)+freelancer]** 「명」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랜서’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최근 보도했다.

**이북[E(←Electronic)+book]** 「명」 컴퓨터 화면에 떠올려 읽을 수 있게 만든 전자 매체형 책.

**이비즈니스[E(←Electronic)+business]** 「명」 [컴] 인터넷상에서 전자 상거래를 주로 하는 사업. ¶실제로 삼성, 현대, LG, SK 등 주요 그룹들은

이(e)비즈니스, 정보 통신 산업, 벤처 투자와 관련된 사업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진[E(←Electronic)+*magazine*] 「명」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잡지.

이러닝[E(←Electronic)+*learning*] 「명」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교육 업계를 중심으로 이러닝(e-learning) 전문가를 양성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슈퍼[E(←Electronic)+*supermarket*] 「명」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슈퍼. 『이제 정 씨는 무겁거나 부피가 큰 생수나 기저귀 용품은 물론, 저녁 반찬거리 준비까지 이(e)슈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처리,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다.

애플즌[M(←Mobile)+*netizen*] 「명」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해 인터넷을 즐기는 네티즌. 『이 학생처럼 휴대폰 게임을 즐기는 애플(M)티즌이 갈수록 늘고 있다.

엠비즈니스[M(←Mobile)+*business*] 「명」 [경] 엠코머스와 관련된 인프라, 솔루션, 서비스 따위를 이르는 말. 이(e)비즈니스가 확대된 개념이다. 『에스케이(SK) 관계자는 “애플(M)비즈니스는 전방위적인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토대로 현재 오프라인과 피시(PC)를 기반으로 일고 있는 비즈니스 중 모바일에서 가능한 것은 모두 옮긴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엠코머스[M(←Mobile)+*commerce*] 「명」 [컴] 무선 통신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 『무선 인터넷에 세계의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앞으로 전자 상거래가 이코머스(e-commerce)에서 애플코머스로 옮겨 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국민[E(←Electronic)+國民] 「명」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목표는 2003년까지 모든 정부 정보 서비스의 온라인화이며 정부 격차 없는 이(e)국민 세상을 펼쳐 나아가자는 신미국 혁명 전략이다.

이기자[E(←Electronic)+記者] 「명」 네티즌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을 토대로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쓰는 사람. 『연예인 특종 ‘이(e)기자’.

엠세대[M(←Mobile)+世代] 「명」 모바일 컴퓨팅(mobile computing)을 하는 엔(N)세대. 『엔(n)세대가 돌풍을 일으키는가 했더니 어느새 애플(m)세대가 출현했다.

애플쪽지[M(←Mobile)+-紙] 「명」 [컴] 인터넷 이용자끼리 통신 회선을 이용하

여 주고받는 문자, 그림, 음악, 메시지 따위의 글. 『‘닭살스런 엠(M)쪽지’ 보내고 둘만의 해외여행 떠나요~!

이 밖에 ‘엔세대[N(←Network)+세대]’, ‘엔클론[N(←Network)+clone]’ 따위의 ‘엔(N)’, ‘티코머스[T(←Television)+commerce]’의 ‘티(T)’, ‘유코머스[U(←Ubiquitous)+commerce]’의 ‘유(U)’ 따위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로마자로 볼 수 있다. 로마자 ‘엔(N)’, ‘티(T)’, ‘유(U)’ 따위는 각각 ‘Network’, ‘Television’, ‘Ubiquitous’ 따위를 대신 하여 쓰이는 말이다.

**엔세대[N(←Network)+세대]** 「명」 1977년부터 199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디지털 문명 세대를 이른다. 『신경 정신과 전문의 이상일 박사는 “단시간 내에 튀고 싶어하는 엔(N)세대의 자유분방함과 이율배반적으로 규율에 대한 동경심이 맞아 떨어져 정해진 틀 안에서 개성을 발휘하는 놀이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엔클론[N(←Network)+clone]** 「명」 컴퓨터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존재하는 복제된 개인. 『그 핵심은 ‘엔클론(n-Clone)’. 네트워크(Network)와 복제 인간(Clone)의 합성어인 엔클론은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복제된 개인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네티즌 각자의 성격과 개성(PI:Personal Identity)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티코머스[T(←Television)+commerce]** 「명」 [통] 텔레비전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 양방향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리모컨 조작만으로 상품 주문을 할 수 있고 각종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티코머스는 컴퓨터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코머스(E-Commerce)’, 휴대 전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엠코머스(M-Commerce)’에 반하는 개념으로 티브이(TV)가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

**유코머스[U(←Ubiquitous)+commerce]** 「명」 [경] 핸드폰, 자동차, 컴퓨터 따위의 장비들이 상호 간에 자동으로 통신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앞으로는 이코머스를 넘어 ‘유코머스’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 2.7. 기타

최근에는 ‘오케이(OK)’, ‘헤이(hey)’, ‘하이(hi)’, ‘와우(wow)’, ‘웁스(oops)’ 따위와 같은 영어의 감탄사도 젊은이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아직 외래어로 보기 어렵고 외국어로서 유행어 차원이긴 하나 특기할 만하다.

**오케이(OK)** 「감」 찬성, 동의, 만사 해결 따위의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헤이(hey)** 「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

**하이(hi)** 「감」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날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

**와우(wow)** 「감」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내는 소리.

**웁스(oops)** 「감」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

## 3. 맺음말

최근 들어 일상 언어생활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반대로 우리말의 쓰임은 그만큼 크게 축소되어 우리 언어생활의 주객(主客)이 전도된 느낌이다. 우리말이 외래어나 외국어에 제자리를 내주고 뒷방마누라 신세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 밑바닥에는 외국어를 중시하고 우리말인 한국어를 경시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쓰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쓸 때 우리말을 제쳐 두고 외국어를 선호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새로운 개념이나 사건 따위의 이름으로 순수 고유어나 한자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즉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쓸 때부터 외래어나 외국어를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한국의 언어 예절

## 1. 표준 화법

사람들이 한국어로 예의 바르게 말하고자 하여도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때가 많다. 상대방을 무어라 불러야 하는지,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잘 모르는 게 많다. 게다가 사람마다 책마다 대답도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사람들이 품위 있는 말을 쓰도록 한국에서는 「표준 화법」을 정하였다(1992년 10월 19일 심의 확정). 표준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법에도 표준을 정하고 모든 이들이 그에 맞추어 말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표준 화법은 크게 (1) 호칭어와 지칭어 (2) 경어법 (3) 인사말로 되어 있다. 호칭어와 지칭어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를 정한 것이다. 경어법은 상대에 따라 말을 어떻게 높이고 낮추는지를 다룬 것이다. 인사말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좋은지 정하여 놓은 것이다. 한국어에 쓰이는 이런 내용을 잘 알면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 호칭어와 지칭어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부르는 말에는 호칭어와 지칭어가 있다. 호칭어는 앞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이다. “철수야, 너 어디에 사니?”라고 말할 때 ‘철수야’는 호칭어이다. 지칭어는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철수는 아까 학교에 갔어”, “너는 집에 남아 있어”라고 할 때 ‘철수’와 ‘너’는 직접 부르는 말이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지칭어이다.

여기에 보이는 말들은 중국, 러시아, 우즈베크, 카자흐 등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한국어와 똑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남편의 누나를 ‘형님’이라고 부르지만, 중앙아시아나 사할린 등에서는 ‘시누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도 ‘시누이’가 남편의 누나를 뜻하는 말이지만, 직접 부를 때 “시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런 경우 꼭 한국의 표준 화법만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국에 사는 동포들의 한국어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내용은 한국 사람들의 언어 예절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정도로 이해하고, 그동안 알맞은 말이 없어 곤란하였던 경우라면 이 「표준 화법」의 말을 가져다 쓰면 좋을 것이다.

## 가. 가정에서

### (1) 부모

부모를 가리키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이다. 어릴 때는 ‘아빠, 엄마’라고 할 수 있으나 커서는 안 된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여보, 저희 친정 엄마는요…”처럼 다 커서도 ‘아빠, 엄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살아 계신 부모를 가리켜 말할 때 “저의 아버님이…, 저의 어머님이…”처럼 ‘님’ 자를 붙여 말하기도 한다. 이것도 잘못이다. 자신의 가족을 남에게 높여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아버님, 어머님’은 남의 부모를 높여 말할 때 쓴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라도 돌아가신 분이라면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한다.

### (2) 자녀

자녀는 당연히 이름을 부른다. 결혼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 아비(아빤), ○○ 어미(어멈)’처럼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직함을 넣어서 부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직장에 전화해서 그냥 이름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김철수 과장(님) 좀 바꿔 주세요”처럼 직함을 넣어 부를 수 있다. 또는 “김철수 씨 좀 바꿔 주세요”처럼 ‘씨’ 자를 붙여 말한다.

### (3) 시부모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버님’이다. 요즘 한국에는 시아버지를 친하게 여겨 친정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도 시아버지는 예를 갖추어 대해야 할 어려운 대상이므로 ‘아버님’으로 불러야 한다.

- (예)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

그러나 시어머니는 부엌 등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더 많아 시아버지보다 친근하므로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머니’라고 해도 된다.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 며느리들이 많다.

(예) “어머님, 진지 잡수세요.”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 (4) 며느리

며느리는 ‘아가, 새아가, (○○) 어미, (○○) 어멈, 애’라고 부른다.

(예) “(새)아가/어미야/어멈아/애야, 전화 받으렴.”

‘아가’는 아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시부모가 신혼인 며느리를 정답게 부르는 말로 널리 쓰인다. ‘새아가’라고 하기도 한다. 아이를 낳으면 ‘(훈이) 어미’ 또는 ‘(훈이) 어멈’처럼 부른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호칭어이다. ‘애’는 친구들과 사이나 어른이 어린아이를 부를 때 주로 쓰는 말로서, 며느리를 이렇게 부르면 친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애가 왜 이래!”처럼 핀잔주는 듯한 말투로 말한다면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부모와 배우자에게 며느리를 가리켜 말할 때는 ‘며느리’라 하지 않고 ‘며늘애’라고 한다. ‘며느리’라는 말은 남의 며느리인 듯한 느낌도 있고 어른 앞에서 다소 낮추어 부르는 말로 ‘며늘애’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새아가, ○○ 어미(어멈), ○○ 댁, ○○ 처’라고 할 수도 있다.

(예) “아버님, 며늘애가 다음달부터 직장에 나가겠대요.”

#### (5) 처부모

장인(아내의 아버지)은 ‘장인 어른,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장모(아내의 어머니)는 ‘장모님, 어머님’이라고 부른다.

(예) “장인 어른/아버님, 장기 환관 두시겠습니까?”  
 “장모님/어머님, 집사람이 좀 늦겠대요.”

과거에는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처부모도 자신의 부모처럼 친근하게 느끼고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풍조가 널리 퍼져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바둑 한 판 두실래요?”처럼 ‘아버지, 어머니’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한편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남의 처부모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따라서 자기 처부모를 이렇게 부르면 안된다.

### (6) 사위

사위는 “김 서방, 테니스 치러 갈까?”처럼 ‘○ 서방’이라고 하거나 ‘여보게’라고 부른다. 때로 “경수야, 이번에 승진했다며?”처럼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 (7) 남편

남편은 ‘여보’라고 부른다. ‘여보’는 20세기 초·중반에도 그리 많이 쓰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부부간의 호칭어이다. 신혼 초에는 ‘여보’라고 부르기 어색할 수 있으므로 ‘○○ 씨’라고 부를 수 있다.

(예) “여보, 식사하세요.”

“철수 씨, 빨리 일어나 출근해.” 【신혼 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자기, 오빠, 아저씨’ 등은 안 쓰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신의 친정 아버지를 부르는 것인지 남편을 부르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본식 어법으로 알려진 말이다. 이 말은 절대로 써서는 안된다.

(예) “아빠, 일찍 들어오세요.” 【남편에게】 (×)

한편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 아이가 있으면 ‘아비, 아범’이라고 한다. 아이가 없으면 ‘이이, 그이, 저이’로 부르며 된다. 남편이 바로 옆에 있으면 ‘이이’라고 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저이’라고 하고, 대화의 자리에 없으면 ‘그이’라고 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자리에 없어도 현장감을 살려 “이이 어디 갔어요?”처럼 말하기도 한다.

(예) “어머님, 아별이요/그이가요, 내일 귀국한대요.”

신혼 초라 할지라도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가리킬 때 “아버님, 철수 씨가요…”처럼 이름을 불러서는 안된다.

## (8) 아내

아내를 부르는 말은 ‘여보, ○○ 씨’이다.

(예) “여보,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영희 씨, 내 넥타이 어디 있어?” 【신혼 초】

‘○○야, 야, 이봐’처럼 아내를 낮추어 부르면 안된다. 또 “자기야, 밥 줘”처럼 ‘자기’라고 부르거나, “우리 와이프는 말이야…” 하고 ‘와이프’(이 말은 영어 wife이다)로 가리키기도 하는데, 역시 써서는 안될 말이다.

부모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는 ‘○○ 어미(어멈)’이라고 하고, 아이가 없으면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으로 쓴다. 부모 앞에서는 아내를 낮추어야 하므로 ‘○○ 엄마’라고 하지 않으며 ‘집사람, 안사람, 처’라고 하지도 않는다. ‘댁’ 역시 좀더 대우하는 말이므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개, ○○[이름]’라고까지 낮추어서도 안 된다.

(예) “어머니, 훈이 어미/이 사람 시장에 갔어요?”  
(예) “아버지, 제 안사람/처/댁 칼국수 솜씨 좀 보실래요?” (×)

그러나 처부모에게는 아내를 낮출 필요가 없으므로 ‘○○ 엄마, 집사람, 안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잘 모르는 타인에게는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라고 한다.

(예) “장모님, 집사람이 이번 달부터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텔레비전 등에 출연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 “우리 부인이…”하고 말하는 경우가 흔하다. 공손하게 말한다고 자기 아내를 높여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큰 실례이다.

(예) “웬만한 집안일은 제 부인이 합니다.” (×)

### (9) 형과 그 아내

형은 ‘형(님)’으로 부른다. 어릴 때는 ‘형’이라고 부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형의 아내는 ‘아주머님, 형수님’이라고 부른다.

### (10) 남동생과 그 아내(남자의 경우)

남동생은 ‘○○[이름], 아우, 동생’으로 부른다.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우, 동생’처럼 불러 대우해 준다. 그 아내는 ‘제수씨(弟嫂氏), 계수씨(季嫂氏)’라고 부른다. 말도 존대하여 말한다.

(예) “제수씨, 제게 입장권이 있는데 동생하고 야구장 가실래요?”

### (11) 누나와 그 남편

누나를 부르는 말은 ‘누나, 누님’이다. 그 남편은 ‘매부, 매형, 자형’이라 부른다. ‘매부’는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도 쓰는 말이다.

(예) “매형, 탁구 치러 가요.”

### (12) 여동생과 그 남편(남자의 경우)

여동생은 ‘○○[이름], 동생’으로 부른다. 그 남편은 ‘매부, ○ 서방’으로 부른다.

### (13) 오빠와 그 아내

오빠를 부르는 말은 ‘오빠, 오라버니(오라버님)’이다. 그 아내를 부르는 말은 ‘(새)언니’이다. 이 ‘(새)언니’라는 말은 무척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주 널리 쓰이는 말이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오빠의 부인이기 때문에 ‘(새)언니’라고 불러야 한다.

(예) “언니, 오늘 저와 같이 백화점에 가요.”

### (14) 남동생과 그 아내(여자의 경우)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이다. 그 아내는 ‘올케’라고 부른다.

(예) “올케, 이것 좀 해 줘.”

### (15) 언니와 그 남편

언니를 부르는 말은 ‘언니’이다. 그 남편은 ‘형부’라고 부른다.

(예) “형부, 어디 가세요?”

### (16) 여동생과 그 남편(여자의 경우)

여동생은 ‘○○[이름], 동생’으로 부른다. 그 남편은 ‘○ 서방(님)’으로 부른다. 나이가 자기보다 더 많을 경우 ‘서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서방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이다. ‘○ 서방’이라고 말해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듣는 사람이 잘 모를 경우에는 ‘동생의 남편’이라고 분명하게 가리키면 된다.

(예) “박 서방, 이것 좀 들지.”  
“이 그림 우리 동생 남편이 그린 거야.”

### (17) 남편의 형과 그 배우자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으로 부른다. 그 아내는 ‘형님’으로 부른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불러야 하며 존댓말을 써야 한다. 여자의 서열은 시댁의 남편들의 서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예) “아주버님, 올 설에는 옷놀이 안 해요?”  
“형님, 혼이는 공부 잘해요?”

### (18) 남편의 아우와 그 배우자

남편의 아우는 미혼(결혼을 안 함)인 경우 ‘도련님’으로 부르고, 기혼(결혼을 함)인 경우 ‘서방님’으로 부른다. 그 아내는 ‘동서’라고 부른다. 이때, 만일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다면 ‘동서’라고 부르되 존댓말을 하여야지 하대(낮추어 말함)해서는 안된다.

(예) “도련님,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죠.”  
“서방님, 장가가시더니 흰해지셨어요.”  
“동서, 나 이것 좀 들어 줘.”

한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기대어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다. 전통적인 직접 호칭어가 있을 경우 ‘삼촌, 고모, 큰엄마, …’ 등의 간접 호칭어를 써서는 안된다.

(예) “삼촌, 언제 이사해요?” 【시동생에게】(×)

### (19) 남편의 누나와 그 배우자

남편의 누나는 ‘형님’으로 부른다. 그 남편, 곧 시누이의 남편은 ‘아주버님, 서방님’으로 부른다.

(예) “형님, 보내 주신 김치 잘 먹고 있어요.”  
“아주버님, 형님이 찾으시던데요.”

원래 시누이의 남편은 내외하는(남남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조심하여 피하는 것) 관계여서 그 부르는 말도 없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서로 만날 일도 많아 호칭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 쓰이는 말을 찾아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시누이의 남편을 ‘아주버님, 서방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도 제대로 몰라 물어보는 경우가 매우 많다.

### (20) 남편의 누이동생과 그 배우자

남편의 누이동생(여동생)은 ‘아가씨, 아기씨’라고 부른다. 이 말은 무척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나 한국에서는 매우 널리 쓰이는 말이다. 다른 여자를 가리킬 때 ‘아가씨’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여자를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남편의 여동생을 가리킬 때는 그 여동생이 아주 어리거나(예를 들어 5살짜리) 결혼을 해도 ‘아가씨’라고 부른다.

(예) “아가씨, 그 반지 참 예쁘네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부르는 대로 시누이를 ‘고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절대로 삼가야 한다. ‘고모’는 아버지의 누이들을 부르는 말이지 시누이를 부르는 말로 쓸 수 없다.

(예) “고모, 결혼하고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시누이에게】 (×)

그 배우자(손아래 시누이의 남편)는 ‘서방님’으로 부른다. ‘서방님’은 손위 시누이와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을 두루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예) “서방님, 아가씨 생일날 좋은 데 가셨어요?”

### (21) 아내의 남자 동기와 그 배우자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형님, 처남’이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 부르고, 나이가 적으면 ‘처남’이라 부른다.

(예) “형님, 소주 한잔 하시지요?”

“처남, 소주 한잔 받으시게.” 【아내의 오빠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이라고 부른다. 나이가 아주 어리면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손아래 처남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다고 해서 ‘형님’이라고 하지는 않다.

(예) “처남, 신혼 재미는 어때?”

“병국아, 학교 생활은 재미있니?”

아내의 오빠의 아내(손위 처남의 댁)는 ‘아주머니’라고 부른다. 처남의 댁은 시누이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호칭어가 없었으나 이와 같이 새로 말을 만들었다. 당사자 외 남에게 가리켜 말할 때는 그냥 ‘처남의 댁’이라고 한다.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손아래 처남의 댁)는 직접 부를 때도 ‘처남의 댁’이라고 한다.

(예) “아주머니,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손위 처남의 댁에게】

“처남의 댁, 처남하고 부부 동반으로 가시죠.” 【손아래 처남의 댁에게】

### (22) 아내의 여자 동기와 그 배우자

아내의 언니는 ‘처형’이라 부른다.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라 부른다. 간혹 처제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처제’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아내 언니의 남편, 곧 손위 동서는 ‘형님’이라 부른다. 다만 자기보다 나이가 적

을 경우에는 ‘형님’이라 하지 않고 ‘동서’라고 한다. 남자들의 서열에서 아무리 순위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형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아내 여동생의 남편, 곧 손아래 동서는 ‘동서, ○ 서방’이라고 부른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면 ‘동서’라고 한다. 나이가 많더라도 서열상 손아래이므로 ‘형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또 손아래이긴 해도 나이가 많으므로 ‘○ 서방’처럼 낮추어 말하지도 않는 것이다.

【참고】 남자들의 서열에서 ‘형님’으로 부르는 경우는 상대방이 (1) 순위이면서 (2) 나이가 많을 때만 그렇게 부른다.

### (23) 숙질 사이(아저씨와 조카 사이)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라고 부른다. 지방에 따라서 맏형만 ‘큰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라고 한다. 그 부인은 ‘큰어머니’라고 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은 결혼하기 전에는 ‘삼촌, 아저씨’라고 부르고, 결혼한 뒤에는 ‘작은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부인은 ‘작은어머니’라고 한다.

아버지의 누이는 ‘고모, 아주머니’라고 하고 그 배우자는 ‘고모부, 아저씨’라고 한다.

어머니의 자매는 ‘이모, 아주머니’라고 하고 그 배우자는 ‘이모부, 아저씨’라고 한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 아저씨’라고 부르고 그 배우자는 ‘외숙모, 아주머니’라고 한다. 자신의 외삼촌을 자녀들에게 지칭할 때 (아버지의 외가는 진외가(陳外家)이므로) ‘진외종조부(님)’이라고 하거나, 자녀의 편에 서서 ‘진외할아버지’라고 한다. 곧 ‘진외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외삼촌 모두 가리키는 말이 된다.

조카나 조카딸은 어릴 때는 이름을 부르고 장성하면 ‘조카’라고 부르거나 ‘○○ 아비(아범), ○○ 어미(어멈)’이라고 부른다. 다만 시댁의 조카는 나이가 더 많을 경우 ‘조카님’이라고 해야 한다.

조카의 아내는 며느리 부르듯 ‘아가, 새아가, ○○ 어미, ○○ 어멈’으로 부르고 조카사위도 사위 부르듯 ‘○ 서방, ○○ 아범, ○○ 아비’로 부른다

### (24) 사돈 사이

같은 항렬 : 발사돈(‘바깥사돈’의 준말 : 남자 사돈)이 발사돈을 부르는 경우 ‘사돈 어른’ 또는 ‘사돈’이라고 하고, 안사돈(여자 사돈)을 부르는 경우 ‘사부인’이라고

한다. 안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경우 ‘안사돈’이라고 하고, 발사돈을 부르는 경우는 ‘사돈 어른’이라고 한다.

위 향렬 : 며느리·사위의 조부모를 부르는 말은 ‘사장(査丈) 어른’이다. 할머니를 구별하여 ‘안사장 어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조부모보다 한 향렬 높으면 ‘노사장 어른’이라고 한다. 이런 말은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래 향렬 : 며느리·사위의 동기와 그 배우자, 조카 등 아래 향렬의 사람을 부를 경우, 남자는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으로, 여자는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등으로 부른다.

## 나. 직장과 사회에서

### (1) 직장 사람들

직함이 없는 동료끼리는 남자든 여자든 ‘김철수 씨’ 하고 부르면 좋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름만으로 ‘철수 씨’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아무리 친해도 직장에서 ‘철수야’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아무리 동료라도 상대방이 나이가 많으면 이름을 부르기 미안하므로 ‘김 선배(님)’와 같이 말한다. 직장이 만일 학교나 연구원 등이라면 ‘선생님’ 또는 ‘김 선생님(님)’이라는 호칭어가 직장의 분위기에 어울려 좋다.

직함이 없는 선배를 부를 경우 ‘김철수 씨’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꼭 ‘님’ 자를 붙여 ‘선배님, 선생님, 김 선생님, 김철수 선배님’처럼 부른다. 나이 지긋한 여사원은 ‘박 여사, 박영희 여사’로 부를 수 있다.

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을 부를 경우 ‘김철수 씨’를 쓰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김 선생님(님), 김철수 선생(님)’으로 부른다. 나이가 아주 어린 직원은 ‘김 군’, ‘박 양’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직장에서 ‘철수야’ 또는 ‘김 씨’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나이가 어려도 직장인으로서 대우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오늘날 이름 없이 ‘○ 씨’ 하는 것도 과거와 달리 높이는 뜻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 (2) 타인

친구의 아내는 ‘아주머니, (박)영희 씨, 훈이 어머니, 부인, 박 여사, 박 과장(님) [직함이 있는 경우]’ 등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쓸 수 있다. ‘제수씨, 계수씨’ 등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해당 친구에게 지칭할 때에는 ‘(자네) (함)부인’, ‘훈이 어머니’로 한다. 사람에게 따라서 “자네 와이프는…”처럼 영어 와이프(wife)를

쓰기도 하는데 절대로 삼가야 한다.

친구의 남편 또는 남편의 친구는 친한 경우 ‘(김)철수 씨’처럼 이름을 부르거나 ‘훈이 아버지’라고 하면 된다. 또 직장의 직함에 따라 ‘(김) 과장님’이라고 하거나 ‘(김) 선생님’ 등을 적절히 골라 쓸 수 있다.

아내의 친구 역시 친하면 ‘(박)영희 씨’라고 하거나 아이의 이름을 넣어 ‘훈이 어머니’라고 하면 된다. ‘아주머니’도 좋은 호칭어이며 상황에 따라 ‘박 선생(님)’이나 ‘박 여사’라고 할 수도 있다. 또 직함이 있다면 ‘박 과장(님)’ 등으로 불러 무난하다.

직장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원래 스승의 부인을 부르는 말이었으나 오늘날 윗사람의 부인을 부르는 말로 널리 쓰인다. 또 ‘아주머니(님)’라고 할 수도 있다.

직장 상사의 남편은 ‘(김) 선생님’이나 ‘(김철수) 선생님’으로 부르면 된다. 직함이 있으면 ‘선생님’ 대신 ‘과장님’ 등의 직함을 넣어 부른다.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바깥 어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바깥 양반’은 동료 및 아랫사람의 남편을 가리키거나 자신의 남편을 겸손하게 가리키는 말이므로 윗사람의 남편에 대해서는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아내는 ‘아주머니(님)’이나 ‘부인’으로 부르고 지칭한다. 해당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는 ‘아주머니(님)’이나 (자네) (합)부인’이라고 지칭한다.

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남편은 직장 상사의 남편을 부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 선생님’이나 ‘(김철수) 선생님’으로 부른다. 직함이 있으면 ‘과장님’ 등의 직함을 넣어 부른다. 해당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는 ‘부군’ 또는 ‘바깥 양반’으로 지칭한다.

식당 등 영업소의 종업원을 부를 경우 남자 종업원은 ‘아저씨, 젊은이, 총각’이라고 하고, 여자 종업원은 ‘아주머니, 아가씨’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일반적으로 ‘여보세요’라고 할 수 있다. 나이 어린 종업원을 ‘어이, 이봐’ 등 함부로 불러서는 안된다. 또 ‘아줌마’는 높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한다.

(예)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아줌마, 물 좀 주세요.” (×)

자기를 소개할 때 대표적인 예로 부모님의 이름에 기대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저희 아버지 함자가 길자 동자입니다”처럼 말한다. 예부터

아버지 같이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하여 이름 각 글자마다 ‘자’자를 붙여 말하는 것이다. 이때 성(姓)에는 ‘자’자를 붙이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에서 중요한 예법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

### 3. 경어법

우리말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경어법이 잘 발달된 언어이다. 우리말의 경어법에는 ‘존경법’과 ‘공손법’이 있다. 존경법은 “아버지가 저기 나오시는구나”처럼 말하는 내용의 주체(곧, 문장의 주어=예문의 ‘아버지’)를 높이는 어법이다. 공손법은 “선생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처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즉 듣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거나 하여 공손하게 말하는 어법이다.

#### 가. 가정에서

올바른 경어법을 위해서 단어를 잘 선택해서 쓸 줄 알아야 한다. 용언(동사·형용사)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날 경우 “책을 잃어 버리셨다”처럼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시-’를 쓴다.

【사례】 초등학교생인 딸아이가 학교에서 오더니 “나 오늘 선생님께 야단맞았어”라고 하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어딘가 어감이 좀 좋지 않았다.

존댓말을 잘 가려 쓰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 흔히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다”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야단’은 어른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아버지한테 걱정(꾸중, 꾸지람)을 들었다”처럼 말해야 한다. ‘생일/생신, 밥/진지, 나이/연세, 이빨/이치아, 술/약주, 집/댁, 병/병환, 나/저, 아프다/편찮다, 먹다/잡숫다, 있다/계시다, 자다/주무시다, 묻다/여쭙다, 말하다/아뢰다(말씀드리다), 주다/드리다, 만나다/뵙다’ (뵙금 오른쪽 말이 높임말) 등은 특히 아이들이 잘 익혀 쓰도록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할 말들이다.

존칭의 조사 ‘께서’, ‘께’는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용언의 ‘-시-’로도 충분

히 높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어(글이 아닌 입으로 하는 말)에서는 ‘께서’, ‘께’ 등과 같은 조사보다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다”처럼 ‘이/가’, ‘한테’ 등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깍듯이 존대해야 할 사람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께서’나 ‘께’ 등으로 높여야 한다.

【사례】 회사에서 행사가 있는데 식순 소개 중 “다음은 사장님 말씀이 게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존경의 어휘를 쓰지 않아야 할 자리에 존경의 어휘를 쓰는 것 또한 잘못이다. “아버님은 2층에 불일이 계시다”는 옳지 않고 “...불일이 있으시다”가 옳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음은 사장님 말씀이 있으시겠다”처럼 말해야 한다.

또 “딸아이가 매일 저에게 여쭙어 봐요”처럼 자신에게 물어본 것을 아랫사람이 물었다고 해서 ‘여쭙다’를 쓰는 것도 잘못이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물어 봐요”처럼 써야 한다.

“제가 했어요”, “그러셨어요?” 등과 같은 ‘해요’체의 말도 잘 가려 써야 한다. 이 ‘해요’체는 가정에서는 분위기나 화제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는 친밀한 표현이다. 그러나 깍듯이 존대를 해야 할 사람에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선생님에게 말할 때 “제가 했어요”보다는 “제가 했습니다”처럼 말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 한편 ‘고맙다’처럼 굳어진 인사말이 있는 경우에도 ‘고마워요’와 같은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사례】 자기보다윗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높여 말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시할아버지께 시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낮추어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말할 때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처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이고 표준 화법이다. 이것은 ‘압존법’이라고 하여 직장에서의 언어 예절(뒤 참조)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조부모에게도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와 같이 ‘-시-’를 넣

어 아버지보다 윗사람에게 아버지를 높여 말하는 것도 표준이 되었다.

(예)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높여 말한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모를 말할 때는 언제나 높여, 학교 선생님에게 아버지를 말할 때에도 “저희(우리) 아버지께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와 같이 말한다. 그러나 ‘아버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남편을 시부모에게 말할 때는 “아범(아비)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또는 “그이가 아버지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와 같이 낮추어 말한다.

【사례】 한번은 남편 회사의 상사가 전화하였는데 마침 남편이 집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라고 해야 하는지, “지금 집에 없습니다”라고 해야 하는지 난처했다.

남편을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기 전에는 서술어에 ‘-시-’를 넣어 표현하고, 남편의 친구나 상사라는 것이 확인되면 ‘-시-’를 넣지 않는 게 좋다.

(예) “아, 김 부장님이세요? 애기 아빠는 담배 사러 나갔는데요.”

또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의 남편을 말할 때, 나이 든 사람은 ‘-시-’를 넣어 말해도 되지만 젊은 사람이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말할 때에는 “경식아, 아비(아범) 좀 오라고 해라”보다는 “경식아,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처럼 ‘아비(아범)’보다는 ‘아버지’로 가리키고 서술어에 ‘-시-’를 넣지 않고 말하는 것이 표준이다. 그러나 손자, 손녀에게 아버지는 대우해서 표현해야 할 윗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서술어에 ‘-시-’를 넣어 “경식아, 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라고 할 수도 있다.

## 나. 직장에서

### (1) 존경법

직장에서 동료, 아랫사람, 윗사람에 관하여 말할 때 서술어에 ‘-시-’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동료에 관해서 말할 때는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관계없이 ‘-시-’를 넣지 않는다. 과장이 아랫사람에게 말한다면 “박영희 씨, 김 과장 어디 갔어요?” 하고 말한다. 다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를 다른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과장이) 박영희 씨, 김 과장 어디 가셨어요?”와 같이 서술어에 ‘-시-’를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역시 ‘-시-’를 넣지 않는다.

【사례】 사장님이 나에게 과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물었다. “은행에 갔습니다”라고 해야 할지, “은행에 가셨습니다”라고 해야 할지 곤란했다.

윗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평사원이) 사장님, 이 과장님은 은행에 가셨습니다” 하고 말한다. 가정에서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말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와 같이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곧 가정과 직장의 언어 예절에 차이가 있다. 종종 “(평사원이) 사장님, 이 과장은 은행에 갔습니다”처럼 낮추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일본식 어법일 뿐이다.

(예) (평사원이) “사장님, 이 과장님은 은행에 가셨습니다”

(평사원이) “사장님, 이 과장님은 은행에 갔습니다” (×)

아랫사람에 관해 말할 때는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관계없이 ‘-시-’를 넣지 않고 “(과장이) 박영희 씨, 김철수 씨 어디 갔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랫사람을 그보다 더욱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부장이) 박영희 씨, 김 과장 어디 가셨어요?”처럼 ‘-시-’를 넣어 말할 수 있다. 또 아들 등 그 가족에게 말할 때는 “김 과장(님) 은행에 가셨다”처럼 ‘-시-’를 넣어 말한다.

【사례】윗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선배에게 존댓말을 하더라도, 그 선배에 대하여 선생님에게 말할 때는 “김 선배가 결석했어요”처럼 낮추어 말해야 한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가정으로 보면 부모와 자녀처럼 한 향렬의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직장인으로 구성된 직장에서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2) 공손법

비슷한 나이의 동료끼리 말할 때는 “(평사원이) 김철수 씨, 거래처에 전화했어요?”, “(과장이) 김 과장, 거래처에 전화했어요?”처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동료간이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위이거나 또는 공식적인 자리라면 “전화했습니까?”처럼 말할 수도 있다. ‘-어요’보다는 ‘-습니까’가 훨씬 정중하고 격식적인 말이다. 윗사람에게 말할 때도 어느 경우에도 “전화하셨습니다?”처럼 하고,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사장이) 박영희 씨, 거래처에 전화했어요?”처럼 높여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랫사람이 어리고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는 “전화했니?”처럼 낮춤말을 할 수 있고, “전화했소?”, “전화했나?”도 쓸 수 있다.

한편, 집에서처럼 직장에서도 높임말이나 겸양의 말을 적절히 골라 써야 한다. 다만 집에서는 ‘진지’라고 하는 것을 직장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과장님, 점심 잡수셨습니까?”처럼 ‘점심’이나 ‘저녁’으로 쓰는 것이 좋다. 이 때 흔히 “과장님, 식사하셨어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잘못이다. “과장님이 편찮으셔서 식사도 못 하신대”와 같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말할 때가 아니고 직접 맞대어 말할 때는 쓰지 말아야 한다.

## 4. 인사말

### 가. 일상생활에서

#### (1) 아침, 저녁

집에서 아침 인사를 할 때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잘 잤어요?, 잘 잤니?”라고 한다. 아침에 동네에서 이웃 어른을 뵈었을 때는 “안녕하십

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잠수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하고, 동년배나 손아래 사람이라도 성인인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며, 손아래 미성년자에게는 “안녕?, 잘 잤니?” 하고 인사한다. 직장에 출근해서는 상대에 따라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왔군, 나오나” 등을 쓰면 된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상대에 따라 “안녕히 주무십시오, 잘 자, 편히 쉬게” 하고 인사한다.

## (2) 만나고 헤어질 때

집안에서 출입할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리다, 다녀오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소.” 등으로 인사한다. 인사를 받는 사람도 적절히 인사하도록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어른에게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한다.

직장에서 먼저 퇴근할 경우 윗사람에게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일 뵈겠습니다.”라고 한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는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은 윗사람에게 쓰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식당이나 가게, 은행, 관공서 등에서 나오면서 주로 하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도 가능하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이 좋다.

## (3) 전화할 때

한국에서는 전화기의 벨이 울리면 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먼저 말을 시작한다. 이때 “여보세요”가 가장 일반적이며, 상황에 따라 “여보세요(네), OO(지역 이름, 장소 이름, 직장 이름 등)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

전화를 바꾸어 줄 때는 “(네), 잠시(잠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으며, 그전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구(시)라고 전해 드릴까요(여쭙까요)?”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라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답한다.

전화가 잘못 걸려 오면 무의식적으로 불친절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닌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처럼 말하면 전화 건 사람의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는) 000입니다. 000씨 계십니까?” 혹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는) 000입니다. 000씨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한다.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미안합니다만) 000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와 같이 말하면 된다.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는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말해야 한다.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인사를 한다.

#### (4) 소개할 때

자기를 남에게 소개할 때는 “처음 뵙겠습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000입니다.”라고 한다.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 손아래 사람을 손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하고, ㉢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하며, ㉣ 이러한 상황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 ㉡, ㉢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 나. 특정한 때

#### (1) 송년, 신년

송년 인사는 정형화된 말이 없어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등으로 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새해는 매우 중요한 때이다. 우리 조상은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 새해 첫날인 설날은 음력으로 세는 날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양력을 사용하고 있어서 새해 첫날과 설날이 서로 맞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음력 1월 1일에 맞추어 설을 쇠기도 하고, 집안에 따라서는 양력 1월 1일에 쇠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는 양력설과 음력설이 뒤섞여 있고, 어느 때든 새해 인사를 한다.

새해 인사로 가장 알맞은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다. 상대에 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등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은 집안, 이웃, 학교 등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인사말이다.

세배할 때는 절하는 것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어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오.”와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공손히 절만 하면 된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절을 하기 전이나, 절을 하면서, 절을 하고 나서 바로 어른께 이런 인사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례이다. 조용히 절만 하고 나서 어른의 말씀(이를 ‘덕담’이라고 한다)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절하겠다는 뜻으로 어른에게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예의가 아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어른이 자리에 앉으시면 말없이 그냥 공손히 절을 하는 것이 옳다.

덕담은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인사말이다. “새해 복 많이 받게”, “소원 성취하게”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어른의 덕담이 있는 뒤에 인사를 한다. 이때 특별히 “만수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세요”와 같이 건강과 관련된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본뜻과 달리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늙었나?’ 하는 서글픔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등산 많이 하세요.”, “올해는 두루두루 여행 많이 다니세요.”와 같이 기원을 담은 인사말이 좋다.

## (2) 생일 축하

예순 이후의 특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의 생신에 자녀들이 잔치를 여는 것이 우리의 오랜 풍습이다. 어른의 생신을 가리키는 말에는 ‘육순(六旬)’(60세), ‘환갑(還甲), 회갑(回甲), 화갑(華甲)’(61세), ‘진갑(進甲)’(62세), ‘칠순(七旬), 고희(古稀)’(70세), ‘희수(喜壽)’(77세), ‘팔순(八旬)’(80세), ‘미수(米壽)’(88세), ‘구순(九旬)’(90세), ‘백수(白壽)’(99세) 등이 있다.

어른의 생신일 경우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상대에 따라 “생일 축하하네.”, “생일 축하해.”라고 말한다. 환갑, 고희 등의 잔치에서는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회갑 잔치 등에서 축의금을 낼 경우 봉투 앞면에 ‘祝 壽宴(축 수연)’, ‘祝 還甲(축 환갑)’, ‘祝 古稀宴(축 고희연)’ 등과 같이 쓰고 뒷면에 이름을 쓴다. 한글로 써도 무방하며, 가로쓰기를 할 수도 있다. 이때 ‘壽宴(수연)’은 환갑 이상의 생신 잔치에 두루 쓸 수 있는 말이다. 한편 단자(單子, 부조나 선물 따위의 내용을 적은 종이)는 반드시 넣는 것이 예의이다. 단자에는 봉투의 인사말을 써도 되고 ‘수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와 같이 문장으로 인사말을 써도 된다. 그리고 ‘금 00000원’처럼 물목을 적은 다음 날짜와 이름을 쓴다.

### (3) 축하, 위로

결혼식에서는 “결혼(혼인)을 축하합니다(경축합니다).” (본인·부모에게), “얼마나 기쁘십니까?” (부모에게) 하고 인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봉투·단자에는 ‘축 혼인(祝婚姻), 축 결혼(祝結婚), 축 화혼(祝華婚)’ 등을 쓰며, 특히 단자에는 ‘결혼(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경축합니다).’라고 써야 된다.

정년 퇴임하시는 분께는 “축하합니다(경축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축하합니다(경축합니다). 벌써 정년이사라니 아쉽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봉투나 단자에는 “근축(謹祝), 송공(頌功), (그동안의) 공적을 기립니다.”라고 쓴다.

문병을 가서 처음 환자를 대할 때는 “좀 어떠십니까(어떻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고, 불의의 사고일 때는 “불행 중 다행입니다.”라고 인사를 한다. 문병을 마치고 나올 때는 “조리(조섭) 잘 하십시오.”,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위로금을 건넬 경우에는 봉투와 단자에 ‘祈 快癒(기 쾌유)’,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를 쓴다.

### (4) 문상

문상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전에 찾아가 인사하는 것이다. 문상 가서 가장 예의에 맞는 인사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다만, 굳이 인사말을 해야 한다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뭘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등과 같이 할 수 있다. 상주도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 된다.

조위금 봉투나 단자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賻儀), 근조(謹弔)’ 등을 쓰고, 단자에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문장을 쓸 수 있다.

### (5) 건배

원래 우리 민족의 술 마시는 문화에는 여럿이 동시에 잔을 쳐들고 건배를 하는 관습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여러 이유로 건배하는 일이 많아져 건배할 때의 말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건배의 말로 정한 것이 “OO을 위하여!”와 그 화답인 “위하여!”이다. 이 밖에도 ‘건배, 축배, 드십시오, 듭시다’ 등을 쓸 수 있다.

- ◇ 담당 연구원: 박정진(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 편집 및 강의: 이운영(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구지민(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발행등록번호  
국립국어원 2008-3-3

---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강의 자료집  
- 러시아 사할린 지역 -

2008년 7월 1일 인쇄  
2008년 7월 2일 발행

발행인 이상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 3동 827번지  
전화 (02) 2669-9628  
전송 (02) 2669-9787  
인쇄 크리홍보(주) (02) 737-5377

---